

종교 · 성 · 폭력

- 2018년 한국여성신학회 학술포럼 자료집 -



일시: 2018년 12월 8일(토) 오전10시

장소: 감리교신학대학교 내 웨슬리 제1세미나실

순 서

1부:

인사말씀 김정숙 회장
학술포럼 사회: 강희수 회계

포럼 강사: 천주교 - 이현숙 수녀
원불교 - 민성효 교무
불교 - 옥복연 소장
개신교 - 채수지 목사

임원소개 김정숙 회장
광고 및 단체촬영 장영주 총무

2부:

시와 노래 정애성 편집위원장
점심식사 및 바자회

☞ 광 고 ☛

1. 한국여성신학회 송년회 및 학술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학술포럼 후 채식 위주의 건강한 점심식사와 바자회가 있습니다.
3. 한국여성신학회 밴드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회원분들께서는 가입해 주셔서 더 편하고 원활한 학회활동을 이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4. 주차권을 드리오니 데스크에서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목차

가톨릭의 여성차별과 억압 그리고 폭력 〈이현숙 수녀,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회〉.....	4
원불교의 여성의식과 성/폭력 인식에 관한 연구 〈민성호 교무, 원불교유성교당〉.....	18
성/폭력에 대한 불교적 해석 및 대안 모색 〈옥복연 소장, 종교와젠더연구소〉.....	41
교회 내 그루밍 성범죄의 원인 분석과 대응 방안 모색 -의식 변화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채수지 목사, 한국여신학자협의회 부설 기독교여성상담소〉.....	52

가톨릭의 여성차별과 억압 그리고 폭력

이 현숙 수녀(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회)

1. 들어가는 말: ‘성폭력’에 대한 두 가지 관점(Sexuality, Gender)과 그 관계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 “미투 와 위드유” 운동이나, “유리 천장”. “여성 협오”, “남성 협오” 등의 용어가 많이 사용되는 것은 그 동안 은밀하게 자행되던 여성 차별과 억압 그리고 폭력의 수위가 그 임계점에 이르러 외부로 연쇄 폭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은 정치, 기업, 학교-예술, 종교 전반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 네 분야가 이 세상을 지탱하고 움직이는 추동력이라고 볼 때, 이들을 대한 여성들의 고발과 항의는 한 개인의 일시적인 일탈이 아닌, 사회문화 구조를 통한 집단적 폭력에 대한 반응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성직자의 성범죄와 여성차별 그리고 억압은 종교가 인간 삶의 윤리와 도덕성에 기여하고 있음을 상기할 때, 다른 어느 분야의 잘못 보다 더 큰 공분과 의혹을 사게 될 것이다. 이는 종교의 본질에 대한 의문이라기보다, 종교의 조직과 제도에 대한 공분과 의혹일 것이다.

가톨릭교회의 성직자 성범죄가 어느 종교보다도 제일 먼저 매스컴을 통해 전국에 알려졌다. 한국 가톨릭 주교회의 대표는 대 국민 사과를 하였고, 주교회의 내에 성직자 성폭력 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을 약속하였고, 각 교구와 남자 수도자 연합회에서는 사제와 남자 수도자 대상의 성 교육을 실시하는 등 빠르게 대처하였다. 여성들은 이러한 일련의 대책들이 일시적인 방비책이 아닌, 교회 쇄신과 개혁으로 이어지길 희망하고 노력하고 있다.

올해 한국 가톨릭을 달군 또 다른 이슈는 ‘낙태’ 문제이다. 낙태 반대를 위해 교회에서 제작한 포스터에는 ‘태아의 사진’ 와 함께 ‘낙태도 살인입니다’라는 문구가 씌여진다. 이 포스터를 처음 보았을 때, 내 주변에 낙태를 경험한 많은 여성신자들이 떠올랐고, 그녀들이 유죄선고를 받는 듯한 충격을 느꼈다.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가 ‘여성과 생명’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고 여성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했다는 점은 다행이다.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면, 제 종교들은 창립 당시 종교의 순수한 본질. 즉 인생 의미와 고통에 대한 심오한 질문에 답을 주는 역할을 하기 보다는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종교는 제도화 되었고, 세상의 권력과 결합하였다. 그 결과 종교가 세상을 선도하기보다 세상의 가치에 함몰되고 합류되었으며, 종교의 가르침은 당대 사람들의 사회문화적 의식 수준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19세기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은 서구 여성들은 자신들에게 부여된 정체성과 역할에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였고, 이는 오늘날 전 세계로 확산된 여성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다. 여성의 참정권과 투표권을 주장하며 남녀평등을 외친 과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었던 제 1물결 여성운동이 있었고, 이어서 인류의 문화 사회학의 맥락에서 보다 심층적으로 여성성을 재조명하고, 사회 개혁을 추구하던 제 2물결 여성운동이 일어났다. 현재는 백인 여성 중심의 1-2 물결에 제 3 세계 여성들이 합류하면서 제 3물결 글로벌 여성신학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들은 여성문제 뿐만 아니라, 지구촌의 문제(정의평화와 생태계 문제.. 난민과 이민...등)에 협력하고 연대하면서 이 세상의 재구조를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인 여성운동의 어디쯤엔가 가톨릭 ‘성’ 담론

이 자리할 것이다.

여성운동은 일반적으로 여성의 몸과 성(sexuality)과 사회, 문화적(gender)차별에 관심을 집중 한다. 여성에 대한 성 폭력을 말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함께 다루어야 할 것이다. 여성의 신체적, 성적 폭력 그 이면에는 여성을, 한 인간으로 대하기보다 도구로 여기는 의식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지구상에서 가난, 전쟁, 난민, 질병... 등 비참한 상황에서 고통 받은 사람들 중의 80%가 여성이라고 한다. 본고를 통해 한국교회의 죄신과 개혁 그리고 재구성에 기여하고, 한국여성 일부의 삶의 향상이 아니라, 지구촌에서 고통 받는 많은 여성들의 삶을 향상 하는 데 기여하기를 희망해본다.

그러면 가톨릭 내의 문헌과 자료들을 모아 분석, 정리 요약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가톨릭의 여성차별과 억압 그리고 폭력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2018년 가톨릭의 ‘성’ 담론 : 세계 주교 시노드 최종 총회문서를 중심으로

둘째. 가톨릭 2000년 성 차별과 억압 그리고 해방의 역사

셋째, 한국 가톨릭 234년 여성의 현실: 이상과 현실의 괴리 사이에서

2. 2018년 가톨릭의 ‘성’ 담론 현황: 세계 주교 시노드 최종 총회문서를 중심으로

‘시노드’는 전 세계 지역교회의 대표인 주교들이 모여 교회의 중대한 사안들을 숙고하고 교황에게 자문할 목적으로 소집되는 회의이다. 3-4년을 주기로 정기총회, 필요에 따라 임시총회가 열린다. 올해는 제 15차 정기총회로, 주제는 “젊은이, 신앙과 성소식별”이다. 이 주제는 최근 유럽과 아메리카의 가톨릭교회에서 불거진 성직자 성범죄의 대책 마련과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제 15차 정기총회 최종문서는 투표권자 249명 중 2/3이상의 찬성(166명)을 얻어 총167항이 통과되었다. 대부분의 항목들은 절대다수 찬성으로 통과 되었으나, 200표 이상의 찬성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대 의견이 두드러졌던 항목이 있었는데 다음 다섯 가지 주제들이다¹⁾. “성직중심주의와 성범죄(29-31항)”, “성윤리(37-39항)”, “여성 역할의 확대(55항)”, “독신 제도(90항)”, “교회운영-공동 합의성(sinodality)(122-123항)이었다. 이 중 ”성윤리“는 200명의 찬성에 이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반대가 많았던 항목이었다. 그러면 시노드에서 쟁점이 된 항목들을 여성과 관련하여 두 관점 (Sexturality, Gender) - 으로 나누어 살펴보자.

첫째. Sexuality 차별. 시노드 의안집에서는 성직자의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처벌로 무관용”이 제시되었으나, 최종문서는 처벌보다는 “책임과 교육을 맡게 될 이들에 대한 선발과 양성에서부터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는 엄격한 예방책”을 채택하였다. “신앙과 자기 헌신의

1) 2018년 세계주교시노드 최종문서

<http://www.synod2018.va/content/synod2018/it/fede-discernimento-vocazione/documento-finale-e-votazioni-del-documento-finale-del-sinodo-dei.pdf> (2018/11/18 이태리어):

가톨릭프레스 기사 “세계주교시노드 무슨 논의 했나”를 중심으로

<http://www.catholicpress.kr/news/view.php?idx=5403&mcode=m1wnm0>

논리 안에서 지켜지는 독신제도는 세례 때 받은 은총을 실현시키는 수많은 방법 중 하나임을 재확인”하였고, 독신제도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벨기에 주교들은 ‘기혼 남성 사제(viri probati)’의 가능성을 거론하였다. “성윤리”는 젊은이들과의 소통에 주된 갈등의 요인이 되며, 교회는 젊은이들의 성윤리를 판단하고 단죄한다고 생각하며, 신자들의 냉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성’의 도구화와 상품화를 지적하였고. “... 신앙과 성, 그리고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남녀의 정체성과 차이, 상호 관계에 대하여” 제한 없는 논의가 필요함을 명시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가톨릭 여성사라는 관점에서 살펴 보면 Sexuality 억압과 폭력의 역사가 보이고, Gender 차별의 근거가 보인다. 이는 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다. 가톨릭에서 성직자를 아버지 (Father)로 부르는데, 성직자는 일반신도와 영적·심리적·구조적인 자부적 의존관계를 형성한다. 수직적이며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관계를 맺는데 익숙한 일부 성직자들은 자신들에게 의존하고 있는 여성, 혹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루밍형 성폭력을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실제적으로 가족 간의 성폭력이 은폐되었듯이, 교회 안에서도 성직자의 아동-청소년, 여성 성폭력은 은폐되어 왔다.

둘째. Gender 차별. ‘교회운영방법-공동 합의성’에 대해 반대가 많았던 주원인이 ‘공동 합의성’에 대한 시각이라는 평이 있었다. 이는 60년대 제 2차 바티칸 공의회가 처음 제시한 권력의 분산이라는 공감대가 아직 현실화되지 못했음을 반증하고 있다. 이는 가톨릭 안에 ‘여성 역할’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시노드는 ‘여성사제직과는 별개로 특수한 사목적 책임이 요구되지 않은 경우에서 조차도... 여성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일이 매우 어려운 현실이며, 그 결과 교회가 부실해짐’을 지적하고, “문화적 회개와 일상 사목의 변화”的 필요성을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본인은 여성의 몸과 성적인 차별이 개선된다면, 젠더 차별이 개선될 것이고 이와 반대로 젠더차별이 개선된다면 여성의 몸과 성적인 차별도 개선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런 관점에서 성직자의 그루밍형 성 폭력의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여성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가부장적 성직중심 문화를 인정했고 유감을 표했다²⁾. 이번 시노드 개최 연설에서 현 교황 프란치스코는 성직중심주의를 “섬김이 아닌 권력으로 해석하는 엘리트 중심적이고 배타적 시각에서 유래”하며 “부패가 짹트는 토양”이라 규탄하고, 이로 인해 자신이 겪은 악을 고발하는 용기를 낸 모든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들은 “교회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깨닫게 도와준 이들”이라고 했다. 그 주인공은 성직자 성범죄를 고발할 용기를 낸 피해자들 그리고 교회의 구조적 차별과 억압에 대해 항의한 선구자적 여성들일 것이다.

그러나 여성의 현실은 아직 가야할 길이 멀게만 느껴진다³⁾. 이번 시노드에서 치열하게 논의된

2) “... 여성들의 존엄성이 보통은 인정되지 않았고 그녀들의 재능이 잘 표현되지 못하였다. 여성들은 빈번이 사회 변두리고 내몰렸다... 객관적 책임이 특히 교회의 몇몇 구성원에게 있다면 저는 이에 대하여 진정으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재인용: 도나 오르수트, ‘상징적 언어로서의 ’생육성‘(Generativity), 『여성문화 평등과 차이』 중에서, 교황청 문화평의회 역음,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15, 119.

3) 그리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여성 직무사제직은 교도권으로부터 완전히 부정되었지만, 그 이유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하고, 민감하고 ‘인화성’을 가진 문제로 남아있다. 시노드에 초대 된 남자 수도자 2명에게 투표권이 주어졌고, 반면 수녀 7명에게는 발언권만 인정되었다. 이에 대한 항의에 시노드 규정 때문이라는 짤막한 해명이 있었고, 추후에 이 법안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몇몇 참가자들의 제안이 있었다. 세계수녀연합회(UISG) 회장자격으로 시노드에 참여한 셀리 하더즈 수녀는 세계수녀연합회

‘여성의 위치’에 대한 논쟁에 대해 개신교(세계교회 협의회) 젊은이 대표로 참석했던 32세 여성사제 코백카 신부는 무늬만 평등한 가톨릭 여성의 현실을 날카롭게 지적하였다. “나는 여성 서품에 관한 로마 가톨릭교회의 입장을 인정하지만, 교회 내 여성의 역할에 관한 이 주요한 문제에 대해 평화롭고 존중을 갖춘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바꾸어 말하면 가톨릭 내 여성 담론은 아직 비평화적이고 존중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아직 여성의 권리 주장을 교도권 권위에 대한 도전 그리고 교회의 불일치를 조장하는 행위로 보기 때문이다.

비록 여성에 대한 역사 기록이 거의 전무한 상태 이었지만... 여성들은 자신들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가 만들어진 과정을 추적하였고 거시적인 전망에서 오늘날 여성의 처한 상황을 해결할 단초를 찾았다. 잘못된 과정을 안다는 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3. 가톨릭 이천년 성 차별과 억압 그리고 해방의 역사

메리 말로운의 저서인 3권의 책 “여성과 그리스도교”⁴⁾는 가톨릭 여성신학을 공부하는 이들에게 필독도서 중 하나로, 가톨릭 여성의 차별과 억압의 역사를 시대별로 구분하여 잘 설명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메리 말로운의 핵심내용을 정리 요약한 본인의 글을⁵⁾ 사용할 것이다. 이 작업을 통해 시노드 최종문서에서 논쟁이 되었던 주제들이 - 독신 성직자의 권력과 성범죄”, “교회운영-공동 합의성”, “여성역할 확대”, “독신제도”, “몸과 성” - 어떤 역동적인 관계를 가지고 여성차별에 기여하고 있는지 그 상관관계를 보게 될 것이다.

1) 성경을 통해 본 남녀의 차별

여성신학자들은 성경에서 남녀평등 혹은 차별과 억압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구절들이 있음을 주목하였다. 그 중 가톨릭 전통에서 남녀평등의 근거가 되는 구절들은 축소되고, 간과되었으며 ⁶⁾(마르코 3,35; 마태오12,50; 갈라디아 3,28-29⁷⁾), 반면 여성 차별을 뒷받침할 만한

회장으로 그리고 본인은 자신의 수녀회 총 책임자로 나도 투표권을 받을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사 표명을 하였고, 스페인 루이자 베르조사 수녀는 “여성도, 젊은이도 얼마 없는 이런 시노드 구조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임을 지적하고, 여성과 젊은이의 참여 확대”를 주장했다. 시노드 개막 당일 회의장 밖에서는 십여명의 여성신도들이 “똑똑. 누구계십니까? 교회의 절반이 여기 있네요?”라는 구호를 외치며 여성차별에 대한 변화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 4) 참고: 메리 말로운, 『여성과 그리스도교1』, 유정원-박경선 옮김, 바오로딸 출판사 2008; --- 『여성과 그리스도교 2』, 유정원 옮김, 바오로딸 출판사 2009; ---, 『여성과 그리스도교 3』, 안은경 옮김, 바오로딸 출판사 2013---, 『여성과 그리스도교1』, 유정원-박경선 옮김, 바오로딸 출판사 2008; --- 『여성과 그리스도교 2』, 유정원 옮김, 바오로딸 출판사 2009; ---, 『여성과 그리스도교 3』, 안은경 옮김, 바오로딸 출판사 2013);
- 5) 참고: 이현숙, ‘축성·봉헌생활을 하는 여성의 존재와 소명’, 『여성 존재에 부여된 성소』(한국가톨릭여성연구원 2017 심포지엄자료집), 30-41쪽; 이민지, ‘돌을 든 자는 누구인가? 중세유럽 가톨릭과 현대 한국의 미투운동’, 『가톨릭평론』 15호(2018/05) 우리신학회, 23-33
- 6) 즉 남녀는 하느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되었고(창세기 1,27), 예수는 남녀 모두를 한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모시는 자녀, 형제자매로 평등하게 대했으며, 예수 사후 초기교회 ‘가족공동체’에서 여성들도 남성과 함께 공적인 직무를 수행했다는 구절이다.
- 7)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으면 누구나 다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아

구절이 선택되고, 하느님의 뜻으로 해석되었다. 즉 남자가 먼저 창조되고, 남자의 짹이 필요해서 남성의 갈비뼈로 여성이 만들어졌으며(창세기 2,18.21), 남성을 유혹한 여성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와 고통이 시작되었다(창세기 3,1-9) 귀절은 여성은 남성을 죄로 이끄는 유혹자로 해석되었다. 그 결과 여성은 남성에게 종속되어 순종하고 가정에 봉사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1 디모데오 2,11-148); 1코린토14,34-35).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여성 차별과 억압 그리고 폭력을 합리화 하는 해석들이 발전하게 된다.

2) 여성들 사이의 차별 (1-4세기 초): 혼인 vs 동정생활

초대교회 시절 그리스도교 여성은 혼인 이외에 가정과 사회에서 동정으로 살면서 이 세상 이후의 삶(종말론적 삶)을 증거하고, 기도하며 교회에 봉사는 삶이 인정되었다. 그리고 기혼녀들도 교회 안에서 공적인 활동(가르침, 부제, 가정 교회 안에서 방의 나눔)을 하는 등 동정생활을 하는 여성과 기혼 여성 사이에 차별이 없었다. 그러나 3세기 과부, 여성 부제의 위치와 지위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면서, 여성 부제들에게 동정 생활을 강요하였고 병자와 가난한 이들을 위한 봉사로 축소하였고, 지역주교의 권한 아래 귀속시켰다. 교회 직무에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여성들은 혼인을 포기하고 수덕 생활을 하는 동정 생활을 선택하면서, 동정녀와 혼인한 여성들 사이의 차별이 시작되었다. 동정 생활은 초기에 사적이며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선택으로 보았으나, 차츰 동정을 선택하는 과부와 동정녀들의 숫자가 증가하면서 공식적인 서원으로 승격되었다(페르톨리아노,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게네스). 380년에 작성된 “동정 교리”는 복음에 대한 여성의 충실통지를 몸의 순결을 유지하는 척도에 따라, 동정녀100, 과부 60, 기혼30%로 정해졌다.

3) 남녀 동정 생활의 차별(4-6세기): 이성적 존재 vs 성적 유혹자

4세기 이후 과부, 동정녀, 여성부제들이 수덕적 삶을 강조하는 도시 혹은 사막의 수도승 운동에 합류하였고, 당대 교부들은 그녀들에게 탁월하고, 지성적이고, 고결하다는 찬사를 보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남녀 수도자의 사이의 차별이 시작되었다. 남성은 이성적인 존재로 몸을 지닌 예수의 인성을 따르는 존재로, 동정생활을 통해 그 본성이 강화된다. 반면 여성은 동정생활을 통해 ‘남자처럼 하느님을 따르는 존재’(예로니모)로 보았다가, 동정녀들이 본 받아야 할 모델로 마리아의 ‘순결한 몸’(예로니모/암부로시오)이 제시되었다. 그 이유는 약하고 이단에 빠지기 쉬운 하와의 본성을 가진 여성은 세상으로부터 차단되어 침묵, 순종, 정숙, 참회를 동반한 동정 생활을 통해 죄스런 본성을 소멸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교 신학의 초석을 놓은 어거스틴 그리고 그리스도교 신학을 집대성한 토마스 아퀴나스 역시 하느님께서 왜 여성은 창조하였는지에 대하여 많은 의문을 가졌고, 이는 근대의 위대한 사상가들(칸트, 루소, 에라스무스..)에게로 이어질 것이다. 반면 이와는 다른 의견을 가진 소수의 교부도 있었다. 동정이 혼인보다 우세하지 않으며(요비니아누스), 세례를 받은 이는 다른 무엇 보다 하느님의 대한 신앙의 정도에 따라 공평하게 상급을 받는다고 하였다(헬비디우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여성의 존재는 하와의 불순종과 연결되고 마리아는 순종으로 불순

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모두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8) 참고: 강선남, ‘1티모 2,9-15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상생과 희망의 영성』 한국가톨릭여성연구원 설립20주년 기념논문집,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16, 153-188

종의 매듭을 풀었기에 여성은 순종을 통하여 죄를 벗을 수 있는 존재로 순종의 의무를 가진 존재로 규정되기 시작하였다(리옹의 이레네오). 하와의 딸로서 몸을 가진 존재인 여성은 순종과 금욕생활을 통해 길들여야하므로(알렉산드리아의 치릴로), 여성의 공적인 역할 금지에 이른다. 이러한 여성에 대한 사고는 오늘날까지 가톨릭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4) 수도생활을 통한 여성의 공적활동(7-10세기)

324년 니케아공의회에서 여성부제 반대 논쟁이 있었고, 517년(에파온 공의회)에 여성 부제직과 자선에 헌신하던 과부회가 폐기되면서 7-10세기는 차차 수도생활을 통해 여성의 공적 직무의 가능성을 찾았다. 반면 동방교회에서는 12세기까지 여성부제직과 과부회가 지속되었으나 15세기말 수도생활에 완전히 흡수되었다

7-10세기 대 수녀 원장은 영주처럼 자신의 관할 구역에 있는 신자들을 관리하며 십일조를 받았고, 가난한 이들을 보살피며 동시에 세속적 일도 관리하였다. 수녀들은 대 부분 귀족출신이었으며, 수녀원 안에서 기도와 일, 전례와 묵상, 거룩한 독서와 도서관에서 학문의 기회를 가졌다. 주교급 대 수녀원장은 경험이 많은 과부가 유력한 후보자였다. 그러나 여성에게 사제직이 허용되지 않았기에 성사와 전례는 외부 성직자들에게 의존해야 했으며 교구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있었다. 그러자 수도원장의 권력 남용의 방지라는 이유로 관할 주교의 주기적인 방문을 받았다. 이 시대는 왕족과 귀족여성의 단체인 ‘여성참사위회’, ‘왕립수녀회’ 금지된 여성부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단체는 좀 더 느슨한 형태의 수도생활을 하였다. 일정한 규율아래 한시적인 동정서원을 했으며 공동생활을 하였다. 이 단체에 소속된 여성들은 교육과 전례활동에 참여했고, 영성을 추구하며, 동시에 가족의 재산관리까지 가능했고, 주교의 통치를 피해 왕에게 귀속되는 것을 선호했다.

그러나 8세기 샤를마뉴의 정교일치의 개혁이후 서방에서는 주교의 권한이 날로 강화되고, 수녀들에게 봉쇄의 법이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물론 이 시대 봉쇄생활은 남녀 수도자 모두에게 해당되었지만 특별히 여성 보호를 빌미로 나약하고 부도덕한 여성의 의무를 강화하는데 사용되었고, 수녀들에게 주어졌던 다양한 기회가 차단되었다. 10세기 이전 유럽지역의 복음화에 참여했던 수녀들의 선교와 사목 동반자 역할도 중지되었고, 수녀원은 주교의 관할에 넘겨졌다. 기도(연도)를 통해 얻어지는 경제적 수입이 성직자에게 넘겨졌으며, 대 수녀원장이 교회 공적인 모임에서 배제되었고 전례에서 소소한 봉사조차도 금지되었다. 그 당시 170개의 수녀원 중 17개만 생존했다. 수녀들을 남자 대수도원장 혹은 주교들의 엄한 감독을 받아야 했고, 복종과 순종의 덕이 한층 더 강화 되었다. 반면 남자 수도원은 교회의 위계질서에 뿌리를 내리면서 대 수도원장이 주교의 역할을 겸임하였고, 그 힘이 강화되었다. 9-10세기 여성은 나약하고 부도덕한 본성을 가진 존재로 규정하고, 복종과 순종의 상징으로 마리아가 그 모델로 제시되었다. 이어서 그레고리오 대 교황의 대 개혁으로 사제 독신제가 강화 되면서(1139년 제2차 레페란공의회) 성욕이 악마의 유혹과 동일시되었고, 여성은 악마, 성적 유혹자로 등장하였다. 그레고리오 교황은 여성이 본받아야 할 모델로 참회한 창녀 마리아 막달레나의 이미지를 창조⁹⁾하였다. 이는 실제의 인물이라기보다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여성들을 종합하여 만들어진 가상의 인물이었다. 이후 수녀들은 자신들에게 부과된 이 이미지에 내면화 되고 길들여지기

9) 참고: 김영선, ‘마리아 막달레나에 대한 교부들의 주석’, 『상생과 희망의 여성』 중에서, 103-152

시작했다. 이로부터 1000년이 지난 오늘날 여성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역할을 찾기 시작하면서, 마리아 막달레나는 창녀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사도 중의 사도’라는 본래의 모습을 되찾게 되었다.

5) 수녀들의 봉쇄생활 강화와 공적활동 금지(11-16세기): 신비주의를 통한 여성의 공적활동

11세기 유럽에 대학운동이 부흥하였지만, 이와 반대로 여성들은 종교적·신비적 삶에 몰두하였다. 간접적인 교육 기회가 있었던 소수의 귀족층 수녀들 중 일부 특출한 수녀들은 자신의 종교적-신비적 체험을 기록하였고, 기도방법을 전수했다. 14세기 교황 보니파시오 8세는 여성은 몸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봉쇄하라는 목록을 발표하고, 여성에게 유일하게 허용된 일은 숨어서 침묵하고 기도로 도움을 주는 것이라 하였다. 15세기 여성 혐오로 가득한 “마녀의 망치(1486)가 출간되었고, 이후 200년간 20만 명의 마녀들이 처형되었는데, 이들 중 대부분은 사회 변두리에서 생존을 위해 애쓰던 여성들이었고 수녀들도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어있었다. 여성들은 당대 유행한 이성적 객관적으로 신앙을 다룬 스콜라 신학과 반대로, 성경독서와 성경 주해서, 전례주기(대림, 성탄, 사순, 부활) 묵상을 통해 예수에 대한 새롭고 열정적인 신심을 발전시켰고, 하느님이 자신에게 직접 주시는 힘과 권위를 체험했다. 여성의 공식적 가르침이 허락되지 않았기에, 자기비하 형식의 글을 통하여 우회하여 자신들의 권위를 행사하였다. 이 시대 여성의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은 있었지만, 남녀동등성을 주장하지 않았다. 오히려 여러 면에서 사제직을 대신하는 것과 같은 성체신심, 자선사업에 관심을 가졌고, 극단적인 참회의 삶을 실행했다. 이 시대 몸의 학대를 통한 참회행위가 유행하였는데 그 이유는 2가지이다. 한편으로 악마에게 향하는 문이고 죄의 원천인 자신의 몸에 끼친 해악을 참회하기 위해서, 다른 한편으로 예수의 인간적인 고통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열망이었다.

중세 후기는 제도교회가 날로 강성하였고, 여성들에게 암흑의 시기이었으나 아이러니하게도 13-14세기 마리아는 무지한 대중에게 정서적인 안정을 주기는 중재자로 승배되기 시작되었다. 차차 마리아는 이브의 원죄와 대비되는 여성상으로 예수를 하느님께 순종하게 하는 인류 구원의 협력자로 부각되었다. 중재자로서의 마리아의 이미지는 삼위일체인 성자 탄생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으며 여성을 억압에서 해방시키는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로 등장하였다. 그리고 많은 여성신비가, 교회역사와 여성의 역사도 바꿀 수도 있었을 만한 걸출한 여성운동과 여성들이 배출되었다¹⁰⁾.

10) 참고:『이 시대에 다시 만난 여성신비가들』, 가톨릭여성신학회 역음 동연 2018. 이시대 여성들은 부유하고 강력한 힘을 가진 교회에서 소외되었던 계층 사람들에게 영적인 위로와 힘이 되어 주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베진회(당대 여성들에게 부과된 규칙과 틀에서 벗어나 복음에 영감을 받은 삶을 살았고, 성령과 자매들을 자신의 삶의 인도자로 삶았다). 아씨시 글라라(프란치스코 여성의 근원인 복음적 가난의 정수 실행하였고, 베네딕또 회칙의 준수를 거부하고 스스로 회칙과 회헌을 만들어 교황승인을 받은 그녀는 프란치스코 영성의 동반자), 시에나이 카타리나(여성의 공적활동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저술과 설교를 통해 혼돈한 교황과 세상에 진리와 평화의 선구자), 빙엔의 힐데 가르트(예술가, 시인, 작가, 음악가, 과학자 이었던 자유의 여인), 은수자 노리치의 줄리안(통치자, 지배자, 왕의 이미지에서 하느님의 모성성 발견), 아빌라의 데레사(수덕도 애덕도 부재하던 공허한 갈멜 수녀원을 쇄신 개혁하고, 그리스도교적 관습과 신비의 이론 집대성)... 그 밖의 많은 여성 신비가들은 시대적 한계를 뛰어 넘어서 생생하고 주옥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증거가 되었다.

여기까지 여성 차별과 억압의 역사는 개신교, 가톨릭 여성 모두에게 해당되는 공동의 역사이다.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와 가톨릭 여성사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된다.

6) 가정과 봉쇄의 담장을 넘어서 (16-20세기): 르네상스 이후 시민혁명을 분기점으로

종교개혁(개신교 분리) 이후 가톨릭교회 재정비를 위해 시작된 트렌트 공의회는 또다시 여성의 공간을 가정과 봉쇄구역으로 철저히 제한하고 엄격한 복종을 명했다. 원죄의 보석(1대모데오 2,15)인 마리아의 모성성이 부각되었고, 유혹자로서의 여성의 이미지에 새로운 변화가 있었다. 여성의 모성성은 가정에서 자녀 양육과 교육에 국한된 것이었다. 이 당시 교육을 받은 소수의 특권층 여성들은 -수녀들, 왕족들 - 여성 교육의 권리와 능력에 대하여 항변했다. 그러나 남성들은 여전히 여성의 정신보다는 여성을 성적인 논쟁거리로 다루었다. 18세기 계몽주의 후기/자본주의 등장으로 근대가 시작되자 여성은 지식에 대한 관심을 가졌고 여성의 존엄성 대한 의식이 썩혔다. 그러나 아직 여성의 존재는 남성이 재력을 과시하는 도구, 가정의 정서적 안정감 친밀감 위한 도구적 역할에 머물렀고. 여성은 가족적 이기주의를 추구하는 선에서 그 역할이 제한되었고,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도 벗어나지 못했다. 이 시대 지성을 대표하던 에라스무스, 마르틴 루터 역시 여성의 유일한 의무는 혼인하여 남편들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보았고, 수녀들에게도 호의적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외부로 향하는 출구를 찾기 시작했다. 트렌트 공의회가 제시한 ‘그리스도인의 보편적인 덕 - 도덕적 엄격함과 신앙심이 함께한 헌신적인 삶’이란 대목에서 영감을 받았고, 가난한 이를 돌보고, 교육과, 설교, 치유활동에 투신하였다. 16-17세기 안젤라 메리치를 중심으로 교육과 자선활동이 활발해졌다. 봉쇄 밖에서 자선과 교육 활동하는 단순서원 여성단체들이 생겨났으며, 이들은 19-20세기 사도직 수녀회들의 탄생과 부흥에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했다. 19세기에 접어들면서 봉쇄의 담장을 벗어난 사도직 수녀회의 출현은 당대 혼인 이외에 별다른 가능성이 없었던 여성들에 교육과 사회진출의 가능성, 종교적 덕에 기초한 이상적인 그리스도인 삶을 증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과거 어느 시대보다 많은 수녀회들이 설립되었고, 숫자적으로 남자수도회를 앞질렀다. 그녀들은 교회의 세상의 현대화에 따른 긴급한 필요 - 교육, 병원, 사회사업, 성당 - 에 응답하였고, 신대륙의 선교에 투신하였다. 마침내 역사의 그늘에 존재하던 수녀들의 존재가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고, 교회 안팎에서 관심과 존경을 받으며 가톨릭의 공식적인 얼굴로 부상했다.

7) 교회와 세상을 향하여: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60년대 개최된 공의회는 그동안 이단시 하던 세상의 여성운동과 여성들의 삶의 변화(사회진출, 참정권과 남녀의 동등한 권리)를 수용하기 시작했다. 가정과 교회에 국한된 여성들의 활동을 세상을 향해 개방하였고, 혼인과 동정생활의 동등함을 인정했으며, 여성들에게 신학과 전문교육을 권고하였다. 사적인 모델로서의 마리아를 모성성이 교회의 어머니(공적인 모성성)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남성의 특징과 차별화된 여성 고유의 특징(섬세함, 부드러움, 친화성, 관계성, 수용성)과 모성성의 가치를 강조했으며 가정에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여성에게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개방한 공의회 정신은 아직 좌충우돌하면서 전개 중¹¹⁾

11) 가톨릭 여성운동은 60-80년대 교회 안에 남녀평등과 동등한 권리에 대한 혁명, 90년대 이후 콘택

이다.

오늘날 교도권은 1975년 여성의 직무사제직 불허 선언(신앙교리성)을 오늘날 까지 지속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여성의 보편 사제직의 함양에 주력하고 있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문화의 희생양인 여성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고¹²⁾, 상호교류의 감수성을 가진 여성들이 가정, 교회와 가정에서의 역할을 충실히하기를 당부한다. 2016년 마리아 막달레나의 기념일이 교회 공식축일로 승격되었고, 성적 유혹자로서 참회가 필요한 여성의 모델이었던 그녀가 ‘사도중의 사도’라는 엄청난 이미지 변화를 이루어 냈다. 2017년 여성부제의 가능성을 위해 위원회가 구성되어 연구 중이다.

이 와중에 성직자의 성 폭력이 세상에 알려졌다. 한 개인의 일탈인가?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인가? 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 가톨릭은 성직자의 성 범죄를 개인의 일탈로 보고, 피해자인 여성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3. 한국 가톨릭 234년 여성의 역사 : 이상과 현실의 괴리 사이에서

1784년 조선시대에 시작된 가톨릭은 한국 여성문화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서양 선교사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서구 가부장적 성직제도가 자연스럽게 도입되었고, 성직문화는 양반문화에, 여성상은 남존여비의 유교문화에 접목되면서 한국 특유의 성직문화와 여성상 그리고 성직자와 여성의 관계가 형성되었다. 그러면 234년 한국 역사를 통해 형성된 ‘성’ 담론과 그 지향해야 할 바를 주제별 나누어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자¹³⁾.

1) 혼인과 동정생활. 차이를 넘어 협력과 연대를 향하여

초창기 과부와 동정녀들은 남성과 동등한 수준의 공적인 교회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그 뒤를 이은 기혼여성의 활동은 남성 보조자로 전락되었고, 교회를 위해 희생 헌신하는 어머니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60년대 사도직 수녀들의 활동이 활발해지자 여성 평신도의 역할은

스 여성신학은 남녀불평등을 인류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고찰하고 여성성을 재발견하고 교회를 개혁 하려 했다. 전 근대적 모성성에 반대했고, 여성다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벗기려 노력했다. 이를 통해 여성의 몸은 선한 것으로 여성으로 구체화된 인간적 존엄성은 본질적으로 존중받아야하며, 임신과 출산의 신비, 여성의 성적만남의 기쁨이 고려되지 않고 늘 죄와 관련되었던 고리를 풀어내는 데 기여 하였다. 그리고 여성신도들과 수녀들의 연대와 협력 필요성을 깨달았다. 21세기는 교회와 세상의 재구조화를 위한 글로벌 여성신학이 발전하고 있다. 백인여성 중심의 1-2물결 여성운동에 제 3 세계 여성들이 합류하면서, 여성의 현실은 인종, 국적, 계급, 학력 종교 등에 따라 다양한 상황이 전개되고 교차는 것을 발견했고, 젠더의 억압은 단순히 남녀 문제가 아니라 무수히 다양한 차이점과 결성되어 구성되는 복잡한 과정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 시대에는 다양한 여성운동의 이 혼재하고 있다. 이를 세 부류로 나누어 살펴보면 - 첫째. 정치·사회적 분야에서 여성의 법적 권리 찾기; 둘째. 문화적 측면에서 보다 낳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여성의 공헌할 수 있는 분야(평화조성, 관계성향상, 양육과 복음적 특성의 연결)에 기여; 셋째. 여성차별의 근본적인 문제의 근원인 사회체제의 가부장적 정치원리(남성-권력, 여성-아름다움)를 비판하고 탈 가부장적, 비 위계적 행동방식 선택.

12) 참고: 교황청문화평의회, 『여성문화 평등과 차이』,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명운동본부 2015, 10-17쪽

13) 참고: 이현숙, ‘한국 평신도사도직 활동의 역사적 회고와 전망’, 『평신도희면의 의미와 복음화의 미래』 (제 48차 그리스도사상연구소 학술회의 자료집 2018, 06 09), 48-74; 『여성 천주교와 만나다』, 한국가톨릭여성연구원 2008.

수녀들의 보조적 역할로 하락하였다. 이 시기 서구에서는 제 2차 바티칸 공의회(1960년대)을 통해서 혼인과 동정생활의 동등함이 인정되었지만, 한국에서는 40년이 지난 오늘날 차차 여성신도와 수녀들이 협력해야 한다는 인식이 짹트고 있다. 90년대 말 여성신도들은 단순하고 기능적인 전례봉사, 꽃꽂이...등에서 시작하여, 차차 학문적이고 지적인 영역으로 그 활동을 넓혀가고 있다. 그러나 ‘제 2의 성직자로’ 한국 가톨릭 교회열굴로 부상되었던 수녀들의 기존의 역할이 점차 축소되고 있으며,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2) 남녀의 존재와 활동 그리고 교육. 차별을 넘어 동등한 기회를 추구하며

한국에 가톨릭이 도입되었을 당시 초대교회 신자들은 만민평등, 인간존엄성을 자신의 삶에 실현하였고, 여성에게도 새로운 가치관을 제공하였다. 남녀종속관계에서 수평협조관계로, 부자 중심 가정의 중심축을 부부중심으로 전환시켰다. 또한 엄격한 일부일처제, 혼인 시 여성의 동의, 과부의 개가를 허용하였고. 남녀가 비교적 동등한 활동(교리교육, 사제보좌, 천주교서적보급...등)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교회가 조선사회에 점차 정착하면서 서구의 가부장적 성직중심제도가 도입되었고, 여기에 유교의 신분제도가 유착되면서, 남녀의 역할이 나뉘었다. 남성은 교회 내에서 공식적인 역할을, 여성은 남성을 보조하며 경제적 지원과 눈에 띄지 않는 소소한 일을 해내었다. 이 역할은 비조직적, 개인적이고 일시적인 자선행위, 선교활동이었고, 사회활동보다는 교회와 가정에서 요구하는 전통적인 여성상이 강조되었다. 즉 성모마리아의 믿음을 본받은 순종적인 자세, 희생과 헌신적 신앙이다. 이는 당대 개신교 신세대 여성들이 자유롭고 밝은 사회적 성향을 지향한 바와 아주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1900년대 전후 남녀평등의 교육운동은 개화기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남녀 교육이 차별화되었다. 여성교육은 가정에서의 여성 역할에 필요한 초등교육(국문과 산술, 역사와 지리 및 청소와 바느질, 육아, 세탁 등) 수준에 머물렀다. 이러한 여성교육은 주체적인 여성의 자각을 일으키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1960년대 교회는 사회의식을 가진 여성 단체(가톨릭노동청년회)보다 사제에게 순명하며 물질적 경제적, 노동봉사로 교구와 본당에 헌신하고 희생하는 여성 단체(레지오마리에)를 선호하였다. 이러한 교회 활동으로는 여성에 대한 편견을 바꾸지 못했다. 1990년대 이르러 여성의식이 짹트고,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실천적, 혹은 지적-학문적인 운동¹⁴⁾이 시작되었지만 IMF를 거치며, 남녀평등 주장이 과격하다는 지적을 받고, 수녀회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자 여성운동은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

3) 교회와 가정에서 여성의 현실: 이상과 현실의 괴리 사이에서

현재 여성들의 교회 봉사가 70%를 차지하고 있으나, 사목위원회 여성 참여도는 30%이다. 여성 사목회장도 간간히 선출 되고 있으나, 여전히 성직자의 보조자 역할에 그치고 있다. 여성들은 성직자 중심의 교회 운영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며. 교회 운영에 적극적인 참여와 사제들과의 더 나은 소통을 원하며, 사제들의 변화를 바라고 있다¹⁵⁾. 이러한 배경에서 성직자의

14) “새 세상을 여는 천주교 여성공동체(1996)”, “가톨릭여성연구소”(1996년), “가톨기여성신학회(1997)”, 가정폭력과 성폭력 상담소(1997)

15) 박정우, ‘여성신자들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한 설문조사 보고서(2014년): 『사목연구』(32집) (재인용: 박은미, ‘가톨릭교회와 여성’, 『교회와 여성, 함께하는 여정』 (18회 한국그리스도인 일치포럼 자료집), 8쪽)

성폭력의 고발이 가능했을 것이다. 10년 전 여성 사제직에 대한 의견이 반대 40.2, 찬성 35.5에서 현재는 반대 46.1, 찬성 28.1으로 낮아지고 있다.¹⁶⁾ 그 주된 원인이 여성의식의 보수화도 있지만, 가부장적 성직중심 교회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여성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음¹⁷⁾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수도자들은 교육, 의료, 복지, 본당 활동을 통해 교회의 성장발전과 사회의 현대화에 공헌하였지만, 과거 자신들이 ‘제2의 성직자’의 위치에서 가부장적 성직자 중심 교회 구조와 운영에 일조하였음을 인정하는 편이다. 그리고 사회 정의평화에는 목소리를 내지만, 교회 내부 문제에 대해선 침묵하는 편이다.

가톨릭의 성 윤리는 독신생활을 하는 사제나 수도자에 비교하면, 가정생활을 하는 평신도의 삶은 거룩하지 않다고 여기는 인식이 은연중에 자리한다. 독신생활을 하는 사제와 수도자는 무성(無性)의 존재이거나 높은 수행으로 극기(克己)를 이룬 존재라는 인식으로, 존재 자체가 더 거룩하다고 여겨져 교회 안에서 직분에 따른 위계질서를 강화하면서 평신도들, 특히 여성에게 엄격하게 대한다. 특히 혼전 성관계 금지는 미혼모에 대한 선입관과 차별로 이어질 것이다. 결혼의 목적이 자녀출산과 양육이라는 기본적 틀을 오늘날 까지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기에, 혼전 성 행위, 인공피임과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¹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의 의식을 일반인과 별 차이가 없다¹⁹⁾. 교회 내 의식 있는 여성들은 교회가 여성의 선택권에만 집중할 뿐 임산과 출산에 따른 여성의 몸에 대한 존중이 없으며, 여성에게 고통을 주는 낙태 원인 - 성폭력이 만연한 사회 분위기, 임태된 생명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으려는 남성들의 회피, 생명을 임태한 이를 환대하지 않는 사회제도와 문화 등은 간과하고 낙태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윤리적 폭력’이며, 이는 바로 오늘날 여성주의가 생식과 관련하여 지적하는 여성의 몸을 가부장적 권력(국가, 교회, 과학 등)이 통제, 억압하는 것이다²⁰⁾

아직 성직자의 제왕적 권력이 존재하는 한국 가톨릭 문화 안에서 여성은 그루밍형 성폭력의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 최근 유럽과 아메리카 가톨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성직자의 아동과 청소년 성범죄는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독신을 지키는 사제의 개인적 욕망과 일탈이리가 보다 권력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관점은 간과하고 피해자인 여성을 유혹자로 비난하는 경향이 농후하고 대책마련은 구체적이지 못하다. 여성운동가 김 선실은 성 폭력 신고 창구의 단일화와, 피해자 중심, 인권회복과 치유, 교회쇄신의 세 가지 방향에서의 미투 진행을 주장하고 있다.²¹⁾

‘여자는 복어 패듯이 종종 두들겨 맞아야 한다’는 옛말에서 우리 사회의 가정폭력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한국에서 교회(개신교 천주교 포함)에 열심히 봉사하는 남자, 교회 안에서 직책을

16) 상동 9쪽

17) 참고: 이미영, ‘한국천주교 여성의 현실과 전망’ 한국천주교 여성운동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천주교여성운동심포지움) 2013, 105-106

18) 이미영, ‘가정사목을 중심으로’, 『교회안의 차별과 불평등을 돌아보다』 중에서 (제 49차 그리스도사상연구소 심포지엄 2018.11.08), 78쪽; 참고: 강선남, ‘성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 혼전 성관계를 중심으로’ 『여성·생명·가정』 심포지엄 자료집(2018.10.23. 가톨릭여성연구원 주최)

19) 『생명과 가정: 2014년 생명과 가정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보고서』(2015), 101-105쪽

20) 김세서리아, ‘현대 생식테크놀로지의 시각화와 여성의 몸’ (『여성·가정·생명』 심포지엄자료집, 한국가톨릭여성연구원 2018.10.13.), 25-26쪽.

21) 참고: 김선실, ‘한국가톨릭 교회내 미투운동의 현황과 과제’, 『미투·위드유 너머,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포럼 자료집(주최: 개혁을위한종교네트워크 2018.07/05), 19-21

맡은 남성들이 오히려 신앙을 가지지 않은 남성들 보다 가정폭력이 더 심하다는 조사 보고서²²⁾가 있다. 이는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인격체가 아닌 힘을 가진 사람의 소유물로 대상화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문제와 복음화 되지 못한 신앙의 민 낮을 잘 반영하고 있다. 여기에 ‘흔인불가해소성’ 교리는 여성에게 장기간 폭력에 참고 견디도록 조장한다. 그리고 이 밖에 여성들은 가사노동에 대한 적절하지 못한 대우, 여성에게 편중되는 출산과 육아의 의무, 육아와 경제활동 병행에 따른 중압감, 경력단절, 사회에서의 임금차별과 노동착취.... 등. 가정과 사회에서 행해지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억압 그리고 폭력은 여성성과 모성에 대한 가톨릭의 이상과 현실간의 괴리를 잘 반영하고 있다.

4. 나가는 말: 여성의 현실. 이상과 현실의 괴리 극복을 위한 3 가지 제언

가톨릭 여성운동은 1980년대 말 당시 한국에서 활동하던 미국 메리놀 수녀들을 통해서 한국에 소개되었다. 1990년대 여성 차별과 억압에서 해방되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쳤으나, IMF를 분기점으로 소강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미투와 위드유” 운동을 통하여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고 하겠다.

아직 성직자 중심 제도가 강하게 존재하는 한국 가톨릭 안에 여성의 노력이 쉽지는 않다, 여성이 당장 투신하고 헌신해야 할 일은 산적해 있다. 교회와 여성 단체들의 의식변화, 가난한 이들 중에서도 다양한 계층의 여성들(탈북여성, 다문화여성, 외국인여성근로자, 유학생 등)을 위한 활동, 정의평화, 생태보존을 위한 행동, 남북의 평화, 교회에 관심이 없는 20대, 교회를 떠나는 30대 40대 여성들에 대한 관심, 극단적 남성혐오, 여성혐오 현상에 대한 원인과 대안도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이 수많은 과제에 묻혀 교회 안에서 여성 자신의 정체성과 역할을 찾는 것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 그렇지 않으면 여성운동이 공허해 질 것이다. 진정한 존중을 받은 사람이 진정으로 남을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실현가능한 대안 세 가지를 제안하고 싶다.

첫째. 교회 안의 ‘성직자 성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유리천장지수를 높이기 위해 가톨릭 내 여성 단체들이 실현 가능한 공동의 목표를 정하고, 연대와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한국 여성종교인들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 한국 가톨릭 내 수도자와 여성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연구하고 행동한다면, 교회와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특히 사제들과 협력하고 남성들이 동참할 수 있는 여성운동의 구조를 만들기²³⁾, 소수의 엘리트의식을 가진 여성들이나 행동가들이 모인 배타적인 단체가 아니라, 사목현장의 사제와 남녀 평신도 더 나아가 주교회의와 협력을 통하여 여성의 존엄성과 역할에 대해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여성운동으로 거듭 날 수 있기를 바란다. 여성신학자들은 이론과 실행의

22) 박은미, '가톨릭교회와 여성', 『교회와 여성, 함께하는 여정』 포럼 자료집 중에서 (18회 한국그리스도인 일치포럼, 신앙과 직제 일치신학위원회 주최), 8.

23) 박정우, 한국 천주교 여성운동의 현황과 과제. 115-: ---, 가톨릭 철학 제 7호 (2005) 9-35.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 삶의 현장에 자신을 ‘comming out’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착한여성에서 예언자적 여성으로 거듭나기. 가톨릭의 착한 여성은 교회조직 안에서 모세 혈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신도이다, 다시 말하면 교구 혹은 본당의 사목적 지시에 순명하고 손과 발이 되어 여기에 협조하는 이들이다. 그러나 예언자적 여성이 된다는 의미는 그 동안 관행이라고 생각하고, 당연시 했던 일에 종종 질문을 던지고 그 진정한 의미를 성찰할 수 있는 여성이다. 하느님의 원하시는 바를 식별하기위해 기도하고 동시에 지적인 공부를 통해 자신을 양성하는 여성이다. 이런 여성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교회 구성원들 사이에 상호존중, 역할분담, 상호책임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를 위해 이성적 합리적 대화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낼 능력을 가진 여성들이다. 이로써 진정한 의미의 친교공동체 건설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여성들은 성직자와 영적·심리적·애정으로 얹힌 가부장적 관계에서 벗어나 성숙한 한 인간으로서 여성 신앙인으로 설 수 있게 될 것이다.

에디트 슈타인은 유대교에서 무신론자로 그리고 가톨릭으로 개종하였고, 갈멜회 수녀가 되었으며, 아우슈비츠 가스실에서 그 생을 마감하였다. 용기와 신념으로 삶의 도전을 대면한 그녀는 여성의 좀 더 가치로워져야 함을 믿었고, 여성존재의 복합성, 남녀 평등과 차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²⁴⁾.

“나는 인간의 성(gender)이 두 부분의 종으로 발전한다고 확신한다.
이는 남자와 여자이다. 한쪽과 다른 쪽은 그 어느 부분도 부족함이 없어야 하는 인간의
본질이고, 이는 남성과 여성(gender)이라는 두 가지 양상으로 들어난다.
그리고 인간 존재의 전체 구조는 이 독특한 표지를 명확히 나타낸다”

24) 재인용: 카타리나 도글리오, ‘여성의 시각, 우리가 잊지 못할 어느 날의 조각들’, 『여성문화 평등과 차이』 중에서 156-157.

※ 참고자료

- 메리 말로운, 『여성과 그리스도교1』, 유정원-박경선 옮김, 바오로딸 출판사 2008; --- 『여성과 그리스도교 2』, 유정원 옮김, 바오로딸 출판사 2009; ---, 『여성과 그리스도교 3』, 안은경 옮김, 바오로딸 출판사 2013
- 『여성문화 평등과 차이』 중에서, 교황청 문화평의회 역음,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15, 119.
- 『생명과 가정: 2014년 생명과 가정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보고서』(2015),
- 김선실, ‘한국가톨릭 교회 내 미투 운동의 현황과 과제’, 『미투·위드유 너머,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포럼 자료집(주최: 개혁을 위한 종교 네크워크 2018.07/05),
- 강선남, ‘성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 혼전 성관계를 중심으로’. 『여성·생명·가정』 심포지엄 자료집(2018.10.23. 가톨릭여성연구원 주최).
- 김세서리아, ‘현대 생식테크놀로지의 시각화와 여성의 몸’ (『여성·가정·생명』 심포지엄자료집, 한국가톨릭여성연구원 2018.10.13.),
- 이현숙, ‘축성·봉헌생활을 하는 여성의 존재와 소명’, 『여성 존재에 부여된 성소』 (한국가톨릭여성연구원 2017 심포지엄자료집); ---, ‘한국 평신도사도직 활동의 역사적 회고와 전망’, 『평신도 희년의 의미와 복음화의 미래』 (제 48차 그리스도사상연구소 학술회의 자료집 2018, 06 09); ---, ‘현대수도생화의 도전과 희망: 활동수녀회를 중심으로’,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의 봉헌생활 현실과 쇄신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주교회의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 협력,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17.
- 이미영, ‘한국천주교 여성의 현실과 전망’, 『한국천주교 여성운동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천주교 여성운동 심포지움) 2013; ---, ‘가정사목을 중심으로’, 『교회안의 차별과 불평등을 돌아보다』 (제 49차 그리스도사상연구소 심포지엄 2018); ---, ‘미투. 교회 쇄신을 촉구하는 외침’, 『가톨릭평론』 15호(2018/05) 우리신학회, 4-8
- 이민지, ‘돌을 든 자는 누구인가? 중세유럽 가톨릭과 현대 한국의 미투운동’, 『가톨릭평론』 15호(2018/05) 우리신학회, 23-33
- 오헤령, ‘권력형 성범죄의 실태와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제도적 지원’, 『가톨릭평론』 15호(2018/05) 33-46.
- 박정우, ‘여성신자들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한 설문조사 보고서(2014년); 『사목연구』(32집)
- 박은미, ‘가톨릭교회와 여성’, 『교회와 여성, 함께하는 여성』 (제18회 한국그리스도인 일치포럼 자료집 2018); ---, ‘가톨릭교회 미투 운동에 대한 성찰’, 『여성·가정·생명』 심포지엄자료집, 한국가톨릭여성연구원 2018), ---, ‘미투운동에 대한 교회의 응답’, 『가톨릭평론』 15호(2018/05) 우리신학회, 47-58.
- 2018년 세계주교시노드 최종문서(2018/11/18 이태리어):
<http://www.synod2018.va/content/synod2018/it/fede-discernimento-vocazione/documento-finale-e-votazioni-del-documento-finale-del-sinodo-dei.pdf>
- 가톨릭프레스 “세계주교시노드 무슨 논의 했나” 를 중심으로
<http://www.catholicpress.kr/news/view.php?idx=5403&mcode=m1wnm0>

원불교의 여성의식과 성/폭력 인식에 관한 연구

민성효 교무(원불교유성교당)

I. 들어가는 말

올 해처럼 성폭력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적이 없었던 것 같다.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서 수많은 배우가 '#Me Too'운동²⁵⁾을 지지하는 검은 의상을 착용하여 미투 운동이 주목받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서지현 검사가 JTBC 뉴스룸에서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고 검찰내 성추행 피해를 폭로했다. 그 후 정치계, 문화계 유명인들이 줄줄이 '#Me Too'의 가해자로 법정에 서게 되었다. 종교계에서도 성직자가 가해자로 드러나면서 사회적인 충격은 더욱 커졌고, 각 종교에서는 종교내 성폭력문제에 대한 연구와 대책 마련이 강조되고 있다. 자비·사랑·은혜라는 종교의 가르침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성폭력 사건이 종교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 '종교·성·폭력'이라는 주제로 토론의 장을 열어 함께 고민하고 연대하게 되니 다행하다.

이러한 사회의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 대안을 마련해나가기 위해 원불교 교리와 제도에 나타난 여성의식을 살펴보고, 성/폭력에 대한 원불교인의 인식에 대한 설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성/폭력 문제에 대한 원불교의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부족하나마 대안을 제시해 보려 한다.

II. 탈가부장제적 종교사상

1. 성차별 없는 진리와 유기적 세계관

원불교는 1916년에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少太山 朴重彬 大宗師, 1891년 ~ 1943년)²⁶⁾의 대각(大覺)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시대적 문제의식을 철저히 인식하고 있었던 그는 가부장제 사회문화의 모순을 '병든 사회'라고 보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다 근원적이고 새로운 종교적 가르침을 제시했다. 소태산은 『佛法研究會規約』²⁷⁾²⁸⁾ 본회의 취지(趣

25)안데레사 기자, <뉴스프리존>, 2018년 4월 4일, '미투(#MeToo) 운동, 새로운 물결 인가… 미투 운동의 부작용인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해시태그 #MeToo를 사용하는 것으로부터 '미투'라는 이름이 붙은 이 운동은 여성들이 당한 각종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고 폭로하면서, 그 피해를 알리고 아픔을 위로하고자 시작된 운동이다. 2006년 미국의 흑인 여성 사회 운동가 타라나 버크가 성폭력 피해를 입은 유색 인종 여성과 아이들의 피해를 알리고 그들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캠페인이 미투 운동의 시작이었다. 현재 미투 운동은 단순한 몇몇 사례를 넘어 하나의 사회 운동으로 번져 나가고 있으며, 성폭력 피해자들과 함께하겠다는 #WithYou 캠페인까지 나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운동이 되어가고 있다.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252>

26)이 후로는 '소태산'으로 약칭한다.

27)원불교 초기교서의 하나. 1927년(원기12) 3월에 초판을 발행했고, 1934년(원기19) 5월에 재판했다. 초판본에는 1924년(원기9) 4월 29일(음) 전북 익산 보광사에서 개최된 불법연구회 창립총회 때 채택했던 총 6장 22조로 구성된 규약 이외에도 본회의 유래와 취지 설명, 규약 및 연구인 공부순서, 본회의 세칙을 국한문혼용체로 기술하고 있다.

<https://terms.naver.com/list.nhn?categoryId=50778> 참조

28)여기서 불법연구회라는 이름은 원불교 이전의 명칭이다. 원불교의 명칭은 소태산 시대에는 불법연구

旨) 설명에서 병든 사회의 모습을 “혼몽 중에 있던 우리. 취중에 있던 우리(중략) 나의一身 하나도 제도 못한 우리로 여러 사람의 호주 되어 여러 사람의 전정을 망해 준 우리”라는 표현으로 그의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朝鮮佛教革新論』²⁹⁾에서는 과거의 二元論을 극복하고 새로운 인간 사회의 문화를 열기 위해 성과 속, 영과 육, 남과 여의 이분법을 극복하는 새로운 종교사상으로 모든 존재가 서로 어울려 조화롭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고자 했다.³⁰⁾

소태산은 차별 없는 궁극적 진리와 상호의존의 유기적 세계관을 제시했다. 궁극적 진리인 일원상(一圓相, 원(○)으로 표현)의 진리를 언어와 명상을 초월하는 자리인 동시에 일원은 “우주만유의 본원”이며 “일체중생의 본성”이라고 하였다.³¹⁾ 여성과 남성 모두가 궁극적 진리인 일원에 근원한 존엄한 존재로, 이 일원은 여성성 남성성의 어느 한쪽에도 기울어지지 않은 원래 차별이 없는 자리이다.

일원상의 진리에서는 다음과 같이 평등성을 표현하고 있다.

“일원(一圓)은 우주만유의 본원이며, 제불제성의 심인이며, 일체중생의 본성이며, 대소유무(大小有無)에 분별이 없는 자리며, 생멸거래에 변함이 없는 자리며, 언어명상(言語名相)이 돈공(頓空)한 자리로서...”³²⁾

세상의 모든 나타난 바 형상있는 것은 하나의 근원에서 나왔고, 세상의 모든 이치는 하나의 진리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므로 소태산은 세상에는 사람의 고하가 있고 직업의 귀천이 있으나³³⁾ 불성에는 차별이 없나니³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성불함을 얻으리라³⁵⁾고 하였다. 남자의 몸을 얻어야 성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본래 남녀의 성품에는 차별이 없고, 따라서 여자의 몸으로도 성불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고, 근원적 평등에 바탕하여 현실적 평등을 이루어야 한다고 보았다.

“과거에는 도가나 정부나 민간에서 각각 차별 세우는 법을 주로 하여 여러 사람을 다스려 왔지만 돌아오는 세상에는 어떠한 처지에서나 그 쓰는 법이 편벽되면 일반 대중을 고루 화하게 하지 못할 것이니, 그러므로 우리 회상에서는 재가 출가와 남녀노소를 물론하고 대각한 도인이 나면 다 여래위로 받들 것이요.”³⁶⁾

과거에는 차별을 하여 사람을 다스려 왔으나 앞으로의 세상에는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평등해야 일반대중이 그 법을 수용하고, 편벽되고 차별적인 제도나 관습은 대중이 수용하지

회였고, 원불교라는 교명은 1947년에 제2대 종법사인 정산종사가 개명 선포하고 1948년에 문광부에 등록했다.

29) 『朝鮮佛教革新論』, 불법연구회 간행, 1935년; 원불교교고총간 4집, 1994; 96쪽.

30) 하정남, 종교문화연구 제1호(창간호), <페미니스트 소태산과 남녀공동대표제>, 1999.

31) 원불교정화사(圓佛教正化社), 『원불교 전서』, 「정전」, 일원상의 진리, 이리:원불교 출판사, 1986년

32) 원불교 정화사(1986). 『원불교 교전』, 제4판, (이리:원불교 출판사), p.23

33) 여기서 세상이란 말은 원불교 바깥을 말하며, 사람의 고하가 있고 직업의 귀천이 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본다는 뜻이다. 그 차별의 세상을 볼 때에 본래 차별이 없는 불성을 보아 차별심을 갖지 말라는 뜻이다.

34) 원불교 정화사(1986), pp.328-329

35) 원불교 정화사(1986), p.114

36) 원불교 정화사(1986), p.407

않으므로 자연히 벼릴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근원적으로 모두가 평등하므로 그 근원으로부터 나타난 모든 현상도 평등하다. 여성도 부처를 이룰 수 있고, 재가교도도 출가교도와 마찬가지로 대우하며,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살아야 세상을 화기롭게 만든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혹 차별의 마음이 일어나서 아랫사람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생겨나거든 바로 자성에 반조하여 원래에 차별 없는 그 평등한 자리를 생각하고³⁷⁾ 남을 대할 때는 모든 계급을 막론하고 평등하게 보호하여 각자의 자유와 생활의 안정을 얻게 하라³⁸⁾고 강조했다.

원불교의 교리는 모두 평등무차별한 이 일원상 진리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으며, 근원적인 평등에 바탕하여 현실적인 평등을 이루려 한다. 일원상 진리가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을 사은으로 보며, 사은은 만물이 서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상생상의의 관계를 말한다. 인간을 포함하여 만물은 일원으로부터 나온 거룩한 존재인 동시에 모든 존재를 서로서로 은혜로 맺어진 관계로 보는 은사상은 곧 상생과 보살핌을 기초로 한다.

만물은 서로 은적인 유기체로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가 그 은혜를 알아서 실천하기 위한 방법이 불공이다. 이 불공법은 모두가 서로를 부처님으로 섬기는 것으로 아내는 남편에게 부처이고 남편은 아내에게 부처이므로 각자가 서로를 부처로 알고 불공을 드리는 심경으로 살 때 은혜가 저절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존재와 존재의 관계는 역동적이면서 서로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상호의존의 유기체로서 모든 존재가 배려와 보살핌으로 살아가는 상생(相生)의 관계임을 드러내었다.

이러한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평등과 상생의 새로운 사회질서를 요구되었고, 가정과 사회의 문제를 둘로 보지 않았던 소태산은 사회변혁의 원리로 사요(四要)를 내놓았다. 그는 평등과 상생의 사회질서는 부부관계로 부터 출발한다고 파악하고 부부권리동일³⁹⁾을 제시하고, 부부관계의 회복을 통해 개인적 차원의 남녀평등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적 제도적 차원의 남녀평등도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2. 남녀권리동일에 나타난 성평등 의식

부부권리동일은 소태산의 사회변혁사상인 사요 가운데 첫 조항이다. 원기 14년 1929년 10월 16일자 ‘교법제정안(教法制定案) 4은4요’에서 夫婦權利同一 이 처음으로 문자화 되어 나타났다.⁴⁰⁾ 원기 17년 1932년에 최초의 교리서가 된 『寶經 六大要領』에서 男女權利同一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원기 28년 1943년 소태산이 직접 저술한 『佛教正典』에는 自力養成으로 표기하고 있다.

夫婦權利同一의 구체적인 내용이 가장 먼저 게재된 것은 시창⁴¹⁾ 14년도 사업보고서이다.

“過去의 世界史는 男性一方의 世界史요, 과거의 社會制度는 男性 自己네들만 좋게 하자는 社會制度다함은 現代 覚醒한 新女性들의 열렬한 부르지즘이다. 과연 그 옳은 말이다. 過渡期의 女性들 같이 無權利하고 不自由한 身勢가 또 어대 있으랴. 사람인 이상에난 반드시 수

37)원불교 정화사(1986), p.916

38)원불교 정화사(1986), pp.788-789

39)부부권리동일 -> 남녀권리동일 -> 자력양성으로 변천하였다.

40)1929년(원기14) 『월말통신』 제20호, 교법제정안 <사은四恩 사요四要>

41)시창(始創)이란 원불교 초창기인 불법연구회시대에 사용한 기년(紀年). 소태산대종사는 1918년(원기3)

10월의 창립한도(創立限度) 발표를 통해 대각의 해(1916)를 시창기원(始創紀元)으로 정했다. 해방 후에 원불교라는 정식교명을 선포하면서 ‘원기(圓紀)’로 바꾸어 사용하게 되었다.

용하여야 할 財產權도 女子에 한하여는 없었고 動物인 以上에는 반드시 움증여야 할 社交權도 女子의 계단 허락되지 안했었다. 지극히 존중한 부모의 계도 子女의 道를 다하지 못하였고 더할 수 없이 친절한 子女의 계도 차별적 대우를 받았나니 과도기의 여성들 같이 無權利하고 不自由한 신세가 또 어대 있으랴.

그에 따라 그들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저야할 의무도 지를 못하였나니 대개 의무라 하난 것은 權利로 조차 나난 것이요, 또 권리라 하난 것은 의무로 조차 나는 것인즉 의무 없난 권리가 있을 수 없고 또는 권리 없난 의무가 있을 수 없난 것이다. 그런즉 과거 무권리한 여성들이 무책임하야 질 것은 정한 이치요. 전인류의 반수를 점한 모든 여성들이 그와 같이 무책임하게 되야 모든 것을 오로지 남자에게 의뢰하고 있을 진대 그 가정 국가 사회 각 방면의 손실됨이 어떠하겠느냐. 이는 곧 두 사람의 힘으로 할 일을 한 사람이 하난 것 같고 열사람의 힘으로 들 돌을 다섯 사람이 드난 것과 같은지라 그 얼마나 갑뿐 일이냐.

그럼으로 우리는 夫婦同權을 철저히 이행해야 모든 女權을 認定해야 주는 동시에 또한 諸般義務를 똑같이 분담해야 서로 피차 의뢰가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리하고 보면 남자가 여자로 인해서 자기의 할 일을 못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여자가 남자로 인해서 자기의 할 일을 못하지도 아니할 것이니 이엇지 우리의 공부상으로나 사업상으로나 생활상에 크게 필요 할 방법이 아니리요. 그런고로 우리는 夫婦權利同一을 우리의 法綱으로써 정하여 서서이 그 實現에 노력하려 하노라.”⁴²⁾

이 글에서는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차별받는 여성들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여성들이 차별받고 권리가 없어 무책임한 것은 여성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국가 사회의 손실도 적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므로 부부동권으로 여성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 여자만 아니라 남자에게도 도움이 됨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이 “四要를 다시 총괄적으로 말하자면 夫婦權利同一은 남녀간 각자의 의무와 책임을 같이 저서 서로 서로 依賴生活을 말자는 것이요,”라고 강령적으로 표현했다.⁴³⁾

이러한 내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밝힌 『육대요령』⁴⁴⁾에는 ‘부부권리동일’이 ‘남녀권리동일’로 변화되었다.

<과거 조선 여자의 생활 조목>

1.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에게 자녀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였음이요,
2. 자기가 낳아 준 자녀에게도 차별적 대우를 받게 되었음이요,
3. 사람인 이상에는 반드시 받아야 할 교육을 받지 못하였음이요,
4. 사람인 이상에는 인류 사회를 면치 못하는 것인데, 사교의 권리를 얻지 못하였음이요,
5. 사람인 이상에는 반드시 수용하여야 할 재산의 권리가 없었음이요,
6. 그 외에도 자기의 心身이지마는 일동일정(一動一靜)에 구속과 압박을 면치 못하였음이 니라.⁴⁵⁾

42) 『원불교교고총간』제5권 pp.85-86.

43) 『원불교교고총간』제5권 85-86쪽.

44) 《보경육대요령》(국한문흔용판)을 보통 《육대요령》이라고 한다. 최초로 ‘보배경전’이라는 이름을 부여 할 정도로 창의적이고 체계적인 교서로서 1932년 4월 1일에 한문판이 발행되었고 같은 해 5월 1일에 동일한 내용의 한글판이 발행되었다.

45) 『육대요령』, 夫婦權利同一, 익산 : 불법연구회 발행, 1932년

여기서는 조선시대 이래 삼종지도(三從之道)와 칠거지악(七去之惡) 등 여성차별이 심한 유교사회에서 여자들이 겪었던 어려움으로 부모와의 관계에서 나타난 비인격적 대우와 교육의 권한이 없고, 교제의 권한도 없으며, 재산권도 없어서, 자신의 심신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등 비인간적인 여성들의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근대사상의 성장기에 일부 신여성들만 교육권, 사교권, 재산권 등을 가졌을 뿐 대부분의 그러지 못했던 여성들의 문제점이 종합적으로 나타나 있다.

남녀평등은 부부동권의 가족문화에서 출발하며, 또한 부부동권은 가족단위를 벗어나 종교나 사회의 모든 면에도 두루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부부동권 및 남녀동권이 되면 사회구조가 변화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사회변혁의 기초가 되는 부부동권의 실현은 그것에 따른 새로운 사회구도를 만들어 가기를 바라는 것이다.

당시 신문 사설에서는 ‘여자해방의 문제’⁴⁶⁾ ‘부인참정권’⁴⁷⁾ ‘여자의 직업교육에 대하여’⁴⁸⁾ ‘여자교육의 보급과 향상’⁴⁹⁾ ‘여권을 신장하라’⁵⁰⁾ 등의 내용을 많이 볼 수 있어서 여성들을 위한 계몽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던 시기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시창 14년 사업보고서에서도 ‘그것은 결코 우리가 처음으로 제창한난 말은 아니다.’라고 기술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일반 사회의 여성 계몽운동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남자로서 남녀 권리 동일 권리의 조목>

1. 결혼 후 부부간 물질적 생활을 각자이 할 것이요,
2. 여자로서 아래에 기록한 남녀 권리 동일 준비의 조목이 충실히하여 남자에 승(勝)할 시는 그 지도를 받을 것이요,
3. 기타 모든 일을 경위(經緯)에 따라 처리하되 과거와 같이 여자라고 구별할 것이 아니라 남자와 같이 취급하여 줄 것이라.

<여자로서 남녀 권리 동일 준비의 조목>

1. 인류 사회에 활동할 만한 교육을 남자와 같이 받을 것이요,
2. 직업에 근실히하여 생활의 자유를 얻을 것이요,
3. 生부모의 생전사후를 과거 장자의 예로써 같이 할 것이요,
4. 남자의 독특한 사랑과 의뢰를 구하지 말 것이요,
5. 위에 기록한 준비 조목 4조가 충분치 못하여 남자에 미급(未及)한 시는 그 지도를 받을 것이라.”⁵¹⁾

‘결혼 후 부부간 물질적 생활을 각자이 할 것이요,’라는 조항으로 표현된 ‘부부각산(夫婦各產)’에 대한 내용은 월말통신 18호(1929년 8월분) 제1회 교의문답안에서 ‘宗師主께서 過去時代에 男女가 不平等된 4大原因을 指摘하사 夫婦各產 生活의 必要를 力說하시고 後人指導方針을 이대로 定하신 것.’에서 찾을 수 있다.

46) 동아일보 1920년 6월 2일

47) 동아일보 1920년 8월 31일

48) 동아일보 1928년 3월 26일

49) 동아일보 1929년 3월 27일

50) 동아일보 1933년 12월 10일

51) 『육대요령』, 夫婦權利同一, 익산 : 불법연구회 발행, 1932년

‘여자라고 구별할 것이 아니라 남자와 같이 취급하여 줄 것’에서 당시에 일반인들이 당연한 규범으로 따랐던 삼종지도가 아닌 남녀동권을 말하고 있다. 더구나 ‘남녀 권리 동일 준비의 조목이 충실하여 남자에 승(勝)할 시는 그 지도를 받을 것이요,’라고 하여 남자도 여자보다 부족할 때에는 여자의 지도를 받도록 하여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매우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남녀권리동일’에서는 부부가 각자 재산권을 갖도록 하는 것에 더 나아가 ‘自力養成’에서는 부부각산뿐 아니라 자녀에게 재산을 줄 때에도 ‘장자나 차자나 여자를 물론하고 그 재산을 받아 유지 못할 자를 제한 외에는 다 같이 분급하여 주라’고 했다.

1912년 3월 제령 제 7호로 공포된 조선민사령에 의해 조선에서는 일본의 민법이 시행되었는데 ‘부는 처의 재산을 관리함, 일상의 가사에 대하여는 처는 부의 대리인으로 간주함, 협의에 의해 이혼한 경우 자의 감호할 자는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감호는 부에게 있음, 자는 부의 친권에 복함 등’의 차별적인 조항이 많았다.⁵²⁾

<여자로서 남녀 권리 동일 준비의 조목>에서는 여성도 사회활동을 할 만한 교육을 받고, 직업을 가져서 생활의 자유를 얻을 것을 주장하였다. ‘출가외인’을 당연하게 생각하던 시절에 ‘生부모의 생전사후를 과거 장자의 예로써 같이 할 것이요,’는 예법 혁신의 필요함을 통절히 느낀 소태산의 『예전(禮典)』⁵³⁾ 혼례편에 잘 나타나 있다. 『예전(禮典)』 총론의 ‘인심에 따라서 그 예법을 실행하므로써 발전을 줄지언정 해독을 끼치지 않도록 함’에 바탕하여 본회⁵⁴⁾에 혼인소개소를 설치하고, 혼인을 원할 시 호적등본과 이력서, 사진, 상대자에게 요구할 희망서 등을 첨부하여 혼인소개소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 희망서의 예문을 보면 ‘一. 본인은 공사를 위하여 가사를 專히 불고할지라도 귀하가 부모봉양과 자녀교양을 獨擔하는 대에 여한이 없기를 희망함(남녀공용). 一. 본인은 무남독녀이므로 부모의 봉양과 계후를 하기 위하여 서양자되기를 희망함. 一. 불법연구회의 남녀권리동일원칙 이행하기를 희망함.’ 등으로 남녀평등 의식이 잘 드러나 있다. 또 결혼식장에서는 신랑신부가 동시에 입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현대에서도 실천하는 것을 여성의 지위가 열악하던 당시에 시행했다는 것이 놀랍다.

‘남자의 독특한 사랑과 의뢰를 구하지 말 것이요,’는 오랫동안 남성중심적 사랑에 길들여져 온 여성의 낭만적인 사랑의 환상에 빠져 남자에게 특별한 사랑을 구하면 자연히 의뢰생활을 하게 되고, 그 여성의 독립적 인격을 획득하는데 장애가 되므로 소태산은 이를 경계하여, 모든 면에서 남자에게 종속되어 의뢰생활을 하던 당시 여성들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부부권리동일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여성의 무권리와 부자유를 비판한다. 구체적으로는 재산권과 사교권과 친부모부양권이 없는 것을 비판하고, 동시에 권리에 따른 의무도 지지 않음으로써 가정 국가 사회의 각 방면에 손실이 큼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부동권을 철저히 이행하여 여권을 인정함과 동시에 모든 의무를 남녀가 똑같이 지게 하여 서로 원망이 없게 하고자 함임을 밝히고 있다.

52) 조선총독부, 『조선민사령·조선헌사령』, 대화상회 인쇄부, 1912

53) 소태산은 정신개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1926년(원기11) 2월에 혁신예법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실천조항을 구상했다. 그리하여 1930년(원기15) 7월에 본 『예전』을 탈고했으나, 시국의 사정으로 1935년 8월에 비로소 발행되었다. 서문에서 “예법을 실행함으로써 일반사회의 발전을 도와주게 하며 유익을 주게 할지언정 일반사회 발전에 장애가 되고 해독을 주지 않기 위해”라고 예법개혁의 원칙을 밝혔고, “시대와 인심을 따라서 구례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신구를 물론하고 적절한 예법으로 한다”고 방향을 밝혔다.(원불교대사전, 원불교100년기념성업회)

54) 원불교의 초기 명칭인 불법연구회를 말함

"남녀권리동일"에서 소태산은 여성이 완전히 독립된 인격임을 선언하고 완전히 독립된 인격체로서 살아가기 위하여 준비해야 할 교육권과 생활권 경제권에 대해 강조하였다. 소태산은 또한 남성과 여성의 부부로써 살아갈 때 가정 내에서 부부의 동등권과 그 동등권을 지키기 위하여 서로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에 대하여도 밝히고 있다. "남녀권리동일"에 나타난 남녀관계는 가정에서의 부부관계를 의미할 뿐 아니라 모든 사회적인 분야에서의 남녀관계를 의미한 것으로 진정한 의미의 여성해방사상이다.⁵⁵⁾

남녀권리동일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부부동권의 민주적 가족문화를 만드는 노력을 하면서 동시에 여성이 전담하던 가사나 양육의 책임을 국가나 사회가 나누어 지게 하는 사회적 보완책이 필요하므로 「사요」는 모든 차별제도를 없애고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권리를 누리도록 하면서 동시에 폐쇄적 가족이기주의나 혈연중심주의를 넘어 열린 가족 즉 사회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사요」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며, 가족의 문제와 사회문제가 함께 해결되게 하는 것이다.

어려운 현실을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는 자력을 길러야 함을 강조하고, 이때야말로 자력을 갖추기 위한 중요한 때임을 역설하여 세상의 모든 약자들이 강자가 되도록 노력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주로 여성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설법한⁵⁶⁾ '약자로 강자되난 법문'에 잘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당시에 약자인 조선이나 약자인 여성들이 약자인 현실을 한탄만 하고 강자에 의뢰하여 살 것이 아니라, 강자가 어찌하여 강자가 되었는지를 알아서 스스로 강자가 될 준비를 하라는 것이다. 강자 또한 약자가 강자되도록 도와주어야 계속 강자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3. 여성에게 열린 제도와 여성교무제도

1) 여성에게 열린 평등한 교단 제도

여성에게 교무라는 종교지도자의 위상을 갖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던 소태산은 남녀동권의 실현을 위하여 남녀공동대표제를 구상하여 남성회상과 동등한 소위 여성회상(여성교단)의 준비로써 인재양성과 재산관리를 남녀별도로 하게 하였다. 1931년(원기 15년) 매년 총회에서 보고되는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여성회상의 준비로써 여성인재양성 및 여성인력양성을 위하여 "여자인재양성창립단"을 결성하여 "여자인재양성소"라는 정식기관을 두었고, 각 산업기관도 그에 합당하게 분리하여 경제적 토대를 갖추어 인재양성과 재산관리를 남녀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였다.⁵⁷⁾

"本會統治更組團時 男女 各團이 分界됨을 따라 本人材養成團과 農業部 創立團 兩團도 男女를 갈으기로(나누기로) 한바 後日 彼此 異議가 없기 위하여 男女代表로써 추첨을 시킨 결과 本人材養成所는 여자들의 事業機關으로 되었음으로 명칭을 女子人材養成創立團이라 칭하난 동시에 本團을 위하여 납부한 남자들의 前團金은 의연의 형식으로 받기로 하다."⁵⁸⁾

55) 하정남, 서강 종교 연구소 월례발표회, 종교전통과 여성 :「탈가부장제 종교문화의 전망」, 1999

56) 월말통신 1호, <화제(話題) 약자로 강자되난 법문>, 수필(受筆) 이공주
무진(戊辰) 윤(尹) 2월 26일 오전 10시경 계동(桂洞) 이공주가(李共珠家)에서 자연화(自然華)·성각(性覺)·공주

(共珠) 철옥(哲玉) 현공(玄空) 성원(成員) 동진화(東震華) 등에게 하신 법문.

57) 『원불교교고총간』 제 6권인 기본사료편(원불교출판사, 1994) pp.110-112 참조.

58) 『원불교교고총간』 제 6권, p.111

소태산의 남녀구별에 관한 내용은 규약의 제2장 “남녀구별의 조직”과 제3장 “수위단의 조직 및 선거방식”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남자조직과 동등한 자격의 여자조직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한 규정을 『佛法研究會統治組團規約』⁵⁹⁾에 명시하고 있다.⁶⁰⁾

이 책의 제 2장 남녀구별의 조직, 제 5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단 조직법을 밝히고 있다.

“男女區別의 組織”

“會員으로 團을 組織할 때에 난 男女를 區別해야 男子난 男子대로 女子난 女子대로 團을 組織하고 工夫와 事業의 機關도 각각 設置하기로 함. 但 男女區別組織을 原則으로 하되 人員이 不足한 境遇난 合同組織을 得함.”⁶¹⁾

누구의 부인이나 누구의 남편으로서가 아니라, 여성이나 남성이 모두 자기의 이름으로 활동하도록 자력생활을 훈련시키는 방법으로서 남녀가 각각 단을 조직하도록 하였고, 단금(團金: 단회비)도 따로 모아서 결산을 했다.

제3장 수위단의 조직 및 선거방식을 보면 다음과 같다.

“首位團의 組織 및 選舉方式”

“제7조 본단의 목적을 摠監하기로 正首位團이라 명칭하고 남자로 一團, 여자로 一團을 조직하여 모든 단의 原始가 되기로 함”

“제8조 정수위단의 자격은 교리에 대한 理解나 事業에 대한 功勳이나 是非에 대한 言論이나 信望實行이나 그외 어떠한 常識으로든지 團員內 제일 優越한자로써 조직함.”

제11조 - 甲種豫備 首位團員은 專務出身 實行團員內未婚者로 乙種豫備首位團員은 實行團及 居塵出塵⁶²⁾內 既婚者라도 自由生活을 得한 者로, 丙種豫備首位團員은 居塵出塵員內 第一 適當한 者로써 組織함. 제15조 - 男女 正首位團員의 團長은 現 宗師主께서 兼帶하시되 創立限度 三回三十六年을 經한 後에는 男女團長을 각각 選擇하야 管理하기로 함.”

“제15조 男女正首位團의 團長은 現 宗師主⁶³⁾께서 兼帶하시되 創立限度 36년을 經한 後에는 男女團長을 각각 選擇하야 管理하기로 함.”⁶⁴⁾

11조에서 수위단원을 정하는 순서를 보면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우선순위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미혼자는 정남정녀를 말하며, 그들을 우선순위로 정하고 있는 것은 결혼을 할 경우 자유로운 생활에 어려움이 있음을 전제한 구분이다. 결혼에 대한 자유를 주었으나 미혼자를 더 우대하는 제도는 결혼한 사람이 아무리 가사불고(家事不顧)

59) 『佛法研究會統治組團規約』, 익산: 불법연구회 발행, 1931년.

60) 참고로 여기서 불법연구회라는 이름은 원불교 이전의 명칭이다. 소태산 시대에는 불법연구회가 원불교의 명칭이었고, 원불교라는 교명은 제2대 종법사인 정산종사가 개명 선포한 것이다.

61) 『佛法研究會統治組團規約』, 익산: 불법연구회 발행, 1931년.

62) 교도는 출가교도인 전무출신과 재가교도로 구분하는데, 거진출진(居塵出塵)이란 재가교도(在家敎徒)를 말한다.

초기교단에서는 재가 출가의 구별이 적었음을 보여주는 귀절이다.

63) “종사주”라는 명칭은 소태산의 제자들이 부르던 존칭이다. 초기에 소태산대종사에 대한 호칭이 제자들마다 다르게 사용하여 이를 통일하여 “종사주”라고 부르다가 후에 “대종사”로 통일하여 부르기로 하였다.

64) 『佛法研究會統治組團規約』, 익산: 불법연구회 발행, 1931년.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가정의 일에 신경을 쓰게 되기 때문이다.

제15조에는 수위단은 원불교의 최고 의결기관인 수위단에 여성조직을 따로 두면서 36년이 지나면 그 최고 조직의 수장도 남녀를 각각 두기로 명시하였다. 여기서 수위단의 단장인 최고 조직장은 바로 현재의 원불교의 최고 지도자인 종법사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자면 소태산은 남녀를 분리하여 각각 단을 편성하게 하고 공부와 사업도 따로 하게 하면서 더 나아가 남녀 종법사를 각각 세우는 남녀공동대표제를 구상하였다.⁶⁵⁾ 소태산의 평등사상이 ‘래디칼’하다 함은 자율적 존재로서의 남녀관계와 지도자의 자리에 비례대표제를 제안했기 때문일 것이다.⁶⁶⁾

남성에 비해 여성의 위상이 상당히 낮았던 당시에 약자인 여성들도 힘을 실어주기 위한 방법이 아닐까 싶다. 그러나 종법사는 지금까지 남자로만 이어져 왔으니 수위단 단장의 남녀공동대표제는 실현되지 않았다. 현재 수위단원만 각각 9인인 남녀 동수(同數)로 조직되어 있다.

원불교는 수위단 조직을 비롯하여 남녀교무의 결혼차별문제 외에 제도상의 차별은 없다. 이미 2명의 여성교무가 조계종 총무원장격인 교정원장을 지냈고, 어떤 기관이나 업무도 차별은 없다. 현재 근무 중인 남녀의 비율은 50.52: 49.48로 거의 비슷하지만 교당의 주임교무는 여성이 많고 보좌교무가 남성인 경우가 인적 구성이 성폭력 발생이 매우 적은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인지 남성교무의 경우 오히려 역차별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

‘남녀권리동일’이라는 평등한 교리와 여권회복을 위한 소태산의 적극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은 여성제자들은 문맹퇴치를 위해 야학을 열었고, 여성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던 송원철은 교무 신분으로 부산시의 공무원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는 판자촌과 사창가를 드나들며 궁지에 빠진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계몽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8.15 해방 직후에는 ‘동포를 살이기 위하여 우리는 거리로 간다’는 구호를 내걸고 전재동포구호사업을 하였다.

1950년 6월에는 연극 ‘이차돈의 죽음’을 부산에서 제일 큰 부산극장에서 공연하여 대성공을 거두었다. 1950(원기35)년도 사업보고서에는

“草梁支部를 爲始한 釜山 三支部에서는 教務先生들과 要人諸氏의 情熱的 訓練및 活動으로 六月二十四日부터 三日間 釜山劇場을 빌려 聖劇 ‘異次頓의 죽음’을 公演하였는데 극장은 連日 人山人海를 이루었고 극장이 터질 듯한 박수갈채성은 新羅 故地에 佛教更生의 환호성인듯 하였으며 이에 따라 교도가 日增하고 교도들의 信心에 박차를 가함이 多大하였다 한다.”⁶⁷⁾

고 기록되어 있다.

서울에서 전재동포구호사업을 중 모인 18명의 고아들을 1945년 12월 동대문부인병원(현 이대부속병원)에 임시 수용했고, 이듬해 2월 황정신행(호적명 황온순) 조일관 등이 중심이 되어 서울 한남동에 75명의 전재고아를 수용하여 서울보화원을 설립 운영하였다. 원불교 최

65) 하정남, 「페미니스트 소태산과 남녀공동대표제」, 2001

66) 조한혜정, 하상의의 「페미니스트 소태산과 남녀 공동 대표제」에 대한 토론자료, [여성 종교 세미나: 탈가부장적 원불교의 전망과제] 2001년 6월 2일 영산원불교대학교 여성문화연구소.

67) 원기 35년도 사업보고서, 1946년 9월

초의 아동복지시설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원불교의 이미지가 ‘검정 치마 흰 저고리’로 생각될 정도로 여자교무들의 활동은 두드러졌던 것은 남녀평등을 분명히 밝힌 교리와 여성에게도 평등하게 열려진 조직과 제도의 영향이 컸다.

2) 여성교무 제도

여성교무 제도는 당시의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원불교에 귀의하였던 보통단 단장 이청춘의 의견제출에서 비롯되었다.⁶⁸⁾ 그는 ‘여자전무출신⁶⁹⁾ 수용에 관한 건’이라는 의견안을 제출하였고, 소태산이 이를 수용하여 여자도 남자와 동등하게 전무출신의 자격을 얻어서 여성 사제가 되었다.

“朝鮮의 女性은 在來부터 男性들의 指揮下에 사라왔습은 새삼스리이 論說할 必要가 업스나 특히 本會에 加入한 모든 女性들은 이 拘束을 떠나 自由시러운 몸으로 自由시러운 環境表에서 自由的 生活을 하여 보려고 工夫와 事業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主義가 單純히 男子를 相對로 自由를 取하고 同權을 願하난대만 局限한 것은 안이나 우리 女性으로서 等閑視 難키난 이 自由同權의 문제들입니다.”

그럼으로 알고 보면 남들이 우리의 差別待遇와 拘束을 준 것은 결코 안이라 우리가 知性업고 生活의 自由가 업고 自主의 能力이 不足하야 스사로 손(客)이 되고 第二者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한 程度와 處地를 상고하야 主人資格이 될만한 機關을 創造한 者가 업섰든 緣故입니다. 本人의 愚見에난 女性界에도 實行團員이 업난 바가 안이며 專務出身 할 資格이 업난 바가 안이지마는 다못 엇더한 方法으로 엇더한 機關을 베퍼서 女子로서도 本館에 살을 만한 謀略를 내난 者 업슴으로 敢히 그만한 생각이라도 가지지 못하였다 생각합니다.”⁷⁰⁾

이러한 여성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은 남녀평등의 교리를 가르치고 배우던 교단의 분위기와 혁신적인 사상으로 제자들을 지도한 소태산의 선각자적 인식에 힘입은 바 크다. 이 의견안에는 현실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여성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분명한 방향제시가 있다. 삼종지도를 잘 지키는 것이 좋은 여성으로 평가되던 시절에 여성들 스스로 그들의 현실에 문제제기를 하고 자신의 삶을 개척해 가는 모습은 매우 적극적이고 고무적인 일이다. 여성교무 제도는 원불교의 여성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남녀 성직자가 평등한 역할을 하는 제도로 발전했다는 점에서 여성사에서나 종교사에서도 의의 있는 일이다.

68) 1929(원기14)년

69) 第15條(在家·出家) ①教徒는 在家教徒와 出家教徒로 區分한다.

②在家와 出家는 差別하지 아니하고 工夫와 事業의 實績에 따라 資格과 待遇를 定한다.

第18條(專務出身) ①出家教徒로서 敎規의 定한 바에 따라 本教에 貢獻하는 이를 專務出身이라 한다.

②專務出身으로서 平生을 獨身으로 貢獻하는 이를 貞男·貞女라 한다. (원불교 교헌(5차개정) 20100315)

제6조(품과) ①전무출신 제도에 다음과 같은 품과를 두어 적성과 희망에 따라 교단에 공헌하게 한다.(개정 82. 7. 31)

1. 교무 : 교무의 자격을 취득하여 교회에 전무하는 자, 다만 중앙총부·교구사무국·교역자 양성기관의 교원 및 중요기관 약간의 행정직에 근무할 수 있다.(전무출신규정(97.7.10))

70) 앞 글, pp.49-50

1929(원기14)년 2월 25일 ‘교무71’라는 호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자는 의견이 제출되었고 대중의 찬성과 소태산의 허가를 얻어 시행케 되니 이것이 교무라는 호칭의 시원이 되었다. 이 때 ‘교무’라는 호칭을 사용하게 된 이유는 가르치는 사람보다 나이 많은 노인 학생들이 많으므로 선생님이라고 하면 미안한 감이 있어서 법호나 법명을 부르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무’라고 부르자는 제안에서 비롯되었고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여자교무제도의 수용은 남존여비의 관습에 젖어 살던 사람들에게 여자교무를 스승으로 모시도록 한 것은 매우 혁신적인 일이었다. 소태산은 평등과 상생의 세계를 열기 위하여 새로운 종교사상을 구상하고 그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과 제도를 마련하였다. 소태산대종사 당시에 여자는 오직 결혼이 보편적인 길이었다. 그러나 소태산은 여자에게 남자와 동등한 자격과 위상으로 여성사제 제도를 두었고, 결혼도 각자의 선택에 맡겼다. 그러한 덕분에 원불교 여자교무의 경우 자존감과 자신감도 높으며 교단에 기여한 바도 크다. 원불교의 최고 지도자인 종법사에도 공부가 깊고 선출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명쾌하게 대답하기 어려운 면이 없지 않다

4. 현실에 나타나는 차별적 요소

1) 여성 교무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결혼제도

교리가 평등하다고 현실의 평등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원불교는 혁신적인 양성평등의 교리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차별적인 면이 있다. 남자 교무에게는 선택사항이고 여성 교무들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결혼제도와 여성 교무들의 복장이 그것이다.

원불교 초기 교단에는 미혼 여성들뿐만 아니라 결혼한 후 이혼하거나 남편과 사별한 여성, 기녀 등 다양한 사람들이 귀의했다. 가부장제적인 당시의 사회 상황에서는 과년한 딸이 혼인을 하지 않는 것은 불효로 생각했기 때문에 결혼하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해야 하는 여성들은 교무가 되면 공부도 하고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매우 매력적이었다.⁷²⁾ ‘결혼하지 않고 자유로운 환경에서 자아실현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정녀(貞女)가 되는 삶’은 당시에는 대안적인 삶이었던 것이다. 소태산은 여성들에게 결혼에 대한 자유를 주었으나 “정녀 사당에는 나도 못 들어간다.”는 표현으로 미혼 여성교무들을 더 우대한 것은 결혼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가정의 일에 신경을 쓰게 되기 때문에 공종사에 전일하지 못하는 점을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원불교는 성속이분법의 모순을 지적하고 타파하고자 양성평등의 교리와 제도를 지향하면서도 남성교무에게는 선택사항이고 여성교무들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결혼제도는 명백한 차별로 생각된다. 특히 원불교학과 입학 서류를 낼 때 여성 지원자들은 남성 지원자들에게는 없는 ‘정녀지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조항의 폐지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 6년간의 학업을 마치고 나서 출가서원식을 하고 나서 3년 이상 현직 근무를 한 30세 이상의 여성교무들은 정녀선서식을 하기 때문에 입학시 ‘정녀지원서’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원불교학과에 입학함과 동시에 정녀 아닌 삶은 허락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여성교무가 된다는 것은 당연히 독신생활을 하는 것이지만 이 독신도 스스로

71) 가끔 여성교무에게 ‘정녀(貞女)’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혼하지 않고 교무를 하니까 정녀인 것은 사실이지만, 정녀라는 말은 단순히 여교무의 결혼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OO교무라고 불러야 정확한 호칭이다.

72) 초기 교단 여성 교무들의 구술 자료

선택했다는 자긍심을 갖고 싶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단에서는 학생시절에 연애를 한다든지 결혼하고 싶어 중도하차 하는 경우를 미연에 막겠다는 의도에서 ‘정녀지원서’를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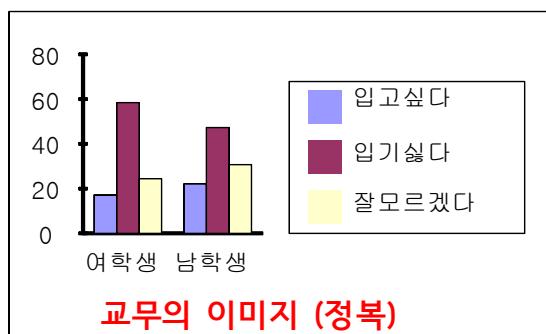
여성교무들의 결혼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결혼한 남성교무들의 가정문제도 다 해결하지 못하는데 여성교무들 까지 결혼을 하면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는 주장이다. 결혼한 남성교무들이 가정과 출가생활을 양립하는데 힘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맞벌이 부부들이 힘들게 아이양육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또한 교단이 지금껏 여성교무들의 회생적인 활동으로 유지해 왔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원불교 교조인 소태산은 ‘결혼도 각자의 원에 맡길 것’(대종경 서품 18장)이라고 천명했는데 그의 제자들이 이 조항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혁신적인 교리로 후천개벽 시대를 열고자 했던 소태산의 염원이 후퇴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으니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 변명처럼 하던 말이 ‘아직 원기 100년도 되지 않았는데....’하면서 이 문제 해결을 유보해 왔었는데 이제는 원기 100년도 지났고,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했으니 이 분야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해 본다.

2) 여성 교무들의 복장

‘검정치마 흰저고리’는 원불교 교무들의 이미지로 오랫동안 자리매김 되어왔고, 정갈하고 단아한 모습에 호감을 갖는 사람도 적지 않다. 그러나 편리하고 기능성이 높은 오늘날 생활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계속 입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여성 교무들의 복장이 원불교 교법의 시대화 생활화 정신에 맞지 않는 것이다. 여성 교무들이 착용하는 ‘흰 저고리 검정 치마’는 원불교가 시작된 당시 신여성들의 복장이었다. 한복이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옷임에도 불구하고 한복을 입지 않고 자란 사람들은 한복을 입고 생활하기에 힘들고, 의복을 관리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더구나 청소년들에게는 유행에 뒤떨어진 낡은 느낌을 주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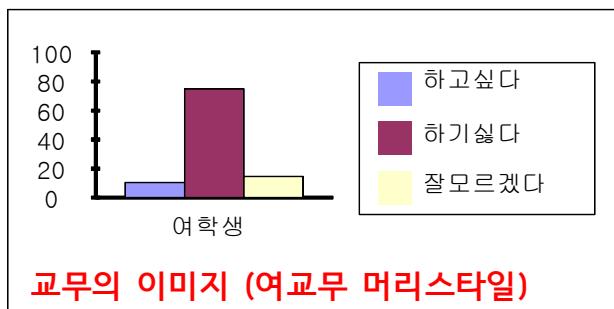


<표1>교무의 이미지(정복)

2007년도 전국 청소년 희망캠프에서 한창민, 박은아 교무가 실시한 ‘전무출신 인재발굴을 위한 기초조사’에서 전체 1,399명에게 남자 교무 혹은 여자교무의 정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다. 이에 대해 전체 여학생 677명 중 17.1%(116명)의 여학생들이 ‘보기에 좋고, 나도 입고 싶다’라고 응답하였고, ‘보기에 좋지만, 나는 입고 싶지 않다’라고 대답한 여학생은 45.8%(310명), ‘보기에 좋지 않고, 나도 입고 싶지 않다’에 12.7%(86명)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나는 입고 싶지 않다’는 여학생이 58.5%(396명)으로서 ‘나

도 입고 싶다(17.1%, 116명)' 또는 '잘 모르겠다(24.4%, 165명)'고 응답한 경우보다 훨씬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자들의 경우 교무가 되면 매일 입어야 하는 옷에 대해 이처럼 부정적인 생각이라면 옷이 출가에 걸림돌이 될도 있다.



<표2> 교무의 이미지(여교무 머리스타일)

여자교무의 머리스타일에 대해서는 여학생 677명 중, '나도 하고 싶다'라는 응답자가 6.5%(44명),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학생이 26.7%(180명)로 나타난 것에 비해, 66.7%(452명)의 여학생이 '나는 하고 싶지 않다'라고 대답하여 많은 여학생들이 여자교무의 머리스타일을 선호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정복에서보다 더 높은 부정응답률을 보였다. 출가자로 유입될 청소년들이 여자교무의 정복과 머리모양에 대해 선호도가 매우 낮다는 것은 교단 운영의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둘째는 활동하기에 불편하다. 현재의 복장이 의례를 집전할 때는 품위 있고 고상한 느낌을 주는 반면 활동복으로는 지나치게 피부와 떨어져 있어서 불편하고, 노동을 할 때 입기에는 부적합하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물건을 들거나 옮겨야 할 때, 의자에 앉을 때, 사무를 볼 때 등 넓은 소매와 넓은 치마통이 능률을 방해하고 불편해서 비실용적이다. 잠깐만 입고 마는 것이 아니라 거의 종일 입고 지내야 하므로 어릴 적부터 편리한 옷에 길들여 온 젊은 사람들은 이 옷을 착용하는 것을 매우 힘들어 한다.

또한 빨래와 풀먹이기, 다림질 등 정갈하게 손질해서 입어야 하는 부담감 있다. 일반의 복과는 달리 원불교 여자 정복은 손질과 관리에 시간적·정신적 에너지를 많이 들여야 한다. 특히 공항과 같이 보안검색구간이 많은 곳에서는 철로 된 머리핀을 사용하는 헤어스타일로 인해 난처한 경우도 있다. 편리하게 발전해가는 현대 물질문화를 선용하는 것이 원불교 개교의 동기라는 점을 상기해 볼 때 이처럼 불편하고 번거로운 의생활로 인해 소모되는 시간을 줄여 보다 더 본질적인 수행과 교화에 힘을 쏟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다. 가슴을 조이는 치마말기는 혈액순환에 방해가 되기도 하고, 여러 겹을 입어야 하는 한복의 특성상 여름에는 매우 덥다. 헤어스타일의 경우 기름을 바르고 매끈하게 빗어넘겨야 하기 때문에 통풍이 잘되지 않아 탈모가 되기도 하고 땀이 날 경우 쉽게 마르지 않아 위생상 좋지 않다. 더구나 철로 된 머리핀을 사용하기 때문에 알러지가 생긴 경우도 있다.

그밖에도 시대에 맞지 않은 느낌을 준다거나 실제 나이보다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이기도 하고, 흰 저고리와 검정 치마의 강한 대비는 주위의 시선을 끌어당겨서 자유롭지 못한 감을 갖는다. 종교적 영성을 함양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 옷을 한 번만이라도 입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매력적인 종교복식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앞으로 노력해야 할 과제이다.

III. 원불교인 성/폭력에 관한 인식

1.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징

- 성별 분포는 여성 47.2%, 남성 52.8%
- 연령 분포는 19세~35세 미만 13.2%, 35세~50세 미만 33.30%, 50세~65세 미만 40.90%
65세 이상 12.6%
- 결혼상태는 미혼 44.00%, 기혼 56.00%
- 재가 출가구분은 재가 71.6%, 출가 28.4%
- 직업은 분석 대상에서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

<표 3>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명, %

구분		실제 조사값	
		응답자	%
성별	여성	75	47.2
	남성	84	52.8
	계	159	100.0
연령	35세 미만	21	13.2
	35세~50세 미만	53	33.3
	50세~65세 미만	65	40.9
	65세 이상	20	12.6
재가 출가	재가	46	28.9
	출가	113	71.1
	계	159	100.0
결혼상태	미혼	70	44.0
	기혼	89	56.0
	계	159	100.0

2. 성/폭력에 관한 인식

1) 성/폭력 통념에 대한 인식

성폭력과 관련된 인식/통념 13개 문항(1~20번)에 대해 조사한 결과(1점: 매우 그렇다, 2점: 약간 그렇다 3점: 반반이다 4점: 별로 그렇지 않다 5점 : 전혀 그렇지 않다, 점수가 높을수록 성폭력과 관련된 통념이 약하고 탈가부장적인 성의식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음)에서 전체 응답자 평균은 5점 만점에 3.74점이며 여성과 남성의 차이도 거의 없다.

<표 4> 성폭력 관련 인식(전체)

단위 : 응답자수, %

번호	구분	① 매우 그렇다	②약간 그렇다	③반반이다	④별로 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계
1	여성들의 야한 웃차림과 정숙치 못한 행동이 성폭력을 유발한다.	10 6.29	50 31.45	36 22.64	40 25.16	23 14.47	159 100
2	성폭력은 주로 젊은 여자들에게 일어난다.	6 3.77	30 18.87	30 18.87	55 34.59	38 23.90	159 100
3	대부분의 성폭력은 ‘컴컴한 골목’에서 ‘낯선 사람’에 의해 ‘우연히’ 일어난다.	5 3.14	10 6.29	28 17.61	77 48.43	39 24.53	159 100
4	여자가 끝까지 저항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 .	6 3.77	13 8.18	32 20.13	52 32.70	56 35.22	159 100
5	성폭력은 억제할 수 없는 남성의 성충동 때문에 일어난다.	28 17.61	29 18.24	42 26.42	38 23.90	22 13.84	159 100
6	대부분의 성폭력 피해자는 평소 성관계가 난잡하거나 평판이 좋지 않다.	1 0.63	6 3.77	9 5.66	47 29.56	96 60.38	159 100
7	여성이 스스로 조심하는 것 말고는 성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4 2.52	11 6.92	19 11.95	53 33.33	72 45.28	159 100
8	여자가 키스나 애무를 허용하는 것은 성관계를 허용하는 뜻이다.	13 8.18	27 16.98	33 20.75	35 22.01	51 32.08	159 100
9	성폭력 피해자는 여성이 많지만,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60 37.74	71 44.65	17 10.69	8 5.03	3 1.89	159 100
10	성적으로 강하고, 성에 대한 관심과 경험이 많을수록 남자답다.	1 0.63	2 1.26	13 8.18	46 28.93	97 61.01	159 100
11	여자가 ‘싫다’고 말하는 것은 진심이 아닐 수 있다.	5 3.14	17 10.69	27 16.98	52 32.70	58 36.48	159 100
12	연인관계에서의 스킨쉽은 상대방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다.	7 4.40	8 5.03	18 11.32	39 24.53	87 54.72	159 100
13	연인들이 싸우고 난 후에 성관계를 하는 건 화해나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0 0.00	15 9.43	39 24.53	57 35.85	48 30.19	159 100
14	사이버 성폭력은 현실이 아닌 가상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6 3.77	2 1.26	7 4.40	32 20.13	112 70.44	159 100
15	평소에 폭행, 강도, 절도 등의 피해를 입을까봐 두렵다.	10 6.29	33 20.75	35 22.01	48 30.19	33 20.75	159 100
16	지하철, 버스, 택시,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때 성폭력을 당할까봐 두렵다.	7 4.40	29 18.24	20 12.58	51 32.08	52 32.70	159 100
17	밤늦게 혼자 다닐 때 성폭력을 당할까봐 무섭다.	15 9.43	29 18.24	18 11.32	48 30.19	49 30.82	159 100
18	집에 혼자 있을 때 낯선 사람의 방문(수리기사, 택배 등)이 무섭다.	9 5.66	39 24.53	23 14.47	49 30.82	39 24.53	159 100
19	모르는 사이에 내가 촬영되었거나 내가 찍힌 영상물이 유포되고 있을까봐 두렵다.	8 5.03	35 22.01	19 11.95	51 32.08	46 28.93	159 100
20	온라인상에서 성별을 이유로 음란쪽지, 음란채팅, 욕설 등을 당할까봐 두렵다.	13 8.18	21 13.21	18 11.32	59 37.11	48 30.19	159 100

<표 5> 성폭력 관련 인식(여성)

단위 : 응답자수, %

번호	구분	① 매우 그렇다	② 약간 그렇다	③ 반반이다	④ 별로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1	여성들의 야한 옷차림과 정숙치 못한 행동이 성폭력을 유발한다.	7 9.33	27 36.00	15 20.00	17 22.67	9 12.00	75 100
2	성폭력은 주로 젊은 여자들에게 일어난다.	2 2.67	12 16.00	15 20.00	25 33.33	21 28.00	75 100
3	대부분의 성폭력은 '컴컴한 골목'에서 '낯선 사람'에 의해 '우연히' 일어난다.	3 4.00	5 6.67	11 14.67	37 49.33	19 25.33	75 100
4	여자가 끝까지 저항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	1 1.33	5 6.67	17 22.67	20 26.67	32 42.67	75 100
5	성폭력은 억제할 수 없는 남성의 성충동 때문에 일어난다.	14 18.67	14 18.67	20 26.67	15 20.00	12 16.00	75 100
6	대부분의 성폭력 피해자는 평소 성관계가 난잡하거나 평판이 좋지 않다.	1 1.33	5 6.67	1 1.33	20 26.67	48 64.00	75 100
7	여성이 스스로 조심하는 것 말고는 성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3 4.00	8 10.67	8 10.67	24 32.00	32 42.67	75 100
8	여자가 키스나 애무를 허용하는 것은 성관계를 허용하는 뜻이다.	9 12.00	12 16.00	13 17.33	13 17.33	28 37.34	75 100
9	성폭력 피해자는 여성이 많지만,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29 38.67	32 42.67	9 12.00	4 5.33	1 1.33	75 100
10	성적으로 강하고, 성에 대한 관심과 경험이 많을수록 남자답다.	1 1.33	1 1.33	3 4.00	22 29.33	48 64.00	75 100
11	여자가 '싫다'고 말하는 것은 진심이 아닐 수 있다.	3 4.00	9 12.00	9 12.00	22 29.33	32 42.67	75 100
12	연인관계에서의 스킨쉽은 상대방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다.	6 8.00	4 5.33	6 8.00	17 22.67	42 56.00	75 100
13	연인들이 싸우고 난 후에 성관계를 하는 건 화해나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0 0.00	7 9.33	21 28.00	26 34.67	21 28.00	75 100
14	사이버 성폭력은 현실이 아닌 가상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5 6.67	1 1.33	4 5.33	13 17.33	52 69.33	75 100
15	평소에 폭행, 강도, 절도 등의 피해를 입을까봐 두렵다.	6 8.00	23 30.67	17 22.67	22 29.33	7 9.33	75 100
16	지하철, 버스, 택시,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때 성폭력을 당할까봐 두렵다.	6 8.00	23 30.67	14 18.67	21 28.00	11 14.67	75 100
17	밤늦게 혼자 다닐 때 성폭력을 당할까봐 무섭다.	13 17.33	21 28.00	13 17.33	21 28.00	7 9.33	75 100
18	집에 혼자 있을 때 낯선 사람의 방문(수리기사, 택배 등)이 무섭다.	7 9.33	26 34.67	16 21.33	21 28.00	5 6.67	75 100
19	모르는 사이에 내가 촬영되었거나 내가 찍힌 영상물이 유포되고 있을까봐 두렵다.	5 6.67	22 29.33	12 16.00	24 32.00	12 16.00	75 100
20	온라인상에서 성별을 이유로 음란쪽지, 음란채팅, 욕설 등을 당할까봐 두렵다.	10 13.33	10 13.33	13 17.33	26 34.67	16 21.33	75 100

<표 6> 성폭력 관련 인식(남성)

단위 : 응답자수, %

번호	구분	① 매우 그렇다	② 약간 그렇다	③ 반반이다	④ 별로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1	여성들의 야한 옷차림과 정숙치 못한 행동이 성폭력을 유발한다.	3 3.57	23 27.38	21 25.00	23 27.38	14 16.67	84 100
2	성폭력은 주로 젊은 여들에게 일어난다.	4 4.76	18 21.43	15 17.86	30 35.71	17 20.24	84 100
3	대부분의 성폭력은 '컴컴한 골목'에서 '낯선 사람'에 의해 '우연히' 일어난다.	2 2.38	5 5.95	17 20.24	40 47.62	20 23.81	84 100
4	여자가 끝까지 저항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	5 5.95	8 9.52	15 17.86	32 38.10	24 28.57	84 100
5	성폭력은 억제할 수 없는 남성의 성충동 때문에 일어난다.	14 16.67	15 17.86	22 26.19	23 27.38	10 11.90	84 100
6	대부분의 성폭력 피해자는 평소 성관계가 난잡하거나 평판이 좋지 않다.	0 0.00	1 1.19	8 9.52	27 32.14	48 57.14	84 100
7	여성이 스스로 조심하는 것 말고는 성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1 1.19	3 3.57	11 13.10	29 34.52	40 47.62	84 100
8	여자가 키스나 애무를 허용하는 것은 성관계를 허용하는 뜻이다.	4 4.76	15 17.86	20 23.81	22 26.19	23 27.38	84 100
9	성폭력 피해자는 여성이 많지만,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31 36.90	39 46.43	8 9.52	4 4.76	2 2.38	84 100
10	성적으로 강하고, 성에 대한 관심과 경험이 많을수록 남자답다.	0 0.00	1 1.19	10 11.90	24 28.57	49 58.33	84 100
11	여자가 '싫다'고 말하는 것은 진심이 아닐 수 있다.	2 2.38	8 9.52	18 21.43	30 35.71	26 30.95	84 100
12	연인관계에서의 스킨쉽은 상대방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다.	1 1.19	4 4.76	12 14.29	22 26.19	45 53.57	84 100
13	연인들이 싸우고 난 후에 성관계를 하는 건 회해나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0 0.00	8 9.52	18 21.43	31 36.90	27 32.14	84 100
14	사이버 성폭력은 현실이 아닌 가상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1 1.19	1 1.19	3 3.57	19 22.62	60 71.43	84 100
15	평소에 폭행, 강도, 절도 등의 피해를 입을까봐 두렵다.	4 4.76	10 11.90	18 21.43	26 30.95	26 30.95	84 100
16	지하철, 버스, 택시,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때 성폭력을 당할까봐 두렵다.	1 1.19	6 7.14	6 7.14	30 35.71	41 48.81	84 100
17	밤늦게 혼자 다닐 때 성폭력을 당할까봐 무섭다.	2 2.38	8 9.52	5 5.95	27 32.14	42 50.00	84 100
18	집에 혼자 있을 때 낯선 사람의 방문(수리기사, 택배 등)이 무섭다.	2 2.38	13 15.48	7 8.33	28 33.33	34 40.48	84 100
19	모르는 사이에 내가 촬영되었거나 내가 찍힌 영상물이 유포되고 있을까봐 두렵다.	3 3.57	13 15.48	7 8.33	27 32.14	34 40.48	84 100
20	온라인상에서 성별을 이유로 음란쪽지, 음란채팅, 욕설 등을 당할까봐 두렵다.	3 3.57	11 13.10	5 5.95	33 39.29	32 38.10	84 100

<표 7> 원불교의 성평등 . 성폭력에 대한 성별 인식

단위 : 응답자수, %

번호	구분	① 매우 그렇다	②약간 그렇다	③반반 이다	④별로 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계
전체							
1	원불교 교리는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평등하다.	120 75.47	23 14.47	6 3.77	5 3.14	5 3.14	159 100
2	원불교의 제도와 조직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평등하다.	44 27.67	31 19.50	22 13.84	44 27.67	18 11.32	159 100
3	원불교내의 성폭력외의 폭력 피해(또는 가해) 사례에 대해 알고 있다	6 3.77	19 11.95	10 6.29	38 23.90	86 54.09	159 100
4	원불교내의 성폭력 피해(또는 가해) 사례에 대해 알고 있다.	4 2.52	14 8.81	8 5.03	28 17.61	105 66.04	159 100
5	나는 성폭력 피해자(또는 가해자)를 상담한 적이 있다.	6 3.77	19 11.95	5 3.14	19 11.95	110 69.18	159 100
6	나는 성폭력 피해자를 돋는 방법을 알고 있다.	5 3.14	31 19.50	28 17.61	48 30.19	47 29.56	159 100
여성							
1	원불교 교리는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평등하다.	58 77.33	8 10.67	5 6.67	3 4.00	1 1.33	75 100
2	원불교의 제도와 조직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평등하다.	22 29.33	9 12.00	11 14.67	25 33.33	8 10.67	75 100
3	원불교내의 성폭력외의 폭력 피해(또는 가해) 사례에 대해 알고 있다	3 4.00	6 8.00	7 9.33	19 25.33	40 53.33	75 100
4	원불교내의 성폭력 피해(또는 가해) 사례에 대해 알고 있다.	3 4.00	4 5.33	6 8.00	18 24.00	44 58.67	75 100
5	나는 성폭력 피해자(또는 가해자)를 상담한 적이 있다.	4 5.33	12 16.00	3 4.00	10 13.33	46 61.33	75 100
6	나는 성폭력 피해자를 돋는 방법을 알고 있다.	2 2.67	12 16.00	12 16.00	23 30.67	26 34.67	75 100
남성							
1	원불교 교리는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평등하다.	62 73.81	15 17.86	1 1.19	2 2.38	4 4.76	84 100
2	원불교의 제도와 조직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평등하다.	22 26.19	22 26.19	11 13.10	19 22.62	10 11.90	84 100
3	원불교내의 성폭력외의 폭력 피해(또는 가해) 사례에 대해 알고 있다	3 3.57	13 15.48	3 3.57	19 22.62	46 54.76	84 100
4	원불교내의 성폭력 피해(또는 가해) 사례에 대해 알고 있다.	1 1.19	10 11.90	2 2.38	10 11.90	61 72.62	84 100
5	나는 성폭력 피해자(또는 가해자)를 상담한 적이 있다.	2 2.38	7 8.33	2 2.38	9 10.71	64 76.19	84 100
6	나는 성폭력 피해자를 돋는 방법을 알고 있다.	3 3.57	19 22.62	16 19.05	25 29.76	21 25.00	84 100

성폭력과 관련된 인식에서 잘못된 사회적 통념이 강한 ‘매우 그렇다’와 ‘약간 그렇다’의 전체 응답자의 15.09%인 반면에 ‘별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가 전체 응답자의 68.82%이며 반반이다가 16.11%로 전반적으로 성폭력과 관련된 통념이 적으며, 탈가부장적인 성의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⁷³⁾

<표 8> 성폭력인식 관련 13개 문항 평균

성폭력인식 관련 13개 문항 평균	‘매우 그렇다’ + ‘약간 그렇다’	반반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합계
여성	16.92%	14.67%	68.41%	100%
남성	13.46%	17.40%	69.13%	100%
전체	15.09%	16.11%	68.82%	100%

‘그렇다’(매우 그렇다 + 약간 그렇다)의 응답률이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에 대한 응답률의 1/3 정도로, 원불교인들은 성폭력과 관련된 인식에서 잘못된 사회적 통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통계인 15.09% 보다 ‘그렇다’(매우 그렇다 + 약간 그렇다)의 응답률이 높은 문항은 13개 항목 중 4개 항목이다. ‘여성들의 야한 옷차림과 정숙치 못한 행동이 성폭력을 유발한다.’가 37.74%, ‘성폭력은 억제할 수 없는 남성의 성충동 때문에 일어난다.’가 35.85%, ‘여자가 키스나 애무를 허용하는 것은 성관계를 허용하는 뜻이다.’가 25.16%, ‘성폭력은 주로 젊은 여자들에게 일어난다.’가 22.64%이다. 이 항목들도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여성가족부의 『2016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⁷⁴⁾에 비하면 상당히 의미있는 차이를 보인다. 『2016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서는 전체적으로 모든 문항에서 ‘그렇다’(매우 그렇다 + 약간 그렇다)는 응답률이 여성에 비해 남성이 높았다.

2016년 보고서에서 ‘그렇다’(약간 그렇다+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문항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기준으로 ‘성폭력은 노출이 심한 옷차림 때문에 일어난다.’(49.3%), ‘여자들이 조심하면 성폭력을 줄일 수 있다’(48.7%), ‘여자가 키스나 애무를 허용하는 것은 성관계를 허용하는 뜻이다’(41%), ‘성폭력은 주로 젊은 여자들에게서 일어난다.’(40%) 등이었다. 이들 문항에 대해 여성과 남성이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여자가 키스나 애무를 허용하는 것은 성관계를 허용하는 뜻이다’ 여성 33.4%, 남성 48.2%, ‘성폭력은 주로 젊은 여자들에게서 일어난다’ 여성 36.3%, 남성 43.6%였다.⁷⁵⁾

‘성폭력 피해자는 여성이 많지만,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항목에서 ‘그렇다’(매우 그렇다 + 약간 그렇다)의 응답률은 무려 82.39%로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응답률 6.92%의 12배 정도이다. ‘그렇다’(매우 그렇다 + 약간 그렇다)의 성별 응답률은 여성의 경우 81.34%, 남성의 경우 83.33%로 남성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성폭력 피해자는 여성이라고 여겨졌던 인식을 거의 벗어난 응답이다.

73) 성폭력과 관련된 통념에 관한 통계를 구하기 위해서는 ‘성폭력 피해자는 여성이 많지만,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항목은 통념과는 반대되는 항목이므로 이 항목을 빼고 계산했다.

74) <https://www.043w.or.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19322> 참조.

이 보고서는 「2016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의 결과를 수록한 것임

75) 여성가족부, 앞 글, p.20-21 참조

2) 성폭력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범죄피해 발생에 대한 두려움을 6개 문항으로 조사한 결과(1점: 매우 그렇다, 2점: 약간 그렇다 3점: 반반이다 4점: 별로 그렇지 않다 5점 : 전혀 그렇지 않다, 점수가 높을수록 성폭력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적다고 볼 수 있음) 전체 응답자의 평균은 3.56점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큰 ‘매우 그렇다’와 ‘약간 그렇다’의 전체 평균의 합계가 26.00인 반면에 ‘별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의 전체 평균의 합계가 60.07이며 반반이다가 13.94로 나타났다.

<표 9> 성폭력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문항 평균

성폭력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매우 그렇다’ + ‘약간 그렇다’	반반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합계
여성	38.22%	18.89%	42.89%	100%
남성	15.08%	9.52%	75.40%	100%
전체	26.00%	13.94%	60.07%	100%

특히 여성이 느끼는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남성에 비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의 경우 ‘매우 그렇다’와 ‘약간 그렇다’의 전체 평균의 합계가 38.22%인 반면에 ‘별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의 평균의 합계가 42.89%이며 반반이다가 18.89%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매우 그렇다’와 ‘약간 그렇다’의 평균이 26%인 반면에 ‘별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의 평균이 75.40%이며 반반이다가 19.52%로 여성 그룹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성폭력과 관련된 통념에서 진보적인 경향을 보였던 것과는 달리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여성들이 더 많이 느끼는 것은 우리 사회가 아직 까지 여성에게 안전하지 않다는 반증이다.

‘그렇다’(매우 그렇다 + 약간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밤늦게 혼자 다닐 때 성폭력을 당할까봐 무섭다’가 여성의 경우, 45.33%, ‘집에 혼자 있을 때 낯선 사람의 방문(수리기사, 택배 등)이 무섭다’ 44%, ‘지하철, 버스, 택시, 공중화장실 등을 혼자 이용할 때 성폭력을 당할까봐 두렵다’ 38.67%, ‘평소에 폭행, 강도, 절도 등의 피해를 입을까봐 두렵다’ 38.67%, ‘모르는 사이에 내가 촬영되었거나 내가 찍힌 영상물이 유포되고 있을까봐 두렵다’가 36%, ‘온라인상에서 성별을 이유로 음란쪽지, 음란채팅, 욕설 등을 당할까봐 두렵다’가 26.66%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거의 10~20%로 여성보다 절반 정도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은 여성가족부의 『2016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⁷⁶⁾ 응답결과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치이다. 이 자료에 의하면 여성의 경우, ‘밤늦게 혼자 다닐

76) 여성가족부, 앞 글, p.20-21 참조

때 성폭력을 당할까봐 무섭다' 76.3%, '집에 혼자 있을 때 낯선 사람의 방문(수리기사, 택배 등)이 무섭다' 65.3%, '택시, 공중화장실 등을 혼자 이용할 때 성폭력을 당할까봐 두렵다' 64.5%, '평소에 폭행, 강도, 절도 등의 피해를 입을까봐 두렵다' 61.5%, '길거리를 지날 때 남자들이 모여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봐 두렵다' 52.0%, '성별을 이유로 범죄의 표적이 될까봐 두렵다' 50.9%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평소에 폭행, 강도, 절도 등의 피해를 입을까봐 두렵다' 18.3%,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촬영되었거나 내가 찍힌 영상물이 유포되고 있을까봐 무섭다' 11.6%, '밤늦게 혼자 다닐 때 성폭력을 당할까봐 무섭다' 11.4% 순으로 동일문항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느끼는 두려움의 정도가 최대 7배까지 차이가 났는데 '택시, 공중화장실 등을 혼자 이용할 때 성폭력을 당할까봐 두렵다' 항목에서 남성의 경우 8.6%가 응답한데 반해 여성은 64.5%가 응답했다.⁷⁷⁾.

이번 연구의 결과와 여성가족부의 『2016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의 결과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으나 응답결과에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의 차이도 있고, 2년동안 수많은 성폭력 관련 사건들이 발생하였으며, 매스미디어를 통한 교육이 확산되어 시민들의 의식도 성숙되어 가고 있는 것도 차이가 나게 하는 원인 중의 하나라 여겨진다. 조사대상이 전 국민과 원불교인이라는 점이 변인이 될 수도 있다.

이상에서 원불교인들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은 상당부분 통념을 극복한 것으로 보이지만 성폭력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여성들에게는 아직 많이 남아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음에는 성폭력 관련 인식과 현실적인 과제 등에 대해 살펴보자.

3) 원불교의 성/폭력에 관한 인식

성/폭력 인식에 대한 응답은 2개 항목에서 두드러졌다. '원불교 교리는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평등하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그렇다'(매우 그렇다 + 약간 그렇다)의 응답률이 89.94%로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 6.28%에 비해 현저하게 높다. 양성평등의 혁신적인 원불교 교리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리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반면에 '원불교 제도와 조직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평등하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그렇다'(매우 그렇다 + 약간 그렇다)의 응답률이 47.17%, '반반이다'가 13.84%,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가 39.99%로 '교리가 평등하다'는 항목에 비하면 제도와 조직은 '덜 평등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에게도 사제직을 부여하고 최고의 결기판인 수위단을 남녀동수로 구성하는 등 양성평등의 혁신적인 원불교 제도와 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에게만 금지된 결혼과 여성 전무출신⁷⁸⁾들의 한복스타일

77) 여성가족부, 앞 글, p.22 참조

78) 원불교교헌, 第18條(專務出身) ①出家教徒로서 教規의 定한 바에 따라 本教에 貢獻하는 이를 專務出身이라 한다. ②專務出身으로서 平生을 獨身으로 貢獻하는 이를 貞男.貞女라 한다.

전무출신규정, 제2조(정의) 전무출신이란 출가교도로서 정신과 육신을 오로지 교단에 공헌하는 자를 말한다. 제6조(품과) ①전무출신 제도에 다음과 같은 품과를 두어 적성과 희망에 따라 교단에 공헌하게 한다.(개정 82. 7. 31)

1. 교무 : 교무의 자격을 취득하여 교회에 전무하는 자, 다만 중앙총부·교구사무국·교역자 양성기관의 교원 및 중요기관 약간의 행정직에 근무할 수 있다.

2. 도무 : 도무의 자격을 취득하여 교육·행정·자선·연구·기술·의료 등 전 문분야에서 전무하는 자.

3. 덕무 : 덕무의 자격을 취득하여 근로와 기능 등의 분야에서 전무하는 자

정복과 쪽진 머리의 복장이 이와 같은 응답률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여진다.

‘원불교내의 성폭력외의 폭력 피해(또는 가해) 사례에 대해 알고 있다’ 항목의 ‘그렇다’(매우 그렇다 + 약간 그렇다)의 응답률이 15.72%,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이 77.99%이다. ‘원불교내의 성폭력 피해(또는 가해) 사례에 대해 알고 있다’ 항목의 ‘그렇다’(매우 그렇다 + 약간 그렇다)의 응답률이 11.33%,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이 83.64%이다. 이 두 항목에서는 응답률보다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의 수가 중요하다. 설문응답자 159명 가운데 성폭력외의 폭력에 대해서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은 6명이며, 성폭력에 대해서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은 4명이었고, 이들이 응답한 사례가 동일한 사례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응답 결과만을 보고 원불교는 성폭력 사례가 거의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해를 당하고도 드러내지 못할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는

원불교에서 성폭력 사례가 거의 없는 요인은 여성교무들의 활약상이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검정 치마 흰 저고리’로 대변되는 여성교무들은 양성평등의 교리를 배우고 훈련하여 모든 면에서 자력을 갖추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므로 여성교무들은 나약하고 남성에게 의뢰하기보다는 자력을 갖추고 남녀 교도들을 지도하는 위치에 있다. 앞에서도 밝혔듯이 현재 근무 중인 남녀교무의 비율은 50.52: 49.48로 거의 비슷하지만 교당의 주임교무는 나이가 많은 여성이 많고, 보좌교무는 나이가 적은 남성인 많기 때문에 오히려 여성교무들이 더 힘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인적 구성도 성폭력 발생이 매우 적은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만약 사례가 있을 경우 설문 응답 시 적어 줄 것을 연구자가 요청하였으나,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구성원의 숫자가 그다지 많지 않고 중앙집권제적 성격이 강한 원불교의 특성상 신분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원불교에서는 상담을 요청하거나 피해제보 및 가해자를 고발할 수 있는 기관인 감찰원에 연구협조를 요청하였으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다만 연구자가 입수한 사례는 성추행 1건, 성희롱 1건이 있었다.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는 보다 더 깊이 있는 조사연구를 통한 보완이 필요하지만 실행하지는 못했다. 피해를 입을 경우 감찰원이 있어서 상담과 구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다행이다.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정화단에서 성폭력상담소를 설치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었으면 더 좋겠다. 정화단총회에서 상담소 설치건이 거론 된 적이 있지만 실제로 설치되지는 않았다. 원불교상담연구소도 있으니 이 기관과도 연계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나는 성폭력 피해자(또는 가해자)를 상담한 적이 있다’ 문항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은 6명으로 3.77%이며 상담경험이 전혀 없는 응답자가 69.18%나 되었다. ‘나는 성폭력 피해자를 돋는 방법을 알고 있다’ 문항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은 5명으로 3.14%이며 돋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59.75%이다. 성폭력건수가 적기도 하지만 상담건수가 이렇게 적은 것은 외부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상담을 위해 찾는 빈도가 매우 낮다. 상담을 전공한 교무들도 꽤 있으니 상담소를 설치하여 성/폭력에 대한 통념을 바로잡는 교육과 더불어 피해자(또는 가해자) 상담법을 가르치고 배우는 전문기관 설치가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성과 성/폭력에 대한 원불교의 인식에 대해 정리하자면 ‘양성평등의 교리’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제도에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이를 바로잡아나가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성폭력 인식에 대한 설문지

4대 종교의 ‘종교 . 성 . 폭력’ 세미나에서 원불교인의 인식에 대해 도움을 얻고자 설문조사를 하오니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성교당 민성효 합장				
나이(①19세 ~ 35세 ②35세 ~ 50세 ③50세 ~ 65세 ④66~100) 혼인(①미혼②기혼)		성별(①여성②남성) 재가출가(①재가②출가)		직업()		
성폭력(성희롱, 추행, 강간 등)에 대한 인식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반반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여성들의 야한 옷차림과 정숙치 못한 행동이 성폭력을 유발한다. 2 성폭력은 주로 젊은 여자들에게 일어난다. 3 대부분의 성폭력은 ‘컴컴한 골목’에서 ‘낯선 사람’에 의해 ‘우연히’ 일어난다. 4 여자가 끝까지 저항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 5 성폭력은 억제할 수 없는 남성의 성충동 때문에 일어난다. 6 대부분의 성폭력 피해자는 평소 성관계가 난잡하거나 평판이 좋지 않다. 7 여성이 스스로 조심하는 것 말고는 성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8 여자가 키스나 애무를 허용하는 것은 성관계를 허용하는 뜻이다. 9 성폭력 피해자는 여성이 많지만,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10 성적으로 강하고, 성에 대한 관심과 경험이 많을수록 남자답다. 11 여자가 ‘싫다’고 말하는 것은 진심이 아닐 수 있다. 12 연인관계에서의 스킨쉽은 상대방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다. 13 연인들이 싸우고 난 후에 성관계를 하는 건 화해나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14 사이버 성폭력은 현실이 아닌 가상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15 평소에 폭행, 강도, 절도 등의 피해를 입을까봐 두렵다. 16 지하철, 버스, 택시,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때 성폭력을 당할까봐 두렵다. 17 밤늦게 혼자 다닐 때 성폭력을 당할까봐 무섭다. 18 집에 혼자 있을 때 낯선 사람의 방문(수리기사, 택배 등)이 무섭다. 19 모르는 사이에 내가 촬영되었거나 내가 찍힌 영상물이 유포되고 있을까봐 두렵다. 20 온라인상에서 성별을 이유로 음란쪽지, 음란채팅, 욕설 등을 당할까봐 두렵다.						
원불교의 성평등 . 성폭력에 대한 인식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반반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원불교 교리는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평등하다. 2 원불교의 제도와 조직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평등하다. 3 원불교내의 성폭력외의 폭력 피해(또는 가해) 사례에 대해 알고 있다 3-1 위의 3은 어떠한 폭력 피해(또는 가해)입니까? 4 원불교내의 성폭력 피해(또는 가해) 사례에 대해 알고 있다. 4-1 위의 4는 어떠한 성폭력 피해(또는 가해)입니까? 5 나는 성폭력 피해자(또는 가해자)를 상담한 적이 있다. 6 나는 성폭력 피해자를 돋는 방법을 알고 있다. 7 종교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적어주세요.(뒷면 활용 가능)						

성/폭력에 대한 불교적 해석 및 대안 모색

옥복연(종교와젠더연구소장)

1. 들어가기

2016년 8월, 함께 근무하던 여직원을 불러내 차안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스님이 기소되었다. 1년 넘게 이어진 재판 결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또한 가해자는 신상정보를 공개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치유프로그램을 수강하도록 명령했다. ‘명망 높은 큰스님’이 신도이자 함께 일하는 여직원을 성추행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또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재판부는 판결에 덧붙였다.

가해자는 재판 과정에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비정상으로 몰아붙여 2차 피해를 가했으며, 사과를 요구하는 여성단체 활동가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그동안 종교지도자들은 사회적 지위와 권위를 방패삼아, 성범죄 대부분은 은폐되거나 축소되어 계율상의 처벌은 물론 사회법으로도 그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1년 넘게 여성단체들이 탄원서, 서명, 피케팅, 증언 등을 통해 유죄를 인정받은, 여성불자들이 여성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을 가르쳐준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

또한 2017년 6월,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이자 해인사 산내암자의 모 주지스님이 여성 종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되었는데, 이 사건으로 그 스님은 산문출송되어 출가의 신분을 벗고 속세로 나갔다. 종단의 출가자 성폭력사건이 발생하면 잠시 참회하는 듯 조용히 있다가 다시 종단의 중요한 직책을 맡기도 하는 수순이었는데, 이 사안은 종단이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했다. 그 이유를 보니, 이 스님은 몇 년 전 성추행과 성매매 사건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종회의원(사회의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어 종단 지도자로 행세했기 때문이다. 종단의 지도부의 과실이자 이미 예견된 참사였기에 종단이 나서서 급하게 사안을 마무리했다.

그리고 2018년 5월 1일 MBC PD수첩은 “큰스님께 묻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현 조계종단 총무원장인 설정스님의 친자 의혹, 그리고 종단의 두 번째 실세인 교육원장스님이 두 명의 여성에게 성추행을 가했다는 의혹이 방영되었다. 피해자가 불교계 미투를 한 것인데, 가해자로 의심받는 교육원장은 지금까지도 교육원장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종단 내 성폭력사건이 종종 등장하고 있는데, 성폭력 피해자를 바라보는 여성불자들의 입장도 다양하다. ‘남의 얘기가 아니다. 나도 언제든지 당할 수 있다’며 피해자를 지지하고 ‘그런 못된 출가자는 반드시 혼을 내야 한다.’며 미투운동에 지지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다. 반면에 ‘그냥 놔둬도 가해자는 자신이 지은 업을 받을 건데 굳이 들추어낼 필요가 있는가?’ 라며 ‘현실 타협’을 말하기도 하고, 혹은 ‘전생에 나쁜 업을 저질러서 지금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라며 “피해자 업業설”을 주장하기도 하고, ‘그래도 불자인데 자비를 베풀어야지 왜 복수하려고 하는가?”라는 “자비 실천설”을, 혹은 ’여자가 유혹했으니, 틈을 주었으니 그랬겠지’ 라며 “여성 유혹설” 등 피해자여성을 비난하거나 자책하는 다양한 말들이 쏟아진다.

그렇다면 봇다는 성/폭력에 대해 어떻게 가르치셨을까? 세속의 가치를 떠나 수행을 통해 깨

달음을 추구하는 출가자들에게 봇다는 어떠한 계율로 성문제를 규율하셨을까? 계율은 봇다의 가르침이 오랫동안 유지되고 교단이라는 사부대중의 공동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조직 규범의 기초이다. 계율을 기록한 율장에 의하면, 가장 지혜로운 봇다의 제자인 사리불이 봇다께 계율을 미리 정하자고 청했지만, 봇다는 아무런 악법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계율을 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답하셨다.⁷⁹⁾ 그리하여 계율은 승단에 문제가 발생 할 때마다 하나씩 생겼는데, 오늘날은 재가자 5계, 비구 250계와 비구니 348계가 있다. 봇다께서 제정한 계율에는 성과 관련된 계율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아마도 성적 욕구가 인간의 욕구 가운데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본능 가운데 하나로 간주되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계율이 교단 구성원 가운데 누군가의 잘못된 행위에 뒤따라 제정되었기 때문에, 성폭력과 관련된 계율을 살펴보는 것은 봇다의 성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 그리고 성폭력에 대한 대처 방안 등을 유추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글은 불교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서 경전에 나타난 성性인식을 알아보고, 성폭력과 관련된 봇다의 가르침을 분석하면서 이에 대한 계율 적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불교계의 성폭력예방을 위한, 미투 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미약하나마 모색해보자 한다.⁸⁰⁾

2. 성/폭력에 대한 경전적 해석

1) 성평등에 대해 이중적인 경전의 재해석 시급

불교가 성평등한 종교인지, 아니면 여성을 억압하는 종교인지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다. 왜냐면 동일한 경전 안에서 열등하고 부정적인 여성상과 자비롭고 지혜로운 여성상이 동시에 제시되기도 하고, 어떤 경전은 여성의 우월성을, 또 어떤 경전은 여성을 열등하고 부정하게 묘사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특정 경전을 거론하며 성평등 혹은 성차별성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성평등과 관련된 담론들 또한 다양한데, 예를 들면, 여성성불 담론에서는 여성도 가장 높은 깨달음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여성성불론女性成佛論’과 여성은 다음 생에 남성으로 다시 태어나야 성불할 수 있다는 ‘변성성불론變性成佛論’ 혹은 여성은 아예 성불할 수가 없다는 ‘여성성불 불가론女性成佛不可論’이 함께 전해온다.

여성의 몸 담론에 있어서도 전생에 나쁜 업을 지은 탓에 여성의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성의 몸은 죄와 별의 상징이라는 ‘업業 정체성’과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법기(法器: 법을 담는 그릇)로서의 여성의 몸을 중시하는 ‘수행자 정체성’이 대립한다. 여성의 섹슈얼리티 담론에서는 성적 욕구를 조절할 수 없거나 남성을 파멸로 이끄는 요부 혹은 음탕한 여성인 ‘유혹자 정체성’과 자비와 지혜로 중생의 고통을 돌보는 ‘보살 정체성’이 경합한다. 젠더 수행담론에서는 성역할 고정관념으로 여성에게는 희생과 봉사만이 최고의 덕목임을 강조하는 ‘타자화 정체성’과 공空사상에 기반을 두어 성차를 극복하려는 온전한 생명으로서의 ‘탈이분법적 정체

79) 팽천창, 석혜능 옮김(2002), 『비구계의 연구 1』, p. 127

80) 이 글에서 계율과 관련해서는 팽천창, 석혜능 옮김(2002), 『비구계의 연구 1』를 참고로 할 것이며, 초기경전은 한국빠알리성전협회의 5부 니까야를 참고로 할 것이다. 그리고 종단은 조계종단을, 종법은 조계종단의 종헌과 종법을 대상으로 기술할 것이다.

성'으로 나타난다.

왜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 2600여 년 전 태어난 붓다는 엄격한 카스트 신분사회에서 인간 평등과 해방 사상을 주창하였으며, 여성수행자만으로 이루어진 비구니승단을 설립하였고, 여성 제자들을 양성하였다.⁸¹⁾ 그는 성·인종·신분·결혼·여부 등에 상관없이 출가자로 받아들여 평등한 수행공동체로 만들었다.

붓다의 원음이 가장 많이 담겨 있다고 알려지는 초기경전들에는 “아무리 위대한 브라만이라 할지라도 생리와 임신을 하는 여성의 자궁에서 태어났다”⁸²⁾(『맛지마니까야』: 1042-1055)며, 모든 인간은 여성의 자궁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엄격한 카스트제도의 신분 차별은 물론 성차별을 거부한다. 또한 『쌍웃따니까야』의 「어머니의 경」과 「아버지의 경」에서 붓다는 오랜 세월을 거쳐서 일찍이 한 번도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었던 사람을 쉽게 찾을 수 없다며, 남성과 여성은 본질적으로 평등함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그의 사후 교단은 급격하게 가부장적으로 위계화 되면서 부정적이고 열등한 여성상으로 전승. 왜곡되었고, 붓다의 성평등, 인간평등의 가르침은 오염되어 여성혐오로 의심할 만한 교리나 계율이 등장하였다. 이에 1990년대 등장한 불교여성주의는, 교리가 성평등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가부장성에 오염된 교단의 법·제도로 인해 교단 내 성차별이 가속화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여성이 억압받고 있는 현실에 대한 자각과 함께 이러한 억압이 사회적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변화 가능함을 인식하고, 불교 사상을 기반으로 여성해방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온 생명의 존귀함과 평등을 성취하기 위한 실천이론”으로 불교여성주의를 주장한다.⁸³⁾

불교여성주의자들은 불교가 남성의 지배와 억압에 대항하는 여성의 투쟁이라는 이념적 경직성을 극복하는, 성평등을 넘어 인간평등, 생명평등의 이론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⁸⁴⁾ 하지만 붓다 사후 가부장적 가치관을 가진 남성에 의해 기록되고, 암송되고, 전승되면서 젠더 위계적인 교리가 첨부되고, 뛰어난 여성들이 삭제되거나 왜곡되면서 오늘날까지 여성 차별·무시·배제·억압이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⁸⁵⁾ 그러므로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경전을 재해석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과제임을 주장한다.

하지만 기성종교에서는 가부장성에 대한 극복보다는 인간해방을 강조하면서, 여성의 문제를 드러내기보다는 이를 사소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인간 구원의 문제로 몰성화(gender-blinded)함으로써 현실의 성별 위계나 여성억압에 대한 여성의 의식화를 방해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성평등한 종교로의 변혁은 현실에서는 매우 복합적이고 어려운 문제이다.

2) 불교의 섹슈얼리티: 여성은 유혹자인가?

경전에는 악마 마라가 붓다의 수행을 방해하기 위해 아름다운 세 딸들을 보내 유혹하는 내용

81) 옥복연(2015), 「붓다의 십대 재가여성제자에 대한 불교여성주의적 분석」, *한국불교학* 74집 참고.

82) 전재성(2009), 『맛지마니까야』, 한국빠알리성전협회, pp. 1042-1055

83) 옥복연(2013), *한국불교 조계종단 종법의 성차별성에 관한 여성주의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 과정 여성학전공 박사논문

84) Gross, Rita M.(1993), *Buddhism after Patriarchy: A Feminist History, Analysis, and Reconstruction of Buddhism*,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pp. 127-134.

85) Faure, Bernard(2003), *The Power of Denial: Buddhism, Purity, and Gender*,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p. 129.

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 봇다는 그의 제자들에게 “나는 옛날 깨달음을 얻기 이전에 갈애와 혐오와 애욕의 세 ‘마녀’를 보고서도 그녀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욕망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했다.⁸⁶⁾ 봇다를 유혹하는 세 마녀는 불교에서 극복해야 할 장애인 갈애. 혐오. 애욕의 상징인 것이다. 하지만 ‘딸들’이라는 ‘기표’는 여성-유혹자, 깨달음을 방해하는 자, 악마라는 ‘기의’를 가진 채 불교에서 유통되고 있다. 즉 여성은 남성수행자를 방해하는 유혹자라는 것이다. 불교에서 금욕이 깨달음의 절대적인 전제조건은 아니다. 재가불자들 가운데도 해탈에 이른 사례들이 있는데, 봇다께서는 성욕을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로 인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봇다는 성욕 그 자체는 죄악이 아니지만 해탈이라는 이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 억제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불교에서는 출가자라 할지라도 출가 이전의 성적 경험 여부를 중시하지 않지만 출가 후에는 반드시 금욕할 것을 강조한다. 특히 수행공동체에서 금욕은 단순히 조직의 기강을 위한 규범 체계나 윤리 조항이 아니라, 수행을 방해하며 고통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

출가자에게만 적용되는 계율에서 금욕은 출가자 모두가 지켜야 할 첫 번째 계율이며, 이를 위반한 자는 승가로부터 추방된다. 봇다는 성욕을 억제하는 것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비구제자들에게 감각적인 욕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여성을 멀리할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독신 남성들이 성적 욕구를 조절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여성을 부정한 존재로 재현하기도 하는데, 여성이 유혹자로 재현되는 방식은 출가자가 수행중이라는 상황적 맥락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것이 성별 위계 속에서 여성혐오(misogyny)로 발전하기도 하므로, 경전에서 여성이 등장할 때는 그 맥락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봇다는 여성은 몰성적인(gender-blinded) 존재가 아니라, 남성과 동일하게 성적 존재임을 제시하고 있는데, 남성에게는 여성인, 여성에게는 남성이 가장 유혹적인 존재가 된다. 남성 출가자의 마음을 가장 사로잡는 것이 여성이며, 여성출가자의 마음을 가장 사로잡는 것은 남성이 된다. 예를 들면, 『앙굿따라니까야』IV의 「여자의 경」⁸⁷⁾에서 봇다는 제자 아난다에게 출가비구라면 여성을 멀리해야 함을 다음과 같이 가르친다.

“아난다여, 나는 여자 이상으로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어떤 것도 알지 못한다. 어떤 소리나 냄새도, 맛도, 감촉도, 여자와 관계된 것 이상으로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없으리라. 이게 곧 남자가 느끼는 여자의 매력이며…….”
(『앙굿따라니까야』IV: 324)

또한 봇다는 동일한 경전에서 비구니의 마음을 가장 사로잡는 것이 남성이므로, 출가비구니라면 남성을 멀리할 것을 가르친다,

“마찬가지로 아난다여, 남자 이상으로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도 나는 생각할 수 없다. 어떤 소리나 냄새도, 맛도, 감촉도 남자와 관계된 것 이상으로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없으리라. 이게 곧 여자가 느끼는 남자의 매력이며...”
(『앙굿따라니까야』IV: 326)

86)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부처님생애편찬위원회(2010).『부처님의 생애』 조계종출판사, pp. 100-104.

87) 전재성(2007).『앙굿따라니까야』IV, 한국빠알리성전협회, pp. 324.

여성이 남성에게 위험한 존재라면 남성 또한 여성에게 위험한 존재이며, 여성이 유혹자라면 남성 또한 유혹자인 것이다. 하지만 남성 유혹자는 빠지고 여성 유혹자 레토릭만 남아서 여성 을 억압하는 기재로 전락한다.

그런데 섹슈얼리티와 관련한 계율에는 비구니가 비구보다 더 많은 계율을 적용받고 있다. 예를 들어 비구는 4바라이⁸⁸⁾가 있지만 비구니는 8바라이가 적용된다. 이처럼 계율은 비구니의 섹슈얼리티를 더욱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교단 내에서의 원인을 살펴보면, 비구승단이 비구니승단보다 먼저 성립되어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⁸⁹⁾, 남녀 신체 구조적인 차이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고, 당시 성차별적인 인도사회에서 승단 내 여성은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윤리적 원칙이 더욱 필요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계율 암송과 전승의 주체였던 비구가 비구니의 섹슈얼리티를 더욱 엄격하게 규율하는 등 계율조차 젠더화 되었다고 짐작할 수 있다.

붓다는 출가자에게는 금욕을 강조했지만 재가자에게는,

“순결하지 못한 행위를 삼가라,
만약 순결할 수 없다면 남의 아내를 범해서는 안된다.
순결하지 못한 성적 교섭을 떠나라.”(『숫타니파타』: 244-245)⁹⁰⁾

며 순결한 성관계를 중시했다. 인간은 누구나 성적 욕구가 있지만, 재가남녀 모두 성적 욕구를 조절하며 상대방에게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친다. 하지만 여성만이 성적 욕구를 억제하지 못하고, 남성을 유혹하여 파멸로 이끄는 존재로 묘사되는 것은 인도 마누법전의 ‘계집은 본래가 악성이다’라는 여성관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독신비구의 금욕과 재가자의 순결한 성관계를 강조한 붓다의 가르침은 가부장제하 이중적인 성규범의 고착화로 인해 여성은 유혹자로 전락시켰고, 여성의 섹슈얼리티 통제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장치가 되었다.

3) ‘불사음(不邪淫)’에 대한 경전적 해석

‘사음(邪淫)’은 그릇된 성행위를 말하는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붓다는 성욕을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로 인정하므로, 금욕이 깨달음의 절대적인 전제조건으로 주장하지 않는다. 불교신자라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오계 가운데 “불사음계”는 성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나눔에 잘못된 행위를 하지 말 것’을 가르친다. 출가자에게 철저한 금욕을, 재가자에게 청정한 성관계를 강조했다.

출가자는 물론 재가자가 지켜야 하는 오계(五戒)가 있는데, 다음과 같다.

88) ‘바라이’라는 말은 ‘패배’를 뜻하고 비구나 비구니가 이 계를 어겼다는 말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번뇌에 패배했다는 말이다. 일단 이 계를 어기면 그 사람은 승가에서 쫓겨나는 무거운 죄이다.

89) Shaw, Miranda(1994), *Passionate Enlightenment*,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Siramane, Yukie Ramona(2007), 최원섭 옮김. 금욕으로 깨달음을 얻는가.『불교평론』32, pp.341-377.

90) 전재성(2008).『숫타니파타』 한국빠알리성전협회, pp. 244-245.

1. 불살생(不殺生): 살아 있는 것을 죽이지 않는다.
2. 불투도(不偷盜): 도둑질하지 않는다.
3. 불사음(不邪淫): 아내 외의 여성, 남편 외의 남성과 부정한 성관계를 갖지 않는다.
4. 불망어(不妄語):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5. 불음주(不飲酒): 술을 마시지 않는다

이 오계 가운데 불사음(不邪淫)계가 있기 때문에 이는 불자라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성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출가자에게는 오계 가운데 살생, 투도, 음행, 망어는 출가자의 자격을 박탈당하고 승단에서 쫓겨나는 큰 죄이다. 이러한 잘못은 참회를 해도 용서받을 수 없으므로 출가자에게 사음이란 어떤 이유로건 금지된다.

재가자에게는 ‘불사음’은 출가자와 달리 순결이나 금욕을 요구하지 않지만, 사랑을 나눔에 있어 그 대상이 반드시 합법적이어야 함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 즉, 초기경전인 『맛지마니까야』의 <쌀라 마을 장자들에 대한 경>에서

“사랑을 나눔에 잘못된 행위를 떠나고 사랑을 나눔에 잘못된 행위를 삼갑니다. 어머니의 보호를 받고 있고, 아버지의 보호를 받고 있고, 부모의 보호를 받고 있고, 형제의 보호를 받고 있고, 자매의 보호를 받고 있고, 친족의 보호를 받고 있거나, 이미 혼인했거나, 주인이 있거나, 법의 보호를 받거나, 심지어 약혼의 표시로 꽃다발을 썼거나 한 여인과 관계하지 않습니다.”(p. 512)

『대지도론』 제 13권에서는 성적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위의 경우를 포함하여 더욱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즉,

“힘이나 재물로써 범하거나 혹은 속여 유혹하거나, 혹은 자신의 아내일지라도 계를 받았거나, 임신을 했거나, 아기에게 젖먹일 때나, 제 길이 아닌 곳[非道]을 범하는 등 이와 같은 것을 일컬어 샷된 음행이라 한다. 마찬가지로 갖가지 물건과 나아가서는 꽃다리를 음녀에게 주면서 원하니, 이와 같이 범하는 것을 일컬어 샷된 음행이라 하며, 이처럼 갖가지를 범하지 않는다면 불사음(不邪淫)이라 한다.”⁹¹⁾

『대지도론』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음(邪淫)’은 오늘날의 성범죄와도 매우 유사하다. 즉, ‘힘이나 재물로 속이고 유혹하여 범하는 것’은 오늘날의 ‘성폭력’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성행위, 즉 성희롱, 성추행(강제추행), 성폭행(강간) 등 성에 관련한 범죄 전반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결혼한 부부일지라도 ‘아내가 임신했을 때, 아기에게 젖먹일 때, 혹은 정상적이지 않은 곳에 강제로 범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사회의 ‘부부강간’과도 유사하다. 당시 인도사회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며 자녀를 낳는 도구에 불과했지만, 봇다는 부부사이라 할지라도 강제적으로 범하는 것을 샷된 음행으로 규정했다. 봇다가 얼마나 여성인권에 대해 높은 감수성을 요구했는가를 알 수 있다.

‘윤락여성에게 물건이나 꽃과 같은 것을 선물하면서 범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의

91) 용수지음, 석법성·구마라집 옮김(2016), 『대지도론(大智度論)』, 운주사, p. 519-520

‘성매매’를 의미한다. 봇다는 이처럼 어떤 물적 대가를 지불하고 성관계를 하는 것을 삿된 음행이라며 금지하고 있다.

4) ‘사음(邪淫)’에 대한 결과

이러한 계율에도 불구하고 “사음”을 하면 어떻게 될까? “사음”的 결과 부부사이가 나빠지고, 선한 성품이 줄어들고, 사람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재산이 줄어들며, 다음 생에 자신도 동일한 업보를 받는다고 한다. 또한 부인을 혼자 두어 외롭게 만들어 부부사이에 신뢰가 사라지고 가정 파탄은 물론, 친척들로부터 배척당한다고 한다. 2,600여 년 전 봇다는 이처럼 성매매나 성폭력, 성폭력 등은 한 개인의 삶은 물론 가정을 철저하게 파멸로 이끄는 행위이므로 엄격하게 금지했다.

또한 『숫타니파타』의 <파멸의 경>에서는 사음의 위험성을 설명하기를,

“여색에 미치고 술에 중독되고 도박에 빠져있어,
버는 것마다 없애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파멸의 문입니다.
자기 아내로 만족하지 않고, 매춘부와 놀아나고,
남의 아내와 어울린다면, 그것이야말로 파멸의 문입니다.”⁹²⁾

고 말한다. 또한 동일한 경전에서

“때로는 폭력을 가지고,
혹은 서로 사랑에 빠져
친지나 친구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십시오.”⁹³⁾

라고 표현하고 있다. 폭력을 행사하거나, 부적절한 상대와 사랑을 나누는 행위는 파멸의 문이며,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천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비구와 비구니가 출가 생활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모은 ‘율장’에는 성규범과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지켜야 할 규칙이 제시되어 있다. 그 중에 성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바라이: 출가자가 승단에서 추방되는 규정, 승잔: 일정기간 참회하고 자격이 정지되는 규정. 부정: 비구가 여성과 함께 있을 때의 규정, 비구니에게는 없음. 바일제: 생활 규범 등 언행과 관련된 규정 등이 있다. 출가자에게 가장 무거운 죄는 바라이죄로, ‘바라이’란 ‘패배’를 뜻한다. 외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패배하다는 뜻인데, 바라이죄에 해당되면 승단에서 쫓겨나며 다시는 출가를 할 수 없는 큰 벌을 받는다.

바라이죄는 봇다 제세시 수딘나비구가 후사를 잊게 해달라는 어머니의 간청에 못 이겨 아내와 성관계를 한 것에서 시작되었는데, 이 소식을 들은 봇다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그대의 성기를 여인에게 집어넣느니보다는 차라리 무시무시하고

92) 전재성(2008), Ibid, p. 120-121

93) 전재성(2008), Ibid, 126

독을 품은 뱀 아가리 속에 집어넣는 것이 나았을 것이오.

어리석은 사람아! 그대의 성기를 여인에게 집어넣느니보다는 차라리 흑사(黑蛇) 아가리 속에 집어넣는 것이 나았을 것이오.

어리석은 사람아! 그대의 성기를 여인에게 집어넣느니보다는 차라리 활활 타오르는 숯 구덩이에 집어넣는 것이 나았을 것이오. 어떻게 해서 이 일이 일어나게 되었소?”

이처럼 봇다는 출가자의 성적 행위를 엄격하게 꾸짖으며 “어떤 비구라도 성행위를 하면 바라 이죄가 되어 함께 승단에 머물 수 없다.”는 계율을 제정했다. 결국 수딘나는 이 사건으로 승 단에서 추방되었는데, 처음으로 만들어진 계율이 ‘승단 추방죄(바라이)’였음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한국불교의 최대 종단이라고 할 수 있는 조계종단은 종헌과 종법으로 출가자를 규율하는데, 특히 출가자의 성관계는 격하게 금한다. 종헌에서 ‘승려’의 자격으로는 실질적으로 사찰에 독신 상주하며, 가족부양의 책임을 가지지 아니하며, 범속인과 같은 일상생활을 하지 아니할 자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⁹⁴⁾ 즉 ‘출가독신자’로 한정하기 때문에(종헌 9조), 출가자의 어떠한 성적 행위도 금지된다.

‘사음’을 범한 출가자는 종단 차원에서 구성된 징계관련 사정기구인 ‘호법부(사회의 ’검찰‘과 유사한 부서)’나 ‘호계원(사회의 ’법원‘과 유사한 부서)’의 조사 및 절차를 거쳐 처벌받는다. 종헌종법에 의하면, 출가자의 각종 계율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다.

- 멸빈(승적 박탈하고 사찰에서 산문 출송),
- 제적(승적에서 제외, 참회 근신 등 종법에 의하여 복적 가능),
- 법계 강급(현재의 법계에서 1급 이상 강급),
- 공권정지(일체의 공직 취임 불가, 최하 3개월부터 최고 10년),
- 면직(현 공직에서 해임),
- 변상(재산 손실에 해당),
- 문서견책

만약 출가자가 어떠한 이유로건 성관계를 했을 경우에는 멸빈에 처하게 되는데, 최근 조계종 단 내에서도 큰 사찰의 주지나 명망있는 출가자들 사이에서 ‘은처’(숨겨진 부인)라는 말이 공 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것은 서글픈 현실이다.

3. 성/폭력에 “정의로운 분노”를 해야 하는 교리적 근거

(1) 불교는 지금 여기에서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종교이다.

불교는 ‘고(苦)’를 강조하기보다는 행복을 추구하는 종교이다. 미래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남이 아니라 ‘나’를 중시한다. 왜냐면 불교에서 선업(善業)이란 나도 좋고 남도 좋고 나와 남이 좋은 행위를 말하고, 악업(惡業)은 나도 나쁘고 남도 나쁘고 나와 남도 나쁜 행위를 말한다. 즉, 모든 것이 ‘나’의 행복에서 출발해서, 이고득락(離苦得樂)- 고통을 여의고 즐거움을 얻기 위한 것- 을 얻는 것이 목적이다.

94) 대한불교조계종 종헌 종법과 관련해서는 다음 책을 참고하기 바란다.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2000).『대한불교조계종 종헌의 이해』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사무처.

(2) 교단에서 잘못된 행동은 스스로 인정하고 참회하도록 한다.

붓다는 수행승 가운데 잘못을 저질렀다는 말을 전해 들으면 비구승가를 소집하고, 반드시 잘못을 저지른 수행승을 불러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안거가 끝난 후에 서로 죄를 고백하는 자자(自恣)를 강조했고, 언제든지 스스로 “보고, 듣고, 의심난 것”(三事; 見.聞.疑)에 잘못이 있다면 다른 비구를 찾아가서 참회할 것을 가르쳤다. 이는 작은 허물에서도 두려움을 알게 하고 그 결과 청정한 생활을 강조했다.

(3) 잘못된 행동은 잘못되었다고 말해야 한다.

붓다는 『맛지마니까야』의 <평화에 대한 분석의 경>에서 “저속하고 비속하고 거칠고 천박하고 무익한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과 관계된 즐거움에서 오는 쾌락을 추구하는 자라면, 누구나 고통을 수반하고 상처를 수반하고 불안을 수반하고 고뇌를 수반하는 것으로 잘못된 길이라고 말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성범죄와 관련되어 가해자가 자신이 행한 것이 성범죄인 줄 모르고 잘못을 저지를 경우에는 이를 알려줘야 하고, 성범죄 피해자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는가를 알려줘서 반드시 사죄하고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4)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알아야 한다.

붓다는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아는 것은 혼탁하고 부패한 이 세상을 더 이상 썩지 않게 만드는 품성으로, 이는 세상을 지키는 감시자들 혹은 수호자들이라고 까지 말씀하셨다. 수행자가 되고 성직자가 되는 가장 첫 번째 원리가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갖추는 것이다. 계율을 지키지 않고서도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모르는 출가자라면 그는 아집과 독선이 가득차서 인간으로도 존중받을 가치도 없다.

(5)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앙굿다라니까야』의 <잡초의 경>에는, 잘못을 저지른 수행승을 꾸짖었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참회하지 않는 수행승에게 붓다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수행승들이여, 이 사람을 쫓아내라.
수행승들이여, 이 사람을 쫓아내라.
수행승들이여, 이 사람을 멀리해라.
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가?”

이처럼 붓다는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지 않는 수행자는 쫓아내고 멀리하라고 가르친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공동체를 더럽히는 자이므로 쌀겨를 날려버리듯, 잡초를 뽑아버리듯 밖으로 내쫓아야 한다고 단호하게 가르친다.

6) 불자라면 잘못된 행위에 “정의로운 분노”를 해야 한다.

미투운동과 관련하여 어떤 사람은 진정한 불자라면 가해자를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은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악업을 중단시키는 역할도 하며, 타인에게도 교육이 될 수 있으며, 공동체가 안전하게 유지되게 한다. 『숫타니빠따』에 <정의로운 삶의 경>은 정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친다.

“마치 똥구덩이가 세월이 지나면 똥으로 가득 차듯,
부정한 자는 참으로 깨끗해지기 어렵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은 자는, 실제로는 세속에 묶여,
악을 원하고 악한 의도를 갖고 있는 자로서,
수행의 초원에서 악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라.”

그대들은 화합해서 그러한 사람을 물리치고,
쌀겨처럼 그를 키질하여 쓰레기처럼 날려 버려라.
그리하여 수행자가 아니면서 수행자인 체하는 악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수행의 초원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 그 쌀겨들을 날려 버려라.”⁹⁵⁾

수행자가 아니면서 수행자인 척 하는 자, 악한 욕망에 사로잡혀 악을 행하는 부정한 자에 대해 붓다는 “정의로운 분노”를 허용한다. 이는 승가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적용되는 원리로, 성폭력과 같은 잘못을 범한 사람에 대해 우리는 “정의로운 분노”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이 붓다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다.

4. 불교계 성폭력예방을 위한 대안 모색

최근 쏟아져 나오는 각계의 미투운동에도 불구하고 불교계가 조용한 것은, 성범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피해를 당하고도 여전히 ‘말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이다. 즉, 불교는 피해자가 ‘말하기’ 조차 어려울 정도로 억압적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불교계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안에서 피해자의 정신적인 상태를 문제시하거나, 거칠게 거부하지 않았다고 비난하거나, 자발적이었다고 의심하거나, 왜 이제 와서 과거를 끄집어내어 존경받는 큰스님을 곤경에 빠뜨리느냐며 반발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피해자들이 그동안의 침묵에서 벗어나 자기 목소리로 자신의 피해 사실을 말할 수 있도록 안전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왜 그동안 여성들의 고통이 드러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분석하고, 여성 불자들에게 희생과 봉사만을 강요해 온 현실을 드러내고 피해자를 지원해야 한다.

교단의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종단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종단은 문중이니 파별이니 실세니 이러한 종단정치 논리가 아니라, 성범죄에 대해 일별 백계의 원칙을 세우고 처벌을 강화하고, 성범죄에 연루된 출가자는 일체의 공직을 맡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종단내 성폭력사건 발생시 대응 매뉴얼을 준비하고, 피해자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종단이 성평등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성인지적 관점의 엄정한 조사 절차를 마련해야 하고, 성평등 및 성폭력예방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 그리고 불교 지도

95) 한국빠알리성전협회(2007), 『숫타니파타』, ‘정의로운 삶의 경’, p. 197.

자인 출가자대상 성인지교육을 필수과목으로 이수하도록 해야 하며, 성평등을 종단 정책의 기본적인 가치 체계로 수용하여 성평등관련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최근 한국천주교주교회는 신부의 성폭력 사건을 사죄하며 ‘교회 내 성폭력 방지 특별위원회’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래도 반가운 일이다. 불교계는 지난 2017년 교계 11개 단체가 성평등을 주창하며 설립된 ‘성평등불교연대’가 제 35대 총무원장선거를 앞두고 종책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33대와 34대 선거에서처럼, 그 내용 가운데는 종단이 앞장서서 “가칭)성평등위원회”를 운영할 것과 여러 법·제도적 제안들을 했다. 하지만 종단은 지속적인 여성단체들의 제안에 아무런 반응도 없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그리고 종단 내 성범죄가 ‘여성문제’뿐만 아니라 ‘남성문제’임을 인식하고, 남성(출가비구는 물론 남성불자들도)의 인식 변화를 위한 장기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여성신자는 물론 남성신자들은 교단 내 성폭력에 대해 동조자 혹은 방관자가 아니었는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불자라면 당연히 젠더감수성, 인권감수성을 불성佛性으로 연결하여 이를 체현해야 하며, 혹시 모임 등에서 성희롱 발언을 못들은 척 한 것은 아닌지, 성추행을 장난이나 놀이로 한 것은 아닌지, 여성 비하 발언을 재미있다며 유포한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

또한 개별 종교, 혹은 개별 교단뿐만 아니라, 종교여성들의 모임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대하고 지지해야 한다. 종교 내 성폭력의 유형을 보면, 공통적인 부분들이 무척 많다. 성직자/남성/연장자/직장상사인 가해자와 신도/여성/연하/직원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역학관계에서 피해 유형이나 대응 방식, 그리고 가해자의 주장과 피해자가 처한 위치가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현실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이러한 종교 내 허구를 밝히는 과정에서 내부인만으로 대응하기에 한계에 부딪힐 때도 있다. 그러므로 해당 종교 외부에서 여성종교인들이 함께 지지하고 정보를 교류하며 법적 대응 등에 목소리를 내고 연대할 수 있다.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보는 잘못된 성인식,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겪는 고통과 불이익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하는 가톨릭 지도자의 주장처럼⁹⁶⁾, 성평등은 불교 발전의 아젠다임을 종단은 자각하고 종단 차원에서의 노력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낮은 성인권 의식은 언제든지 성범죄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불교계에서 성평등한 종단 문화를 구축하는 것은 종단 발전은 물론 불법 수호의 필수 조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여성을 배제하고 억압하려는 자, 우리는 이들을 ‘마라(Mara, 악마)’라고 부르자. 그리고 불교계 미투운동으로 마라가 가장 두려워하는, 깨어있는 불자가 되어야겠다.

96) “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 ‘한국교회 내 성폭력 방지 특별위원회 설립 관련’”, 가톨릭신문 2018.03.18

교회 내 그루밍 성범죄의 원인 분석과 대응 방안 모색

-의식 변화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채수지

(한국여신학자협의회 부설 기독교여성상담소 소장)

I. 서론

최근 인천 모 교회 담임목사의 아들 김모 목사가 전도사 시절부터 지난 10년간 10-20대 여성 신도들을 대상으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우리 사회가 떠들썩했다. 최소 26명에 달하는 피해자들 대부분이 미성년 시기에 피해를 당했다.

교회 내에서는 10대의 미성년 여성들만 그루밍 성폭력의 타겟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성인 여성, 심지어 엘리트 여성들도 그루밍 성폭력을 당할 수 있다. 또한 심리적 취약점이라기보다 타인에게 감정이입을 잘하는 성격적 장점을 가진 여성도 때로는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흔히 목회자의 ‘불륜’이라고 알려지는 사건들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그루밍 성폭력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 사회의 법체제는 성폭력 가해자가 사랑했다고 하면 동의가 어떤 조건에서 이루어졌는지는 따져보지 않은 채 무죄를 선언하는 등, 아직 그루밍 성범죄를 다룰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는 점이 가해자에게 면죄부로 작용하고 있다. 그나마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목회자의 그루밍 성범죄는 사회적 공분을 자아내고 있으나 피해자가 성인 여성인 경우 그루밍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을 향해 “피해 망상 있는 거 아닌가.” 또는 “동일하게 처벌받아야 한다.”, “좋아할 때는 언제고 왜 이제 와서 성폭력이라고 주장하는가.” 등, 비난의 화살이 쏟아진다.

교회 내 그루밍 성범죄 사건은 종교의 특성과 교회의 구조, 사회의 성문화, 인간 내면 심리가 어우러져 발생하는 복합적 현상이므로 매우 풀기 어렵게 꼬인 문제처럼 보여진다. 필자는 이 글에서 교회 내 그루밍 성범죄가 일어나게 되는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배경 및 그에 따른 개인의 심리 내적 역동을 살펴봄으로써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와 그 구성원들이 나아갈 방향을 의식 변화의 측면에서 모색해보고자 한다.

II. 교회 내 그루밍 성범죄란 무엇인가?

1. 교회 내 그루밍 성범죄란

그루밍 성범죄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뜻한다. 보통 어린이나 청소년 등 미성년자를 정신적으로 길들인 뒤 이뤄지는데, 그루밍 성폭력 피해자들은 피해 당시에는 자신이 성범죄의 대상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⁹⁷⁾ 우리 나라에서는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고 관련법이나 판례도 확실하게 있지 않다. 가해자 처벌 역시 피해자가 곁으로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기 때문에 진정한 의사에 반한 성관계의 강제성을 입증해야 가능해서 여러모로 법적 쟁점이 되고 있다. 그루밍 성범죄가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 8월,

97) 그루밍 성범죄, 네이버 지식백과, Retrieved from <https://naver.me/GacSkkFd>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혐의 1심 재판이다. 1심 재판부는 “그루밍은 주로 아동, 청소년 혹은 성적 주체성이 미숙한 대상이 그루밍의 대상”이라는 조건을 달아 그루밍이 성인 여성에게 적용될 수 없는 개념임을 명시했다. 하지만 우리 나라 형법에서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성적 동의 연령을 만 13세 이상으로 보기 때문에 성인은 고사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그루밍 성범죄 가해자의 처벌 가능성도 매우 희박하다.

교회 내 목회자에 의한 그루밍 성범죄는 가해자와 교회에 의해 피해자가 먼저 다가왔다는 식으로 해석이 되고 소문나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인 경우에는 그럴싸한 ‘불륜’ 이야기로 알려진다. 이는 가해자가 자신의 범죄 책임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의 ‘유혹’에 넘어간 듯 그 책임을 덮어씌우고, 교회는 가해자의 편에 서서 성폭력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환원시켜 은폐하려는 전형적인 가해자 중심의 대응 방법이다. “왜 따라갔지?”, “왜 남성 목회자를 집에 들였을까?”, “왜 똑똑한 여성이 그 상황에서 어리숙하게 행동했을까?” 등, 피해자를 둘러싼 풀리지 않는 의문들은 마치 피해자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건이었던 것처럼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성인이라 할지라도 목회자에 의해 성폭력이 자행되었다면, 다수의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의존되어 그의 심리적·영적 영향력에 노출되고 지배당하는 교회 분위기의 특성상 일단 그루밍 성범죄라고 전제해야 한다.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를 ‘하느님’이라고 생각 하던 피해자들은 성인이었지만 그의 전화를 받고 아무 의심없이 그의 거처로 갈 정도로 그의 영향력에 지배를 받았다. 교회가 목사를 신격화 할수록 피해자들은 맹목적으로 순종하게 되고 이미 심리적으로 불평등한 관계에서 시작된 성적 관계는 피해자를 더더욱 고립시키며 가해자의 말을 들을 수 밖에 없도록 조종한다.

2. 교회 내 그루밍 성범죄의 6단계

1) 피해자 고르기

가해자는 대체로 심리적으로 취약하고 의존할 대상이 필요한 성도를 고른다. 성적 경험이나 지식이 거의 없는 미성년 여성 또는 갓 성인이 된 20대 초반 여성의 타겟이 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 피해 당시 그들은 ‘왕따’를 당했다거나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성인 여성들도 타겟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거나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기억 또는 과도한 그리움이 있는 여성들, 남편과 별거 또는 이혼한 여성들이 주로 피해를 입었다. 남편 또는 남자 친구와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도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었다. 보편적으로 가해자는 피해자가 가장 힘들고 소외된 상황에서 극도로 취약해졌을 때를 포착하여 접근한다.

2) 피해자의 신뢰 얻기

가해자는 예배, 성경공부, 상담 등을 통하여 피해자와 정기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신뢰를 쌓아간다. 신실한 ‘주의 종’의 책무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다가오고 목회적 돌봄을 행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마음을 터놓게 한다. 교회에서는 이미 목회자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신뢰가 전제되어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별도의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신뢰는 얻어진다.

3) 피해자의 욕구 채워주기

피해자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파악하는 가해자는 ‘아버지’ 역할을 자처하면서 피해자의 결핍된 욕구를 채워준다. 피해자는 목회자가 자신과 같은 ‘보잘 것 없는 사람’을 특별히 생각하고 있음에 감사하면서 그의 인정을 받는 것에 큰 기쁨을 느끼기도

한다. 자신이 원하는 ‘이상적인 아버지’를 찾은 피해자는 가해자를 ‘구원자’처럼 생각하고 그에게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기대하게 된다.

4) 피해자 고립시키기

가해자는 자신의 현재 결혼 생활이 매우 불행하다느니, 어렸을 때 성적 학대를 받은 적이 있다느니 하면서 자신의 사생활이나 은밀한 이야기를 피해자에게 털어놓음으로써 둘만의 비밀을 만든다. 또는 주변 사람들의 흥을 보면서 둘의 관계가 돈독함을 확인한다. 피해자의 남자 친구나 남편이 있다면 그에 대한 험담을 함으로써 그와 피해자 사이를 갈라놓으려 하고 여러 명의 피해자와 동시에 발적으로 성적인 관계를 맺는 가해자는 피해자들 각각에게 서로에 대한 험담을 하여 의혹을 일축시키고 자신을 믿을 것을 종용하기도 한다.

5) 관계를 성적으로 만들기

가해자의 “사랑한다.”, “결혼하자.”는 말과 함께 시작되는 성적 접촉은 그동안 맺어온 친밀한 관계 위에서 자행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저항하기 쉽지 않을뿐더러 가해자의 거짓말에 의해 사랑으로 포장되어 피해자는 성적 착취를 사랑의 표현이라고 믿게 된다. 가해자는 “아내와 헤어지고 너와 결혼하겠다.”, “너는 두 번째 아내 라헬이다.”, “스승과 제자를 뛰어넘는 사이니 괜찮다.” 등의 말로 성관계를 합리화한다.

6) 통제 유지하기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는 이러한 관계에 의구심이 생기고 저항하게 되는데 가해자는 이를 막으려 피해자를 세뇌하고 회유, 협박한다. 이 단계에서는 가해자가 적극적으로 ‘하느님’과 ‘성경 말씀’ 등을 오용함으로써 성적 착취를 정당화하고 지속하게 된다. 예를 들어, “사역에 네가 꼭 필요하다.”, “성경을 다 찾아봐도 처녀와 유부남의 성관계는 간음이 아니다.”, “흔전 순결이 시대적 배경에 따라 달라진 것이다.”, “하느님은 우리가 사랑하기를 바라신다.”, “너랑 나랑 이렇게 하는 것은 하느님이 기뻐하신다.”, “잠잠히 기도하라.” 등의 말이다. 이 단계에서는 피해자가 아무리 거세게 저항하며 가해자와 언쟁을 벌이더라도 이미 가해자의 영향력에 압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가해자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느낀다. 피해자는 사랑이라는 이름의 포로가 되어 속박 속에서 자신의 신념 체계를 점차 잃어간다. 피해자는 점점 가해자와 공감하고 가해자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된다.

일단 그루밍에 걸려들면 4, 5, 6단계가 반복적으로 재연되며 피해자가 저항을 하면 할수록 더 강한 고립과 성폭력, 억압과 세뇌를 당하게 된다. 피해자는 고립되어 가면서 두려움이 커질수록, 오직 하나의 허용된 관계에 더욱 매달리게 되는데 가해자와의 관계가 그것이다. 다른 사람과 연결될 수 없는 까닭에, 피해자는 가해자에게서 인간성을 찾으려고 애쓰게 되면서⁹⁸⁾ 점점 기계화⁹⁹⁾되어가는 자신을 발견한다.

98) 주디스 허먼, 『트라우마』, 최현정 옮김, 열린책들, 2012, p. 145.

99) 헐로코스트 생존자들과 일하는 정신의학자인 헨리 크리스탈(Henry Krystal)은 포로들이 극단의 속박 속에서 ‘파멸’해가는 첫 번째 단계를 ‘기계화(robotization)라고 설명한다. 피해자가 생존을 위하여 내적 자율성과 세계관, 도덕 원칙, 혹은 다른 사람과의 연결을 포기하는 단계에서 삶이 인간이 아닌 다른 무엇의 삶으로 격하되는 과정이다. 러블레이스는 성매매와 포르노 영화 출연을 강요받으면서 이렇게 격하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증언한다. “처음에는 신이 탈출을 도와줄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믿음이 흔들렸다. 나는 더욱더 두려워졌고, 모든 것이 무서웠다. 탈출을 시도한다는 생각 자체가 무시무시한 것이었다. 나는 모든 방면에서 전락되었고, 모든 존엄이 벗겨졌으며, 동물로, 그 다음에는 식물로 강등되었다. 내가 가졌던 그 어떤 힘도 사라져 갔다. 오로지 생존하는 것만이 전부가 되었다. 내일을 살아내는 것이 곧 승리였다.” 심리적으로 격하된 이러한 상태는 충분히 돌이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두 번째 단계, 즉 사람이 무너져 버리고 마는 돌이킬 수 없는 단계는 피해자가 살고자 하는 의지를 잃게 되었을 때 찾아온다. 위의 책, pp. 150-152.

3. 교회 내 그루밍 성범죄의 후유증, 관계 딜레마

그루밍 성폭력은 친밀한 관계에서 은밀하고 만성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다른 대인 간의 폭력보다 더 심각한 심리적인 외상을 남긴다. 피해자는 성폭력을 당하면서도 인지를 못해 피해 기간이 길어지고 인지했을 때도 가해자가 회유를 하며 피해자의 입을 막는 그루밍의 전 과정에서 몸과 영혼에 심각한 상처를 입는다. 상담소에 접수된 그루밍 성범죄 피해자들은 “몇십년 동안 몸을 못 움직였다.”, “남자 관계가 꼬여 이혼과 불륜으로 힘든 삶을 살았다.”, “공황장애와 마비, 실신으로 갑자기 쓰러지곤 했다.”, “작업 능률이 안 오르고 혼자 화가 나다가 멍해진다.”는 등, 다양한 후유증을 호소했다. 피해 당시의 연령대가 낫을수록, 트라우마는 성격 구조로 굳어지고 치료 예후가 낙관적이지 않다. 사랑이 성애화로 대체된 결과로 인한 혼란, 그리고 방향 감각 상실은 피해자들 내면에서 현실 검증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을 만들어 세상과 사람들, 그리고 하느님과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게 한다. 피해자들이 외상 후 겪게 되는 관계 딜레마의 4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피해자-가해자 경험의 끝없는 반복

피해자들은 모든 관계에서 학대 패턴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다시 타인에 의해 고통을 받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남을 괴롭힌다. 심각한 외상을 겪은 그들은 타인들과 관계를 맺는 다른 방식이나 수단을 상실했다.

2) 공격자와의 동일시

피해자가 되거나 아니면 가해자가 되어야 하는 희망 없는 딜레마는 ‘공격자와의 동일시’라는 심리적 문제들을 만들어낸다. 엄청난 취약성의 감각에 괴로워하면서, 피해자는 공포나 약함이라는 느낌에 대한 내적인 해독제로써 공격자와의 동일시를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공격자와 동일시를 할 때, 그는 그가 가해자에게 느끼는 모든 분노와 심판을 자신에게 퍼부어야만 한다. 피해자는 반복적으로 취약함에서 죄책감으로 움직인다.

3) 도착적인 대상 접촉

자신의 관계 욕구들을 성적인 도착이나 공격적인 방식으로 충족시키는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만성적으로 학대받을 때, 피해자는 관계를 맺는 유일한 방식이 오직 폭력, 성, 또는 그 둘의 혼합일 뿐이라고 쉽게 믿을 수 있다. 자신의 친화 욕구들(affiliative desires)은 결론적으로 도착, 관계의 파괴 그리고 자기 학대의 원인이 된다는 믿음은 더욱 악화된다. 사랑하고 사랑 받고자 하는 소망이 폭력과 도착을 일으킨다는 이 잔인한 역설이 성적 학대가 피해자의 자기 감과 타자에 대한 감각을 그렇게 심하게 손상 입히는 한가지 이유이다.

4) 자기 비난

성적으로 학대받은 피해자들은 특징적으로 그들이 겪어온 성폭력의 원인이 자신이라고 믿으며 자신이 그런 취급을 받아 마땅하다고 믿는다. 또한 자기 비난이라는 핵심 감각으로부터 발전하여 자신에게 누군가의 성적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무언가가 있다고 믿고 무력하게 고통받기보다 능동적인 상태로 변하여 누군가를 유혹하여 파괴하려 할 수도 있다. 그렇게 피해자들은 그들의 궁극적인 나쁨에 대한 강력한 감각을 발달시키기도 한다.

지금까지 서술한 바와 같이, 피해자의 느낌, 행동 그리고 관계의 더욱 더 많은 영역들이 고통과 모순들로 이루어진 필사적인 망에 사로잡히고 이런 관계 딜레마는 교회에서 더 극심해지기 때문에 그들은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 대체로 피해자들은 사건이 발생한 교회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와서 다른 교회를 찾는다. 안타깝게도 다른 교회에서도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다가 아예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기도 한다. 피해자들은 하느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로 공황과 정신 장애라는 존재의 위기상태로 내던져진다.¹⁰⁰⁾

4. 교회 내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가해자와 교회의 반응

1) 목회자의 성범죄를 ‘불륜’ 또는 ‘간음’으로 프레임화

인천 모 교회 그루밍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교회 어른들에게 “너희도 같이 사랑하지 않았느냐.”라는 말을 들으며 상처를 받았다고 한다. 엄밀히 말해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상호 작용은 사랑이 아니다. 이를 심리학자 로빈 스텐은 ‘가스라이팅’이라는 말로 정의하고 있는데 가스라이팅이란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정서적 학대를 말한다. 가스라이팅은 자신이 항상 옳다고 여기며 자존심을 세우고 힘을 과시하는 ‘가해자(gaslighter)’와 상대방을 이상화하고 그에게 인정을 받기 원해 그가 자신의 현실감을 좌우하도록 허용하는 ‘피해자(gaslightee)’ 사이에서 일어난다. 남성 중심 가부장제에서 통용되는 사랑은 대개 ‘남성의 여성에 대한 소유, 지배, 통제’와 거의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가스라이팅이 남녀 간의 사랑으로 오인된다.¹⁰¹⁾ 주지하듯이, 남성 목회자와 여신도 간에는 사랑을 빙자한 가스라이팅이 매우 쉽게 일어날 수 밖에 없다.

심리적 조종을 받는 피해자는 가해자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항할 수 없었던 것인데 교인들은 피해자가 “함께 즐겼다.”고 표현한다. 또한 피해자는 목회자에게 속고 조종당했다는 것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힘들어하며 그에 대한 양가감정에 시달리는 것인데도, 교인들은 피해자를 두고 “배신감 때문에 폭로했다.”든지 “사랑했으니 저러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로써 가해자는 성범죄의 책임으로부터 도망칠 빌미를 얻고, 교회는 성폭력 사건을 ‘불륜’으로 축소 한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등하게 나누어 가진 듯한 ‘불륜’의 책임은 이중 성규범에 의해 남성 가해자에게는 한낱 일탈로 여겨지는 반면 여성 피해자에게는 ‘위험한 존재’, ‘유혹자’라는 꼬리표를 붙인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뒤바뀌고 비난은 피해자의 몫이다. 한편 간음과 성폭력을 구분없이 혼외 관계의 범주에 집어넣는 교회는 “두 사람이 ‘간음’을 했으니 목회자만 처벌 할 게 아니라 여신도도 같이 처벌하자.”는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2) 피해자를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撒旦’으로 취급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고 무마하려는 교회는 분명 합리적 이성이 결여된 공동체이다. 성폭력 사건을 어떻게든 조작하여 무고 사건으로 만들려고 세상 법정의 객관적 심판조차도 통하지 않는 곳이 교회이다. 오로지 신격화된 목사의 편에 서서 ‘목사가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있다.’라고 믿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피해자들이 어떤 피해를 입고 얼마나 괴로워하는지는 전혀 관심사가 아니다. 피해자들은 교회와 목사에게 문제 제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撒旦’, ‘이단’, ‘꽃뱀’ 취급을 받는다. 교회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교회 지도자들은 피해자를 저주하고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고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진실처럼 소문 내어 피해자를 교회 공동체에서 매장시킨다.

이를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가까스로 용기를 내어 가해자를 고소한 후 이어지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교회의 2차 가해는 더 극심해진다. 피해자를 ‘문란한 사람’, ‘거짓말쟁이’ 등으로 매도하고 피해자의 실명을 유출하고 뒷조사를 하고 다니며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서슴치 않고 한다. 미투 운동에 힘을 얻어 고소를 했던 피해자들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경찰, 검찰, 재판부

100) 스테판 프라이어, 『심각한 외상과 대상관계』, 김소희 옮김,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16, pp. 51-73.

101) 로빈 스텐,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신준영 옮김, 알에이치코리아, 2018, p. 31.

로부터 인격 모독을 당해 화병을 얻고 교회 측의 지속적인 방해에 “맨정신으로 못 버티겠다.”고 말하고 있다.¹⁰²⁾ 이런 일들은 이단 교회에서뿐 아니라 공인된 교단의 교회에서도 벌어나고 있다.

3) 피해자에게 ‘용서’를 요구

교회 내 그루밍 성범죄 가해자들은 “하느님에게 회개하고 이미 용서 받았다.”, “다윗도 뱃세바를 범하고서 용서받았다.” 등의 이른바 ‘셀프 회개’, ‘셀프 용서’를 선언하고 당당히 살아간다. 피해자의 상처는 안중에도 없고 마땅히 가져야 할 죄의식을 의식에서 제거해버린 채로, 자신의 죄를 합리화해나가며 피해자에게도 너무 쉽게 용서를 요구한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는 그가 폭력을 당했던 상황처럼 또 다시 수동적 상태에 머물도록 강요받고, 자신의 이해나 감정을 느끼고 관철시킬 수 없게 된다. 자신이 원하지 않으면서 가해자를 용서한 경우, 이러한 자신의 행동을 자신에 대한 배반으로 경험하면서 그들의 자존심은 더욱 파괴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또다시 영적으로 침범을 당하고 무기력하게 된다.¹⁰³⁾

III. 교회 내 그루밍 성범죄 발생의 종교적 배경

1. 보상체계로서의 종교

존 D. 카푸토는 종교 개념을 ‘신에 대한 사랑’으로 규정지었다. 그러나 그는 “신은 사랑이다.”라는 말이 얼마나 쉽사리 “사랑은 신이다.”라는 말로 변질해 나가는지를 새겨 보라면서 종교의 가장 중심적이고 치열한 문제는 “내가 신을 사랑할 때 나는 무엇을 사랑하는가?”라고 말했다.¹⁰⁴⁾ 신과 사랑에 대한 자기 중심적·민족 중심적 변질은 한국 개신교의 역사와도 관련이 깊다. 흔히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알려져 있지만 한국에 ‘미국의 종교’로 간주된 개신교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강조된 것은 사랑이 아닌 ‘힘’이었다. 이는 곧 근대 문명에 대한 선망에서 비롯된 식민지 무의식이 종교적 정체성의 형성과정으로 침투하여 개신교인이 된다는 것은 부자가 되고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¹⁰⁵⁾ 한국의 개신교인들은 선진 강대국인 미국의 종교를 받아들이면서 힘을 사랑하고 승배하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개신교의 종교 권력화는 개신교가 이 땅에 뿌리내릴 때부터 ‘박탈에 대한 힘의 보상체계’로써 가능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박탈감이란 정당한 권리와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생각에서 유래하는 좌절감, 무력감, 소외감을 말한다. 박탈을 강하게 느끼는 사람일수록 더욱 커다란 보상을 요구하게 된다. 한국 사회에서는 힘에 얹눌린 사람들,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일종의 보상을 바라고 교회로 몰려들었다. 사람들이 박탈에 대한 보상을 종교에서 찾게 될 때에 더욱 종교에 의존하게 되며 보다 강한 종교성은 결국 사회에서 직면하는 보다 큰 좌절에 대한 반응이라 할 수 있다.¹⁰⁶⁾ 특히 사회적 좌절을 더 심하게 느끼는 여성들은 유일한 공적 공간인 교회로 몰려들게 되었다. 아무런 사회적 인정도 받을 수 없었던 여신도들에게 교회, 특히 남성 목회자의 인정은 ‘하느님의 인정’과 동일시되었다. 그에게 ‘좋은 교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여성은 교회에서조차 밸

102) 배지현 기자, (2018. 11. 12), “성령이라는 이재록을 위해 그들은 날 계속 죽였다”, 오마이뉴스, Retrieved from <https://news.v.daum.net/v/20181112121500959>

103) 울리케 아이힐러 외, 『깨어진 침묵』, 김상임 옮김, 여성신학사, 2001, pp. 190-191.

104) 존 D. 카푸토, 『종교에 대하여』, 최생열 옮김, 동문선, 2003, pp. 7-13.

105) 이숙진, 『한국기독교와 여성 정체성』, 한들출판사, 2006, pp. 52-53.

106)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편, 『성폭력과 기독교』, 여성신학사, 1995, p. 207.

불일수 없었고 순종하는 것만이 ‘생존의 테크닉’이었으므로 한국 교회 여성들은 불합리한 상황에서도 맹목적이고 무비판적으로 순종하게 되었다. 그들은 목회자가 성폭력을 저지르는 상황에서조차 순종할 정도로 순종 이데올로기에 강하게 사로잡혀 있었다.

2. ‘중독’으로써의 종교

통합 사상가 켄윌버는 ‘종교’에 대해 ‘영원의 철학’이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해 보자고 제안한다. 영원의 철학에서 종교가 갖는 목적은 고통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 전체를 발견하는데 있고 인간 의식은 그 궁극적 전체의 발견을 위한 진화과정에 있다는 것이 월버의 주장이다. 인간 존재의 기본 본성 또한 ‘아트만’¹⁰⁷⁾이라고 불리는 ‘궁극적 전체의 초월적 참자아’이며 인간은 자신의 분리된 에고를 초월하여 자신의 가장 깊은 본성이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할 때 불안과 근심으로부터 벗어난다. 인간이 종교를 갖는 것은 이러한 진정한 초월을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은 초월에 반드시 필요한 에고(ego: 월버에 따르면, 분리된 자아 감각)의 상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것을 막고 상징적인 대체물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초월을 추구하는 데 힘쓴다. 이런 대체물은 성, 음식, 돈, 명성, 지식, 권력처럼 갖가지 다양한 형태로 다가온다. 그 다음에 궁극적 관심이 아닌 영원히 살고 싶은 소망을 추구하고, 우주와 하나가 되는 대신 우주를 소유하고 싶은 욕망을 쫓으며, 신과 하나가 되는 대신 스스로 신 노릇을 하려고 한다. 이처럼 아트만 의식을 막고 상징적 대체물을 강요하는 식으로 아트만 의식을 되찾으려는 시도를 월버는 ‘아트만 프로젝트’라고 부른다. 아트만 프로젝트는 아트만의 대체물이지만 이 또한 아트만을 회복하려는 욕동을 담고 있고, 상징물로서 기능할 수 있다.¹⁰⁸⁾ 그러나 상징물이 아트만을 완전히 대체하려할 때, 상징이 상징적 동등시¹⁰⁹⁾로 변질되며 초월이 아닌 고착과 퇴행이 일어난다. 이때 종교는 더 이상 종교로서의 본질을 유지할 수 없고 ‘중독’이 된다. 이 시점에서 탄생하는 사이비 교회는 원시적 전능 환상과 마술적 믿음을 공유하면서 온 교회 구성원들을 하나의 구심점으로 집결시킨다.

우리 사회에 이런 사이비 교회가 횡행했던 이유는 일제 강점기와 분단, 전쟁을 거치며 암울했던 시대적 정황 속에서 개신교가 성장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사회에 몰아닥친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의 영향으로 전근대적 미분화 공동체 안에서 살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고향을 떠나 도시에 정착하면서 ‘존재의 뿌리가 뽑힌 듯한 상실감’을 느꼈다. 그런 사람들을 교회가 흡수해서 ‘아버지’의 그늘 아래, 다시 ‘소속감’을 제공하는 새로운 ‘미분화 공동체’로 탄생하였다.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교회의 부흥·성장은 개신교의 권력화 과정을

107) 고대 인도의 《우파니샤드》 철학에서 브라만(Brahman. 梵)과 함께 가장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 끊임 없이 변화하는 ‘물질적 자아’(육체, 생각, 마음)와 대비해 절대 변치 않는 가장 내밀하고 ‘초월적인 자아’(영혼)를 말한다. 아트만, 네이버 지식백과, Retrieved from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21921&cid=40942&categoryId=31491>

108) 켄 윌버, 『에덴을 넘어』, 조옥경·윤상일 옮김, 한언, 2014, pp. 43-53.

109) 주체가 대상이 지닌 상징적인 측면을 채택하여 그것을 마치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대상과 동일한 것처럼 간주하는 심리과정으로써 클라인(M. Klein)이 제시한 발달단계 중 편집분열적 양태에서 나타난다. 이 양태에서는 비탄이나 애도능력이 아직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실한 대상을 포기할 수도 없고, 또한 상징으로 대체할 수도 없다. 그러나 우울적 양태에서는 대상상실을 수용할 수 있다. 대상 포기는 자기 내부에 대상을 재창조하려는 소망을 자극한다. 따라서 대상포기와 함께 대상에 대한 다양한 표상을 발달시키고, 이러한 표상 중 일부는 상징 또는 추상적 대체물이 된다. 상징적 동등시, 네이버 지식백과, Retrieved from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673295&cid=62841&categoryId=62841>

부추겼다. 이때 ‘하느님’이 목회자로, ‘하느님에 대한 순종’이 목회자에 대한 순종으로 변질되고 대체되었다. 교회가 신도들에게는 자기 위안,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권력 쟁취의 수단이 되었을 때 종교는 ‘중독’이 되었고 교회 지도자들의 성폭력은 당연한 결과이다. 교회가 공유했던 ‘마술·신화적 환상’이 피해자의 현실 인식을 불가능하게 하고 비판적 사고를 막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성폭력에 순응하게 했기 때문이다.

3. 교회 내 여성 혐오 문화

초대 교회에서 여성이 수행하였던 활동은 상당히 광범위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4세기에 들어서면서, 성직에 대한 교회의 개념이 바뀌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교회의 조직적 구조도 점진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교회는 점차 위계적으로 변해 갔다. 여성이 남성보다 늦게 창조되었다는 점과 원죄를 여성의 책임으로 보는 성서적 전통은 여성의 복종과 침묵을 합리화하였다. 분명하게 기술되어 있지는 않지만, 초기 교회 남성들이 실제로 우려했던 바는 월경하는 여성들이 교회의 예배와 성례전을 오염시킬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월경하는 여성에게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최초의 그리스도교 지도자는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인 디오니시우스(Dionysius)였다. 후대의 교회 공의회들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정(不淨)한 사람”이 제단 근처에 가는 것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¹¹⁰⁾ 결국 교회 내에서 여성들의 지도와 직책을 거부하는 가부장적 교부들의 쟁론들은 여성들의 지도력을 이단과 연결짓기에 이르렀다. 테르툴리아누스는 남자만이 아니라 천사를 유혹에 빠지게 했다면서 여자의 유죄를 선언했다. 여자는 “악마의 출입문”이고 모든 죄의 뿌리라는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예로니모는 죄만의 기원만이 아니라 이단의 기원도 여자에게 귀속시켰다.¹¹¹⁾

한국 교회 내에서는 이러한 교부 시대 기독교에 뿌리를 둔 여성 혐오 사상이 만연하게 퍼져 있다. 아직까지 여성 안수를 허락하지 않고 여성을 의사결정구조와 강단권에서 완전히 제외시키는 교단이 있다. 2003년 그 교단의 총회장이었던 임목사가 “우리 교단에서 여자가 목사 안수를 받는다는 것은 택도 없다. 여자가 기저귀 차고 어디 강단에 올라와!”라고 했던 일명 ‘기저귀’ 발언이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례적이고 극단적인 여성 혐오 발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성의 열등한 존재로 여기고 여성의 위치를 순종하고 말 잘 듣는 ‘이등 성도’로 격하시키는 여성 혐오 문화가 교회 내에 존재한다. 교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가부장제 아래에서 여성 젠더는 단순한 성적 차이를 넘어서, ‘억압과 분리, 불평등, 그리고 여성들의 내면화된 열등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내면화는 결국 자기 비하, 수동성, 자격지심 등과 같은 것을 자신의 본성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자기 암시와 같은 기능을 한다. 교회의 덕목이나 규범은 오직 욕망을 버리고 희생적인 삶과 정신을 가진 여성만을 높이 평가한다.¹¹²⁾

또한 성녀/창녀의 비현실적인 이분법은 가부장제가 여성의 성을 통제하고 억압함으로써 여성들 스스로 그 굴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가두는 역할을 했다. 여성의 순결 여부를 기준으로 여성의 몸은 남성의 지배와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몸이 되었다. 더욱이 순결한 여성으로 인정받고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음란하다고 분류되는 여성을 비방하고 헐뜯어야만 하는데 이는 여성들이 연대하여 가부장적 교회 구조에 문제 제기하는 것을 막고 교회 내에서 여

110) 바바라 J. 맥해피, 『기독교 전통 속의 여성』, 손승희 옮김,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5, pp. 35-38.

111) 엘리사벳 쉬슬러 피오렌자, 『동등자 제자직』, 김상분·황종렬 옮김, 분도출판사, 1997, pp. 194-195.

112) 이숙진, 앞의 책, pp. 164-165.

성들 간에 끊임없는 불화와 다툼을 일으켰다.¹¹³⁾ 성폭력 피해자들 역시 피해 여부가 아닌 순결 이데올로기의 잣대에서 바라볼 때 ‘음란한 여성’의 범주에 포함되어 교회 여성들에게 조차 공감을 얻지 못하고 2차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가부장제에 공모하는 여성들의 ‘허위의식’은 성폭력 문제 해결에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이런 교회 상황에서 젊은 여성 교인 수는 급감하고 있는 추세이며 아직 교회에 다니고 있는 여성들에게도 단 하나의 선택만이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인다. 가부장적 질서에 순응하여 “예수의 희생적인 사랑을 모방하고 따라서 피해자의 역할을 기꺼이 수락하는”¹¹⁴⁾ 기독교인의 삶을 살 것인가, 기독교인이기를 포기하고 교회를 떠날 것인가. 이것은 특히 가부장적 질서에 순응하다가 목회자로부터 피해를 입고도 입막음을 당하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처한 딜레마이다. 목소리를 내기로 선택했다면 그들이 교회 안에서 생존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들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으로 낙인찍혀 교회 밖으로 내몰리겠지만 가부장제의 바깥에서 살고자 하는 용기에서 나온 그들의 목소리는 교회의 뿌리깊은 가부장제를 뒤흔들 것이다.

4.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지는 가부장적 종교 권력

최근 교회 내 문제로 목회자의 성폭력과 함께 ‘목회 세습’이 불거지고 있다. 권위주의적 교회 문화 속에서 살아온 신도들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목회 세습이 ‘권력의 자기 복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¹¹⁵⁾ 이는 권력이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양되고 아들은 아버지를 숭배하는 가부장제의 퇴행적 구조를 말해주고 있다. 인류의 죄책감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서 생겨났으며, 형제들이 힘을 합쳐 아버지를 살해한 뒤에야 인류는 비로소 죄책감을 얻었다는 프로이트의 가정 하에, 가부장적 교회의 현상을 살펴보자. 프로이트의 말대로 죄책감이 권위자의 사랑을 얻고 싶은 욕구와 본능을 만족시키고 싶은 욕구 사이의 갈등에서 유래하는 파생물이라면, 가부장적 교회는 이러한 죄책감(원죄)로부터 인류를 구원한다는 것을 주장하며 사람들에게 본능을 억제하고 아버지의 인정을 갈구하게 하는 퇴행으로 이끌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교회는 사람들을 강제로 심리적 유아 상태에 묶어 놓고 행복을 얻고 고통으로부터 보호받으리라는 집단 망상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신경증에서 구제하는 데 성공한다. 단, ‘하느님 아버지’의 영원한 아들들이 됨으로써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¹¹⁶⁾

기독교의 가족 질서 회복 운동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굳건하게 다시 세우고 이러한 연쇄적이고 순환적인 관계에 의해서 구성되는 것이 ‘하느님의 섭리’에 따라 사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을 내세운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삶이 아니라 아들들, 남자들의 삶이다.¹¹⁷⁾ 가부장적 가족과 교회에서 딸들이 생존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버지에 대한 성애적 관심을 발달시키는 것뿐이다. 그것은 남성이 여성보다 어디서나 더 사랑받는다는 사실, 처음으로 사랑한 대상인 어머니조차 여성보다 남성을, 곧 딸보다 아버지나 남자 형제들을 먼저 선택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뒤 보이는 반응이다. 딸들은 아버지가 그녀를 명예로운 아들로 만들어 줄 거라는 희망에 부풀어 아버지에게 의존한다. 딸들의 상상 속에서, 아버지는 그녀에게 남성의 상징(팔루스)을 부여할 권한을 가진다.¹¹⁸⁾ 이런 식으로 딸들은 팔루스라는 하나의 기표를 중심으로 하는

113) 위의 책, p. 167.

114) 메리 데일리, 『하느님 아버지를 넘어서』, 황혜숙 옮김,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7, p. 157.

115) 이진구, 「한국 개신교와 종교 권력」, 『현대 사회에서 종교권력, 무엇이 문제인가』, 동연, 2008, p. 143.

116) 지그문트 프로이트, 『문명 속의 불만』, 김석희 옮김, 열린책들, 2014. 참조.

117) 한금윤, 『현대 사회의 성과 문화적 재현』, 소통, 2017, p. 297 참조.

가부장제의 희생자이면서 공모자가 되어왔다. 목회자의 그루밍 성폭력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소외된 딸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의 ‘권력’을 나누어주겠다는 아버지의 거짓말에 속을 수 밖에 없는 가부장적 교회에서만 가능하다.

IV. 교회 내 그루밍 성범죄 발생의 문화·심리적 배경

1. 여성을 보호해줄 국가는 없다

그루밍 성범죄는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이다.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가해자가 각종 보상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다가와 성폭력을 행할 때,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밝히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권력 관계와 동의에 대한 이해가 거의 부재한, “저항이 불가능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을 때에만 강간이 가능하다”는 강간 최협의설은 강간을 문화적으로 합법화해주는 법적 장치이다. 이를 입증해주듯이 안희정 전 지사의 ‘비서 성폭행’ 사건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는 “사법 정의는 죽었다.”라며 이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거리로 나와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 못 살겠다. 박살내자.”는 구호를 걸고 시위를 했다. 미투 운동 이후 여성들은 자신들을 보호해줄 법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다.

여전히 가부장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남성들의 욕망은 여성들에게 ‘자립적 개인’의 이념을 적용하기를 거부한다. 국가는 법적 주체들, 즉 ‘자립적 개인’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국가는 ‘남성들의 국가’이다. 결혼과 동시에 ‘사적 영역으로 편입’되는 여성은 ‘법적 영역에서 축출’된 채 사적 지배를 받는다.¹¹⁹⁾ 양효실은 “오랫동안 공적 영역에서 배제된 채 사적 영역으로 내몰린 채로 살아온, 남성적 이분법인 공과 사의 구분 안에서 사적 영역에 할당되었던/같혔던 여성·물건·재산을 위해 과연 공적 제도인 법이 정의를 실천할(나눌) 수 있는가?”라고 묻는다. 법과 폭력은 공모하고 있기에 폭력으로부터의 벗어남이란 공적 제도로서의 법-남성성에 의해 여성에게는 애당초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여성들의 보호자이면서 가해자인 남성들의 이중적 양태를 지적하며 성폭력 사건이 ‘포르노’로 둔갑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말한다.¹²⁰⁾ 남성들의 국가가 사랑과 지배를 동일한 것으로 전제한다는 점에서 가해자는 오히려 국가의 보호를 받게 된다.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법의 올바른 판단은 결혼제도에 기입된 여성들의 탈주체화와 남성들의 무의식 속에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성적 지배의 욕망을 문제시하고 여성들을 ‘시민사회의 일원’이자 동등한 ‘법적 주체’로 인정할 때까지 유보될 수 밖에 없다.

2. 가부장제의 강간 프로그램

메리 데일리는 가장 불경한 삼위일체로 강간과 대량학살, 그리고 전쟁을 들었다. 강간의 사고를 논리적으로 확장하면, 그것은 폭력의 피해자 역할로 던져지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화(objectification)하는 것이다며 강간은 여성을 대항하는 남성의 행위이고, 남성의 소유물인 여성은 더럽혔다는 이유로 남성에 대항하는 남성의 행위이므로 집단 사고의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

118) 주디스 루이스 허먼, 『근친 성폭력』, 박은미·김은영 옮김, 삼인, 2010, p. 107.

119) 이종영, 『성적 지배와 그 양식들』, 새물결 출판사, 2001, 제 4장.

120) 양효실, 「이 여자들을 보라」, 『당신은 피해자입니까, 가해자입니까』, 현실문화연구, 2017, pp. 72-77.

다.¹²¹⁾ 양효실 역시 강간은 어쩌다 일어난 일이 아니라 문명화의 일환이고 극단적으로는 법과 정의를 거머쥔 남성 중심 문화의 핵이라고 말하고 있다. 남성성을 위한 제도로서의 강간은 남성성의 대립항이자 남성성의 타자로서의 여성성을 반복 생산한다. 피해 여성이 강간을 당할 때 저항하지 못하는 것은 문화적 구성물인 여성성이 여성을 억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후 여성들이 피해를 입증하려고 강간의 경험을 이야기하면 오히려 유약하고 심지어 ‘무구한/무지한’ 여성성의 자리에 갇혀버리고 만다. 이처럼 피해자에게 강요되는 ‘피해자다움’도 여성성에 포획되는 강간 프로그램의 일부이다. 피해자는 말할 수 있는 언어가 극히 제한된 남성 중심 언어의 굴레에 갇혀 자신과 싸우다가 스스로 입을 닫고 침묵한다.

그루밍 성범죄라는 아직은 생소한 성폭력 개념이 말할 수 없었던 피해 경험의 많은 부분을 조명함과 동시에 강간 프로그램에 균열을 내고 있다. 피해자들은 ‘거짓말쟁이’, ‘미친 사람’, ‘꽃뱀’이 될 위험에 처한 반면 ‘순수한 피해자’의 범주를 무너뜨리고 있다. 성범죄는 전적으로 관계의 맥락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권력’과 ‘동의의 조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이처럼 그루밍 성범죄는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피해자 서사에 포획되지 않는 개념이기에 이에 대한 남성 연대의 저항도 무척 거세다. 이제 피해 경험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도 폭력이라는 인식과 함께, 피해자들이 재현(말하기)을 시도할 때마다 겪는 고통과 슬픔, 말하기에 뒤따르는 2차, 3차 피해를 읽고 배우는 또 다른 윤리가 필요하다. 침묵 안의 아우성을 듣는 또 다른 윤리는 성폭력 피해 말하기의 새로운 장을 열어줄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법 자체를 고발하면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¹²²⁾

3. 종교적 전이를 성애적 전이로 바꾸는 ‘도착’

그루밍 성범죄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행위를 ‘성폭력’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의 행위를 ‘사랑’으로 오인하기 때문이다. 그루밍 성범죄를 접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역시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상호작용이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아무리 가해자의 회유와 설득, 세뇌가 있었다고 한들 피해자가 완전히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것이 종교 내 문제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종교 경험의 측면에서 그루밍 성범죄를 분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심리학은 유아기와 어린 시절에 적절한 심리 발달이 이루어져야 성인의 성숙한 종교 경험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한다. 반대로, 발달 초기에 경험한 발달의 갈등 또는 해결되지 않은 불안의 잔재가 문제 있거나 미성숙한 종교 경험을 야기한다.¹²³⁾ 중요한 것은 이러한 종교 경험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를 촉진하는 전이 대상과의 관계 경험 속에서 형성된다는 것이다. 즉 성도들은 목회자를 하느님의 상징으로 바라보며 그와 종교적 전이를 형성한다. 성도들은 전이 관계에서 미성숙한 상태로 퇴행할 수 있지만 그러한 퇴행이 성장을 위한 일시적 후퇴가 될 수 있도록 돋는 사람이 목회자이다. 그런데 성장을 가로막고 퇴행을 고착화시키는 것은 목회자를 ‘하느님 아버지’의 살아있는 화신으로 고정시키는 상호 작용이다. 이 때 성도들은 목회자를 신격화하여 비현실적일 정도의 이상적 대상으로 여기며, 현실의 아버지에게서 충족되지 못한 무조건적 사랑과 인정을 그에게서 구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 목회자는 자신을 향한 성도들의 비현실적인 기대와 자신의 현실적 자아상 간의 충돌을

121) 메리 데일리, 앞의 책, p. 214.

122) 양효실 외, 앞의 책, p. 84, p. 108.

123) 마이클 세인트 클레어,『인간의 관계 경험과 하느님 경험』, 이재훈 옮김,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8, p. 52.

경험하며 거짓 자기를 발달시키게 된다. 자신의 참자기와 거짓 자기의 간격이 커질수록 그는 과대망상의 지배를 받게 된다. 특히 자기애적 장애가 있는 목회자의 경우, 내면의 낮은 자존감은 보상받지 못한 채로 남아있으면서 자신에게 요구되는 아버지 상을 체현해야 한다는 커다란 긴장감을 조절하지 못하는 가운데 성적 욕구 충족에 몰입하게 될 수 있다. 이때 목회자의 내면에서 ‘도착’이 일어난다. 도착이란 용어는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변형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랑을 증오로, 의미있는 것을 무의미한 것으로, 협력을 착취로 바꾸는 이 과정은 의식적일 수도 있고 무의식적일 수도 있다. 컨버그는 도착을 공격성의 발산을 위해 사랑과 의존, 그리고 통상적인 의미의 성욕을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반영하는 대상관계의 성질이라고 보았다.

이렇듯 목회자의 그루밍 성범죄는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성도들의 종교적 전이를 성애적 전이로 조종하여 바꾸고 공격성을 발산하기 위하여 섹스와 사랑을 이용하는 도착과 폭력의 성격을 띤다. 로젠펠드(Rosenfeld, 1971, 1975)가 이야기하듯, 가해자는 ‘미친’ 자기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친밀한 관계에서 상대방의 좋은 것을 남김없이 추출하는 것을 통해서 피해자를 텅 빈 존재로 만들거나 파괴해버린다. 비온(1970)은 전이 관계를 분석하면서, 이러한 관계를 ‘기생적(parasitic)’ 전이라고 했다.¹²⁴⁾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상호 의존적인 면이 있다 할지라도 둘의 관계는 때로는 ‘신과 인간의 간극’처럼 엄청나게 불평등하다. 이는 명백히 종교 안에서 발생하는 종교적 전이, 즉 ‘하느님 아버지 전이’로서, 굳이 비교하자면 친족 성폭력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종교 경험은 한 개인이 ‘하느님’께 자신의 전 존재를 투신하는 행위일진대, 그것을 성폭력으로 오염시킨다는 것은 한 영혼을 살해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4. 낭만적 사랑의 수사학을 구사하는 가해자

그루밍 성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성적 요구를 하면서 하는 말 중에 “사랑한다.”, “결혼하자.”라는 말이 있다. 그러한 말들은 마치 성적 요구가 진실한 사랑의 표현인 것처럼 포장하는 낭만적 사랑의 코드를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성과 사랑, 폭력의 경계를 흐려놓는 역할을 한다. 낭만적 사랑은 문화 속에 각인된 이른바 ‘남녀 간의 자연스러운 사랑’이지만 이중 성 규범과 성별 권력 관계가 그 안에 녹아들어 있어 권력 면에서는 철저히 비대칭적인 사랑이다. 역사적으로 ‘단 하나 뿐인’, ‘영원한’ 사랑의 ‘헛된’ 약속으로 여성들을 기만해오고 여성을 가정 내에 종속시키는 결혼 제도를 유지해온 ‘낭만적 사랑 복합체’는 가부장적 권력 유지를 위한 근대의 발명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본질에서부터 도착되고 거짓된 사랑이다. 낭만적 사랑의 시조를 들자면, “수녀에서 아내로” 신앙적 삶을 변혁하라는 마틴 루터일 것이다. 그 후 청교도들은 부부 관계의 종속보다 사랑과 믿음의 상호성을 더욱 강조하면서 남녀 간의 ‘위계적 평등성’을 정립했다. “아내의 주된 의무는 복종이고, 남편의 주된 의무는 사랑이다.”¹²⁵⁾라고 가르치는 설교들은 여성들에게 관계의 책임과 사랑의 의무를 부가하고 남성들은 오직 유혹 또는 정복의 테크닉이라는 방면에서만 ‘사랑의 전문가’로 만드는 경향이 있어왔다.

그러나 여성들의 성적 자유가 증대하고 결혼이 선택의 자유가 되자 여성들을 유혹하고 그들

124) 오토 컨버그, 『인격장애와 성도착에서의 공격성』, 이재훈·박동원 옮김,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8, pp. 396-397 참조.

125) 백소영, 「평등한 창조를 부정하는 순종론을 깨라」, 『교회에서 알려주지 않는 기독교 이야기』, 자리, 2012, pp. 216-217.

을 정복함으로써 권력을 행사했던 전형적인 남성성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할 수 없게 되었다. 성과 사랑, 친밀성의 대대적인 구조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남성 권력의 위태로움을 느끼는 남성들의 성적 강박성은 성폭력과 같은 형태로도 나타나고 있다. 일부 남성들은 가장 쉽게 자신의 통제 하에 둘 수 있는 미성년자나 취약한 여성들을 통해 여전히 힘을 과시하고 싶어한다. 취약한 이들을 돌보는 목회자 중에 그런 남성들이 있다면 그 위험성은 상상을 초월한다.

가해자들은 낭만적 사랑의 언어를 설득의 수사학으로만 사용해서 성적 정복의 역학(mechanics)을 유지한다. 그들은 “사랑한다.”, “결혼하자.”는 확신에 찬 언어를 구사하지만 그들은 인격적인 존재와 사랑을 주고 받을 능력이 있는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기 위해 여성을 마구잡이로 소비하는 성 중독자일 뿐이며 본 모습을 숨긴 채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다.¹²⁶⁾ ‘여자는 사랑받아야 한다’는 문화적 강박관념 속에 젖어있는 여신도일수록 이런 성향의 가해자에게 그루밍 당하기 쉽다. ‘성 중독’인 가해자가 ‘사랑 중독(비현실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갈망함)’인 여신도를 타겟으로 삼아 길들여 서로가 상호 의존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그루밍 성범죄는 일종의 문화 심리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피해자는 자신에게 유일하게 중요한 대상인 가해자가 ‘나쁜 대상’일지라도 그를 잃고 싶지 않고 조금만 참으면 ‘사랑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환상 속에서 그 관계를 지속할 수도 있다.

V. 교회 공동체의 의식 변화를 향하여

1. 억압이 아닌 초월의 추구

지금까지 살펴본 바, 그루밍 성범죄가 권력 지향적 종교의 전반적인 병폐와 맞물리면서 발생하는 은밀한 남성 폭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필자는 교회 안의 남성 폭력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교회 구성원 개개인의 의식 변화, 곧 ‘초월’을 추구하는 영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하느님을 ‘아버지’로 의인화하는 상징을 포기해야 한다. 한 가지 상징의 이원화하고 구체화하고 투사하는 증상은 가부장적 인식의 특성이 되어 왔으며, 잃어버린 자아를 담는 창고로서 ‘타자’를 만들어 낸다. 여성이 이 이원화 과정의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하느님’을 ‘되어가는 존재’로서 명사가 아닌 ‘동사’로 인식하는 게 필요하다. 그 동사 안에 우리가 참여하는 ‘초월’을 다시 찾는 것이 ‘계속 열려가는 신’으로서의 하느님을 만나는 과정이라 할 수 있겠다.¹²⁷⁾ 켄 월버는 『A Sociable God』에서 하느님이 우리의 의식 속에 들어 있는 단지 하나의 상징이기를 멈추고, 있을 수 있는 모든 사회의 통합체임을 알게 될 때, 우리 모두는 이미 형성된 동시에 형성되어가는, 해방된 동시에 해방시키는 사회적인 신 안에 잠겨있음을 알게 된다고 말하였다.¹²⁸⁾

그러나 지금까지 ‘초월’이라는 개념이 관계를 중요시하는 여성적 가치들과 상반된 남성적 가치들의 ‘거짓 초월’과 동일시되어 억압을 부추겨 왔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월버는 인간의 발달이 자연적 위계인 홀라키(holarchy)¹²⁹⁾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전제 하에 거짓 초

126) 앤소니 기든스, 『현대 사회의 성, 사랑, 에로티시즘』, 배은경, 황정미 옮김, 새물결, 2003, pp. 75-141.

127) 메리 데일리, 앞의 책, pp. 94-95.

128) 켄 월버, 『A Sociable God』, 조옥경·김철수 옮김, 김영사, 2016, pp. 293-294.

129) 홀론(holon)은 그리스의 홀로스(holos; 전체, 실재물)에서 파생된 용어로 그 자체로 전체를 형성하

월과 진정한 초월을 정확히 ‘전초 오류’라는 개념으로 집어내고 있다. 전초 오류는 종교가 합리성이 아닌 초월성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종종 빠지기 쉬운 오류이며 전(前)이성 단계와 초(超)이성 단계가 둘 다 이성적이지 않기 때문에 혼동하여 오류를 범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월버는 전 이성 단계의 신화적인 신, 즉 ‘하느님 아버지’가 인간이 만들어낸 수많은 고통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한다. 종교의 신화적 멤버쉽 결속이라는 패러다임은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상징을 공유하며, 똑같은 아버지/신/왕을 함께 모셔야 한다”를 표방하는 것이다.¹³⁰⁾ 그는 자기 중심적이고 마술적인 종교나 민족 중심적이고 신화적인 종교, 즉 전(前) 이성 단계의 종교와 궁극적인 자유와 충만함과, 소외와 분열과 고통으로부터 해방을 가져다주는 초(超) 이성 단계의 영성을 구별한다.¹³¹⁾

전초 오류는 최상위 가치인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명분으로 접근하여 성을 남성 권력 증대의 은밀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교회 내 그루밍 성범죄에도 해당된다. 그루밍 성범죄는 교회가 성을 금기시하고 억압함에 따라, ‘모든 것의 바탕인 사랑이 기저 구조인 성을 포함하고 초월하는 통합적 발달’이 방해받고 그 반대로 분열적 발달이 일어나 사랑이 성에 의해 이용당하게 된 현상이다. 진정한 초월은 사랑으로 성을 통합하여 건강한 성을 영위하게 하지만 거짓 초월은 성을 억압하며, 억압된 것은 공격성과 결합되어 성폭력이라는 증상으로 나타난다.

억압은 개인의 개체화 과정을 막는 신화·멤버쉽 수준 교회의 특성이다. 그러므로 억압이 아닌 초월을 위해서는 개개인이 신화적 집단에 매몰되지 않고 깨어나 ‘나와 타자를 동등한 개체로 존중하는 합리적 수준’의 의식을 갖추는 것이 선결 조건이다. 의식 속에 합리적 수준이 부상하면 개인은 자기 중심성이 감소하면서 자기와 타자라는 반성적 위치 또는 조망주의자 위치로 이동한다.¹³²⁾ 진정한 초월은 조망 능력이 커져 더 많은 이들과 공감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음으로 증명된다.

2. 욕망, 규범, 권력 관계를 질문하기

그루밍 성범죄 발생의 기독교적 배경에는 ‘하느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환상이 있다. 기독교가 강조하는 이 사랑은 개개인의 환상을 지배하여 자신과 타자의 한계를 존중하지 않고 타자를 식민화하는 이데올로기를 생산해 낸다. 성관계에 대한 모든 문제가 ‘사랑’이라는 문제로 환원된 데에는 이런 유독한 이데올로기가 깔려 있기 때문일 것이다. 기독교 성문화의 재현을 아주 자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재현을 생산한 특정한 이데올로기와 권력이 기득권을 유지할 것이다. 그 기득권의 소유자가 누구인가, 어떤 힘을 발휘하고 있는가, 누구를 배제하는가를 파악할 때 재현에 작동하고 있는 상상의 정치성이 드러날 수 있다.¹³³⁾

종교 권력은 규율 권력이다.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일상적으로 확인받지 않아도 알아서 자기 몸을 거기에 맞추는 것을 ‘자발적 종속’, ‘주체적 종속’이라고 한다. 제도나 규범, 성별 이데올로기, 성별 이중규범, 여자를 창녀와 성녀로 나누는 성적 등급화 같은 제도나 규범 등은 여성들의 몸을 통해서 유지된다. 즉, 권력 관계, 피해를 만드는 구조는 개인들이 그 구조에서 요구하는 규범이 몸에 자연스러울 때 비로소 원활하게 유지·재생산되고 이를 ‘하비투스’¹³⁴⁾라고 한

면서 더 큰 전체의 일부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홀론들의 계층구조를 훌라기라고 한다. 켄 월버,『통합 심리학』, 조옥경 역, 학지사, 2013, p. 34.

130) 켄 월버, 앞의 책, p. 222.

131) 켄 월버,『통합비전』, 정창영 옮김, 김영사, 2014, pp. 125-136.

132) 켄 월버, 앞의 책, pp. 221-225.

133) 한금윤, 앞의 책, p. 31.

다. 여성들이 규범에 대한 비판 능력이 있더라도 규범과 위계가 요구하는 사람이 됐을 때 누릴 사랑받는다는 행복감을 포기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끝없이 스스로를 사회적 인정으로 증명하려는 여성들의 욕망을 자원으로 남성 해게모니를 추구하는 가부장적 욕망의 거대 회로가 만들어진다. 그 안에서 여성들은 욕망하기보다 욕망의 대상이 되어 욕망을 잃어버리도록 식민화된다. 남성 해게모니를 생산하는 권력과 규범은 여성들을 억압의 굴레에 가두고 여성들의 욕망을 고통으로 바꾼다.

이제 고통이 아닌 욕망을 질문할 때다. 여성들의 고통을 만들고 있는 욕망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나서 기존의 권력과 규범 안에서 생존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을 쟁취하고 몸을 다르게 변화시키는 것은 여성성이라는 젠더 규범을 해체하는 작업일 것이다.¹³⁵⁾ 하지만 규범적인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의 삶을 허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너무나 의심없이 당연시 되던 규범적 기준을 형성하는 권력 관계와 담론 조건에 대해 끊임없이 정치적, 윤리적으로 심문하는 일이다.¹³⁶⁾

3. 타자를 포용하는 상호 관계성 추구

기독교 공동체는 그동안 원죄 신화를 인간의 타락과 죄성에 대한 전형으로 차용했다. 그러나 윌버는 원죄를 인간의 타락이 아니라 ‘분화’ 또는 ‘분리’라고 보면서 타락의 의미를 ‘죄의 증가’라는 부정적 의미에서 ‘죄의 자각의 증가’라는 적극적 의미로 바꾸어 해석하고 있다.¹³⁷⁾ 분리를 자각하고 합일에 이르는 과정에서 분화와 통합-더 많이 분화된 사람일수록 더 많이 통합한다.-의 영성을 말하는 윌버의 통합 심리학은 융합의 추구(퇴행)에서 벗어나 타자성의 인정과 상호 관계성의 인식(초월)에 관한 새로운 길을 터준다.

그가 말하는 ‘합일’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이해하면 안되고 비이원 의식(不二, 둘이 아님)을 말한다. 이는 독립적이면서도 연결되어 있는 관계 맷기이며 자아 중심성의 탈피와 자아를 상실하지 않고 타자와 동일시를 유지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의 확대, 분리 의식의 극복에 의해 이루어진다. 비이원 의식은 또한 삼위일체의 상호내재(페리코레시스)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상호내재는 삼위 각각의 정체성을 잊지 않으면서, 삼위 간의 상호 침투와 상호 순환을 통해 역할과 기능을 상호 역동적으로 교환하며 함께 움직여나간다는 것이다.¹³⁸⁾ 이는 부버가 말한 ‘나-너’ 관계의 인격 공동체와도 유사하다. 부버는 ‘나-너’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을 사랑이라고 부른다. 사랑의 사건은 사이의 사건으로 사랑은 나와 너 사이에 있는 것이다.¹³⁹⁾ 또한 정신분석가 비온은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분석 공간에 궁극적 실재인 ‘O’가 존재한다고 보았다.¹⁴⁰⁾

134) 하비투스는 개인이 사회 세계의 구조와 규칙들을 실천적으로 체화한 산물이다. 그것은 실천을 생산함으로써 실천의 객관적 조건들을 다시 변화시킨다. 부르디외에 의하면, 개인 하비투스의 사회적 발생에 있어서 생애 초기의 교육과 경험은 결정적이다. 일찍 얻어진 것일수록 신체에 더욱 깊숙이 닻을 내리고 세계에 대한 의심을 갖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중요하다. 즉 개인이 살면서 연속적으로 접한 다양한 환경의 영향을 자기 몸속에 기록하고 보관하고 연장한 것이 바로 하비투스다. 피에르 부르디외·로익 바캉, 『성찰적 사회학으로의 초대』, 이상길 옮김, 그린비, 2015, pp. 530-535.

135) 허은주, 「몸으로 읽는 여성의 폭력 피해 경험」, 『성폭력에 맞서다: 사례·담론·전망』, 도서출판 한울, 2009.

136) 주디스 버틀러, 『젠더 허물기』, 조현준 옮김, 문학과지성사, 2018, pp. 396-397.

137) 이한영, 『얇고 영적 성장』, 도서출판 문사철, 2013, pp. 332-342.

138) 김영선, 『관계신학』, 대한기독교서회, 2012, p. 22.

139) 위의 책, p. 84.

140) 조안&네빌 시밍턴, 『윌프레드 비온 입문』, 임말희 옮김, NUN, 2018, p. 125.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거리’가 존재한다. 성폭력은 거리를 상실하고 상대의 타자성을 자신의 동일성의 구조로 옮아매는 데서 나온다. 한병철은 거리의 상실이 ‘동일자의 지옥’을 만들어 내고 타자를 성애화한다고 말한다. 타자가 성애화되어 흥분을 일으키는 성적 대상으로 전락할 때, 부버가 말한 ‘근원거리’는 손상된다. ‘근원거리 두기’는 타자가 하나의 대상, ‘그것’으로 전락하고 사물화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이다.¹⁴¹⁾ 근원거리 사이에 하느님이 현존하시고 그 공간에서 타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형성된다. 그러므로 타자를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이는 무작정 거리 두기를 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타자의 관점을 위한 ‘공간’을 만들라는 말이다. 그 공간에서 타자로부터 끊임없이 요청되는 정의에의 요구를 받아들여 차이에 대한 감수성을 키움으로써 타자를 포용할 수 있다. 공동체적 자아인 우리가 삼위일체 하느님과의 영원한 사귐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타자를 ‘포섭하는 사랑’이 아닌 ‘포용하는 사랑’을 실천하며 정의로운 상호 관계성을 추구해야 한다.¹⁴²⁾

VI. 결론

이 글을 마무리할 무렵, 이재록 목사가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종교계 그루밍 성범죄가 법원에서 거의 최초로 인정되어 항거 불능의 준강간 혐의가 적용되었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국가와 사회가 듣고 응답했다는 점에서 매우 희망적인 결과이고 숨죽이고 있는 수많은 피해자들에게도 큰 힘이 되었으리라 믿는다. 이제 피해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치유와 회복을 위한 발걸음을 뗄 수 있을까.

필자는 교회 성폭력 피해자들과 오랜 기간 상담을 진행한 결과, 그들이 영혼의 죽음을 겪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부서진 자아와 끊겨진 유대관계 속에서 ‘하느님의 희망’이 더 강력하게 솟아오르고, 장기간의 치유 과정은 죽음 너머 ‘살아계시는 하느님’을 만나는 과정이었다.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부어주시는 하느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신비야말로 내가 목격한 종교 경험의 진수였다. 피해자들이 ‘나는 이미 하느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정체성을 획득하고 다시 건강한 교회 공동체와 연결됨과 동시에 인간 관계에서 무조건적이거나 절대적인 사랑을 기대하지 않고 현실적인 인식을 기반으로 건강하게 상호 작용할 수 있을 때, 치유 과정은 마무리되었다.

건강한 종교는 개인으로 하여금 세상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갖게 하며, 선한 세상과 만나도록 돋는다. 또한 하느님과의 관계나 공동체와의 관계들은 개인으로 하여금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을 넘어서 바깥으로 나아가며 자기의 한계들을 초월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¹⁴³⁾ 안타깝게도 지금의 제도화되고 권력화된 교회는 이러한 기능을 상실했다. 다시 교회가 종말론적 비전을 공유하는 가운데 현실에서 억압받는 자들을 해방하려면 교회 공동체에 속한 각각의 구성원들이 깨어나야 한다. ‘살아있는 신’은 집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의식과 영성에 그리고 우리 사이에 있다. 우리 각자의 의식 변화와 우리들의 공진화가 창발점에 다다를 때 비로소 교회와 사회가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141) 한병철,『에로스의 종말』, 김태환 옮김, 문학과 지성사, 2016, pp. 41-43.

142) 미로슬라브 볼프,『배제와 포용』, 박세혁 옮김, IVP, 2018, pp. 349-359.

143) 마이클 세인트 클레어, 앞의 책, p. 34.